

충청남도 문화

제16호

충남의 문화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 행복의 주체는 문화에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단한 문제이면서도 풀기 어려운 문제가 곧 문화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 소망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 주면서 느낌을 공유하고 행복을 조금씩 나누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남의 문화수준이 전국 최하위라고들 하지만 이제 그 틀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비전의 시대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충남인들은 삼국시대 패망한 나라였던 백제의 후예입니다. 패망을 맞은 의자왕에게 성충과 홍수같은 충신이 있었지만 그들의 충심을 몰랐던 의자왕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을 패망 후에 후회하는 우를 범했었지요. 이제 우리는 같은 돌에 두 번 자빠지는 실수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에 도청소재지가 새롭게 등지를 틀었습니다. 이제 해상왕국이었던 백제의 옛 명성을 되찾아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꽃을 다시 피워내야겠습니다. 지금은 글로벌시대이고 우리는 그에 걸맞는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국보 84호 마애여래삼존불을 보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표현해서 삼불상을 조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각한 미래불은 미소가 더욱 현저하며 자세 또한 가장 편안하게 조각된 것을 보면서 밝은 충남의 미래를 점쳐 봅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문화가족 여러분!

새로운 태양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밝은 빛으로 온 누리를 비추듯 우리 충남의 문화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제 굳게 잠겨있던 불통의 빗장을 활짝 열어젖히고 어둠을 헤쳐나가는 소통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보화 사회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이젠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 즉 드림소사이어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문화와 이미지, 스토리, 꿈을 파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선도하는 일꾼들입니다. 주민들을 선도하는 선구자의 위치에서 먼저 깨우쳐 격조 있는 문화의 마당을 가꿔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시길 기대합니다.



이준호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독자적인 문화를 자랑해온 충청남도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남문화 제16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발간에 이르기까지 힘써 주신 이준호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문화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개인의 성공은 물론 지역의 발전과 나라의 운명이 문화 역량과 창의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문화 수준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풍성하고 창조적인 문화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지역주민의 생활 뿌리를 이뤘은 지역문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승·발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예로부터 독자적인 문화를 자랑해왔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그로부터 비롯된 온화하고 원만한 품성을 바탕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문화자원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과 서해가 만나 이룬 우리의 문화는 뛰어난 예술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있으며, 최근 지리적 이점 등을 활용하여 문화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비정신과 양반문화로 대표되는 우리의 예의·정신 문화는 21세기에 어울리는 특징으로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동안 지방문화원은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굴 및 계발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지방문화원의 아낌없는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방문화원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문화사업 추진,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각계의 문화·예술 전문가 회원 확대 등을 통해서 지역 문화를 전승하고, 한국문화의 위상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전진기지가 되길 기대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역 문화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관심을 두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충남문화 제16호의 발간을 축하하며,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문화의 특성과 독창성의 개발은 세계화로 가는 지름길

우리지역 다양한 문화재를 알아보고 교류하기 위한 「제16호 충남문화」의 발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준호]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는 지역 문화의 지킴이로서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의 창달로 도민의 삶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열정을 다해 주셨습니다.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접어들어 세계 각국에서는 문화산업을 국가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삼아 자국의 문화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가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꾸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지역 문화의 특성과 독창성의 개발은 세계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1400년 전 찬란하고 융성했던 백제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백제문화는 지역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밑거름이자 자랑입니다. 훌륭한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또한, 갈수록 도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문화원과 회원 여러분의 역할도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열여섯 번째 발간을 맞이하는 「충남문화」가 지역 문화인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과 도민 문화의식수준을 고양하는 계기를 만들고, 지역문화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가 향토문화자원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헌신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역문화의 발전과 지역문화인 여러분의 활동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충남 문화」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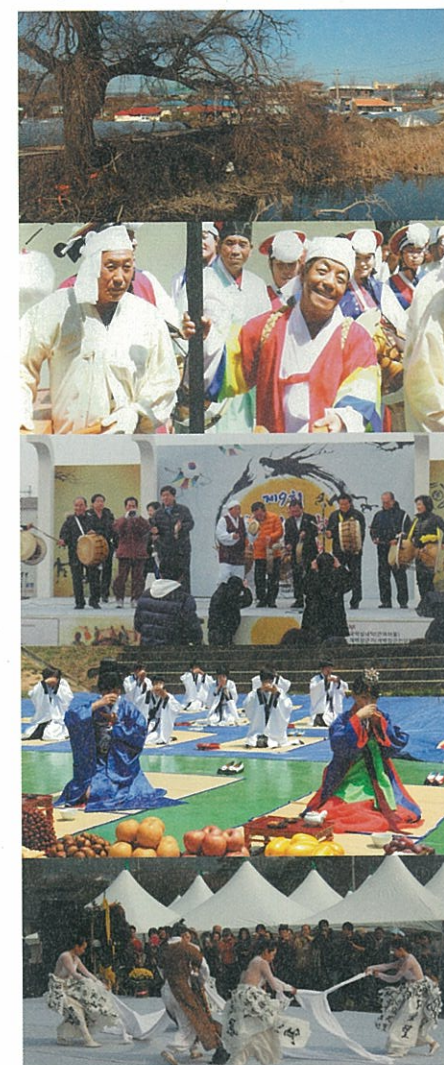


이준호
충청남도지회장

CONTENTS

001	권두언 이준호(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002	축간사 안희정(충청남도지사), 이준우(충청남도의회회장)
006	문화칼럼 조희철(부여군문화축제담당)
008	충남의 인물 조선 초기의 문신 · 장군 김종서 / 왜 우리는 장육진을 기억하는가? / 성현 임한주 선생
016	충남의 민속 금산 천내배물이굿놀이 유래 / 온양 탕정 거북놀이 / 천안동남구 천안 거북놀이
021	충남의 전설 원탈이의 말 무덤 / 주인을 살린 개와 가시연꽃을 품에 안은 역재방죽
025	충남의 문화재 안국사지(安國寺址) / 태안상옥리 가영현가옥
029	충남의 향토문화축제 논산딸기축제 / 제23회 한산모시문화제
036	충남의 문화사업
055	문화원 단신

057	2012년도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059	2012년도 도내문화원 활동상황(가나다순)
060	공주문화원
063	금산문화원
066	논산문화원
070	당진문화원
073	대천문화원
077	부여문화원
080	서산문화원
083	서천문화원
085	세종문화원
088	예산문화원
091	온양문화원
094	천안시동남구문화원
095	청양문화원
100	태안문화원
105	홍성문화원
111	각 문화원 홈페이지 소개 및 문화원 현황



부여의 노래 꿈꾸는 백마강

조희철
부여군문화축제담당

백제의 봄빛

대중가요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해진 곳이 전국에 많이 있다.

한 많은 대동강, 목포의 눈물, 금산 아가씨, 소양강 처녀 등 언뜻 생각해도 여기저기 지역을 대표하는 곡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이 노래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빼어난 경관이나 시대적 역사성을 배경으로 우리네 삶속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그 생명력을 유지 해 가고 있다.

그런데 한 지역을 배경으로 몇 곡이 아닌 무려 100여곡의 노래가 만들어져 불리고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겠는가.

1400년 전 백제의 찬란한 역사문화를 간직한 사비성 부여가 바로 그곳이다.

사람들은 흔히 부여의 노래하면 “백마강 달밤에 물새가 울어 잃어버린 옛날이 애달프구나——”로 시작되는 이인권의 ‘꿈꾸는 백마강’이나, “백마강에 고요한 달밤아 고란사의 종소리가 들리어오면——”으로 시작하는 허민의 ‘백마강’을 떠올리게 된다.

실제로 이 두 곡은 부여를 대표하는 노래로 대중이 애창하고 있고 백마강 유람선을 타고 고란사에서 구드래 방면으로 올라치면 마지막에 이 노래가 흘러나와 듣는 이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들어 준다.

노래의 소재가 된 백마강 위에서 직접 노래를 들으며 따라 부를 때면 관광객이든 모처럼 고향을 찾은 출향인이든 심지어는 부여에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색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김정구의 ‘백제의 봄빛’과 ‘낙화삼천’, 손인호의 ‘백제야화’ 남인수의 ‘한 많은 백마강’, 명국환의 ‘백제왕의 최후’, 이미자의 ‘삼천궁녀, 사랑의 선화공주, 부여 낙화암’ 엄정행의 가곡 ‘낙화암’ 등 수많은 가수들이 부여의 자연과 백제의 한을 노래했다.

이렇게 많은 부여의 노래가 있다는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게 된다는 윤준웅 부여문화원장의

삼천궁녀

한많은 백마강 백마강가요제 백제왕의 최후

숨은 공로가 크다. 그는 다년간 이 노래들을 찾아다니며 사비를 들여 LP판이며 음원을 수집해 오고 있다.

지난 해 12월에는 KBS라디오 모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어필로 결국 한 시간 동안 부여의 소개와 더불어 부여의 노래가 전국은 물론 해외 교포들에게까지 방송된 적이 있었다. 필자도 녹화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따금씩 들어보곤 하는데 들을 때 마다 새로운 느낌이 들기도 한다.

부여군에서도 2012년 58회 백제문화제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1회 백마강 가요제를 열어 큰 반응을 얻었다. 올 해는 홍보 차원에서 인기 가수들을 초청, 본인의 노래와 부여 노래를 부르는 시간으로 꾸며졌었지만 앞으로는 순수한 아마추어들이 참여하는 가요제로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현재까지 나온 곡들이 대부분 백제의 한을 소재로 한 애절한 트로트 계열이 많아 저절로 가슴을 저미며 불러야 하는 노래들이지만,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창작가요 부문도 경연에 포함한다면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노래도 생겨나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부여가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이나 역사성을 생각할 때 그 어느 가요제보다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와있는 100여곡의 노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노래집과 음반 제작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단지 노래를 모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여의 새로운 역사이며 대내외에 부여를 알리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그동안 민간에서 부여의 노래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관에서 그 결실을 맺어줄 때라고 생각한다. 부디 훌륭한 결과물이 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사랑의 선화공주

백제야화



조선 초기의 문신·장군 金宗瑞

1390(공양왕 2)~1453(단종 1)

지략이 뛰어나고 강직하였기 때문에 대호(大虎)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도총제(都總制) 추(鍾)의 아들이다.



육진개혁

본관은 순천, 자는 국경(國卿), 호는 절재(節齋). 1405년(태종 5) 문과에 급제, 상서원 직장(直長), 행대감찰(行臺監察)을 거쳐, 1419년(세종 1)에 사간원우정언이 되었다. 이어 광주판관(廣州判官)·봉상판관(奉常判官)·의주삭주도(義州朔州道)의 진제경차관(賑濟敬差官)을 지냈으며, 1426년 이조정랑, 1427년 사헌부집의·황해도경차관 등에 올랐다. 1433년(세종 15)에는 좌대언(左代言)으로서 이부지선(吏部之選)을 맡았다. 이 무렵 북쪽 변경에서 우디거[兀狄哈]족을 비롯한 여진족의 침입이 끊이지 않아, 조정에서는 대책 수립에 부심하고 있었다. 이때 그는 북변 강화의 필요성을 강경하게 주장하여, 세종으로 하여금 북방 경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했다. 마침 1433년 우디거족과 오도리[斡朵里]족이 서로 다투는 등 여진족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 국토 확장에 뜻을 두고 있던 조정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에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그는 같은 해 12월 함길도관찰사, 1435년 함길도병마도절제사가 되어 7, 8년간 북쪽 변방에서 여진족을 무찌르고 비변책(備邊策)을 올리는 등 6진(六鎭: 중성·회령·경원·경흥·온성·부령)을 개척하여 국토확장에 큰 공을 세웠다. 이로써 1416~43년에 걸쳐 개척된 압록강 방면의 사군(四郡: 여연군·자성군·무창군·우예군)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토가 두만강·압록강 상류까지 넓어졌다. 1440년 서울로 돌아와 형조판서·예조판서를 지내고, 그뒤 충청·전라·경상 3도의 도순찰사를 거쳐 1446년 의정부우찬성으로 임명되고 판예조사(判禮曹事)를 겸하였다. 1449년 8월에 달달(達達: Tatar) 야선(也先)이 침입하여 요동지방이 소란해지자 평안도 도절제사로 파견되었다가 이듬해 돌아왔다.



김종서장군묘
-충청남도기념물 제16호,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교리 소재

사서편찬

그는 6진을 개척한 용장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려사 高麗史>·<고려사절요 高麗史節要>·<세종실록>의 편찬작업을 책임지는 등 학자·관료로서의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 1451(문종 1) 좌찬성 겸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로서 편찬한 <고려사>는 본래 1392년(태조 1) 정도전(鄭道傳) 등이 편찬한 것을 세종 때 몇 차례(1421, 1424, 1442) 개수한 끝에 완성한 것이었다. <고려사>의 편찬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조선 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데다가, 정도전 등 몇몇 개인의 가문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등 공정치 못하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김종서·정인지(鄭麟趾)·이선제(李先齊)·정창손(鄭昌孫) 등이 1449년부터 개찬에 착수하여, 1451년에 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표(表) 2권, 열전(列傳) 50권, 목록(目錄) 2권의 기전체(紀傳體)의 정사(正史)로 <고려사>가 완성되었다. 같은 해 10월 우의정으로 승진, 편년체(編年體) 고려사 편찬을 건의하여, 이듬해인 1452년(단종 즉위년) <고려사절요> 편찬에 참여했다. 같은 해 <세종실록> 편찬의 책임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계유정난(癸酉靖難: 세조의 왕위찬탈 사건)으로 위의 사서들에서 그의 이름은 모두 삭제되었다.

계유정난

그는 세종 때부터 임금의 신임을 받는 관료로서 성장했다. 문종도 죽음을 앞두고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좌의정 남지(南智) 등과 함께 우의정인 그에게 어린 단종을 부탁했다. 그러나 세종의 여러 왕자들이 다투어 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가운데, 수양대군(首陽大君)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는 야망을 실현시키는 데 가장 장애가 되는 인물로 그를 지목하고 제거하고자 하였다. 수양대군은 한명회(韓明澮)·권람(權輅) 등의 모사(謀士)를 얻은 뒤 홍달손(洪達孫)·양정(楊汀)·유수(柳洙) 등 무사들을 규합, 1453년(단종 1) 10월 13일에 거사하기로 하고, 이날 우선 서대문 밖 김종서의 집으로 가서 양정·임운(林芸) 등이 김종서와 아들 승규(承珪)를 살해했다. 뒤이어 이들은 단종에게 김종서 등이 반역을 도모하였기에 대역모반죄(大逆謀叛罪)로 우선 죽였다고 아뢰고, 왕명을 빌어 대신들을 소집한 다음 홍윤성(洪允成) 등을 시켜 황보인·조극관(趙克寬)·이양(李穰) 등을 죽였으며, 정분(鄭)·조수량(趙遂良) 등은 귀양 보내 완전히 권력을 장악했다. 1680년(숙종 6) 강화유수 이손(李巽)이 김종서의 억울함을 논하였으며, 1719년(숙종 45)부터 후손들이 다시 등용되기 시작하였다. 1746년(영조 22)에 그의 벼슬이 회복되었다. 중성의 행영사우(行營祠宇)에 제향되었다. <장백산에 기를 꽂고>,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등의 시조가 전한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김종서 장군 상소문 중에서 -

군사를 훈련시키려고 하면
어떤이는 '백성이 굶주리고 있으니
할 수 없다'하고,

무기를 수리해 놓으려 하면
'백성이 가난하니 할 수 없다'하고,

장정의 숫자를 점검해 보려고 하면
'백성이 놀라서 시끄럽게 되니
할 수 없다'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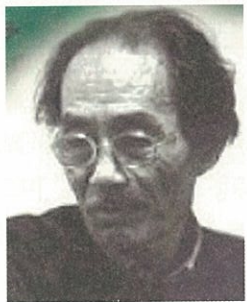
군대를 출동시키려하면
'국고가 비어 있으니 안 된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굶주리고
국고가 비었다고 해서
오랑캐가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자료제공: 공주문화원



왜 우리는 장욱진을 기억하는가?



장욱진 화백

신사실과 동인으로 향토성과 서정성이 짙은 화풍을 일구었던 세종시의 인물 장욱진 그는 말한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며 내 몸과 마음을 다 써버릴 작정이다. 남는 시간은 술을 마시며...’

현대 한국 화단에서 가장 자유로운 정서를 가지고 있는 화가 장욱진은 일제 강점기 즉 1917년 11월 26일에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전. 충남 연기군 동면) 송용리에서 4형제 중 차남으로 출생한다. 그는 조선의 어린 학생으로서 일본에서 열리는 그림대회에서 일등을 할 만큼 어린 시절부터 그림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 후 동경미술학교에 다닐 때에도 식민지인으로서, 그림 속에 일본풍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모로 차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교수들에게 그 그림 실력만큼은 인정을 받았다.

그 뒤 서울대 미대 교수를 역임할 때의 장욱진은 여느 교수들과는 다르게 권위와 형식을 지독히 싫어했고,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줄곧 벡타이드 매지 않은 채 낡아빠진 양복에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덕분에 새로 들어온 수위들은 그를 구걸 온 사람으로 여겨 문 앞에서 욕신각신 한 일도 있다. 그의 또 다른 기벽으로는 죽도록 마셔대는 술에 있다. 한번 술을 시작하면 열흘이나 보름씩 밥도, 안주도 거부하고 줄기차게 마셨단다. 술을 먹는 것도 황송한 데, 밥을 어떻게 먹으며, 더군다나 안주는 미안해서 먹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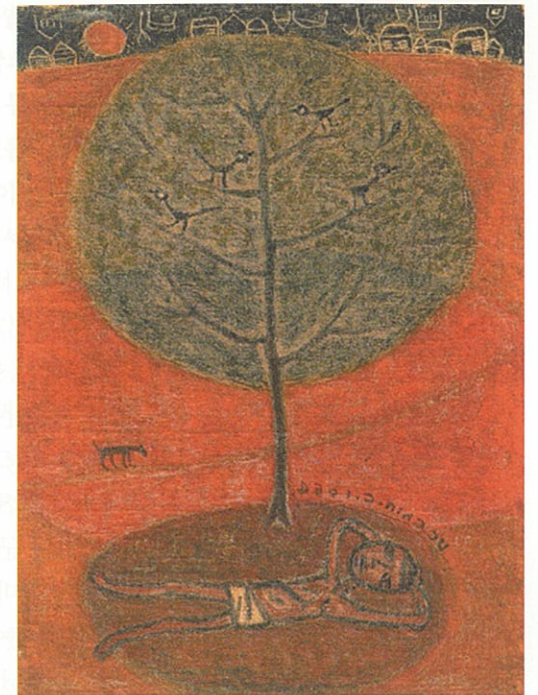
그러나 그림을 그릴 때도 술을 먹을 때처럼, 다른 모든 것을 외면한 채 때로는 식음조차 전폐하고는 그림 그리기에만 빠졌다고도 한다. 술조차 입에 대지 않고, 그에게 있어 그림은 살아가는 의미이고, 술은 휴식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에게 있어 술과 그림은 인생 그 자체였던 것이었다.

어린이의 그림 같기도 한 장욱진의 그림들은 매우 단순하다. 그리고 그 크기도 작다. 그

는 손바닥 만한 화폭 속에 해와 달, 나무와 집, 소와 까치, 가족 등 소박한 이미지를 담아냈다. 이는 큰 그림엔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싱거워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록 크기는 작은 그림이지만, 그 속에는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세계가 그려져 있다. 한국인의 소박한 정서와 가족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가난하지 않은 우리네 풍경 등이 그 안에 곱게 놓여있다. 어떠한 허영이나 사치로도 그려낼 수 없는, 작지 않은 아름다움들이다.

4.19혁명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시절, 장욱진은 교수직을 사직한다. 미대 교수직 사직을 계기로 반생을 일관했던 “장욱진 스타일”이 확연히 드러난다. 무엇보다 전업작가 생활을 시작한 것이고 작가 생활동안 서울을 벗어난 시골 환경에서 영위하게 되었으며, 술과 그림을 오가는 그의 생활방식이 구조화되고 만 것이다. 그는 틈만 나면 시골의 자연을 찾아 여행을 다니며, 산 속의 사찰이나 시골과 같은 자연에서, 혹은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가족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구했던 그는 그것을 자신의 그림 속 원천으로 삼았다. 겸손하고 욕심 없이 살았던 장욱진에게도 삶의 고난이 찾아온다. 오십이 넘어 얻은 막둥이가 15살이 되던 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자신도 백내장을 얻어 시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는 결국 68세에는 기관지염으로 술과 담배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장욱진은 70세가 넘을 때까지 미국, 유럽, 태국, 인도를 여행하며 개인전을 열었다. 그리고 73세였던 겨울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갑자기 그리고 조용히 세상을 떠난다. 평소의 그답게, 신선처럼, 홀연히, 그렇게 말이다.

자료제공 : 세종문화원



[수하(樹下), (1954)] 해석하자면 나무 아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그림 속에도 그가 평생을 두고 그렸던 나무와 새가 등장한다. 그는 늘 잎이 풍성한 나무를 그렸는데, 이는 가난하지만 늘 마음만은 풍요로웠던 그의 삶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성헌 임한주선생



임한주(林翰周, 1871-1954)의 일생은 우리나라 근현대, 그 격동기와 함께 했다. 그가 태어난 해 1871년(고종 8)에는 미국 로저스(Rodgers, J.) 제독이 1,200명의 군사와 함께 콜로라도호를 이끌고 강화도를 공격한 신미양요(辛未洋擾)가 일어났다. 당시 강압적인 개방요구에 대항했던 많은 조선 사람들이 전투 중 세상을 떠났다.

일본의 위협은 더 불안한 일이었다. 중무장 한 군함 운요호가 조선을 위협하여 결국 강화도조약이 이루어졌을 때, 임한주의 나이는 불과 6살이었다.

이후 조선은 역사상 가장 불안한 시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신식군대와 산업문화를 앞세운 서양과 일본의 침투에 많은 조선 지식인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후부터는 개방을 서둘러 받아들이자는 개화사상과,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강대국들을 배척하는 위정척사사상이 동시에 격론을 벌였다.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우고 '서양과 교류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

이라고 경계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의 일이다.

임한주의 어린 시절은 이처럼 온 나라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시기였다. 그가 14살이 되던 1884년에는 김옥균을 중심으로 일본과 손을 잡은 개화파가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청나라와도 극심히 대립하게 되었다. 갑신정변은 불과 3일 만에 실패로 끝나 조선과 청나라, 일본의 삼국관계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들의

각축은 마침내 10년 후 청·일 전쟁으로 다시 폭발하였다.

1894년, 청년 임한주의 나이 24세, 이제 정국의 불안은 한계를 넘어서 농민들마저 구국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다. 곤봉과 죽창으로 무장한 동학농민군들은 서양열강과 일본을 몰아내고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위해 봉기했다. 그러나 이들의 거센 불길에 놀란 정부가 청나라에 파병 요청을 단행하였고, 3,000명의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으로 들어오자 이를 명분으로 일본군이 결국 궁궐을 점령했다. 흥성과 인접한 아산만에서 격렬히 부딪친 청일전쟁은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이제 조선의 정국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간섭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종을 포로로 만들고 일본의 개혁안을 무력으로 통과시켜 갑오개혁을 단행하였다.

1895년 11월 28일, 명성황후의 시해와 단발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홍주의 지식인들이 화성(化城)에서 향회(鄉會)를 열었다. 그리고 무력투쟁을 위한 군사 활동을 결의한 이들은 다음 날 홍주성(洪州城)에 입성하였다. 홍주 유림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은 창의대장(倡義大將)에 추대되어 홍주읍성 조양문 위에 '존화복수(尊華復讐)'라 쓰인 기를 세웠다.

임한주는 26세 때 그가 직접 보고 겪은 의병의 현장을 훑날 『홍양기사(洪陽紀事)』에 정리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당시 홍주의병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김복한과 이설 등을 필두로 대체로 40대 중후반의 어른들이었으며, 청년 임한주는 이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의병활동에 참여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선 홍양기사의 첫머리에는 당시 혼란했던 국제정세 속 강제로 머리까지 깎이는 조선의 처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倡義)의 뜻을 밝혔다. 이어 김복한을 필두로 제1차 봉기를 결심하게 된 배경, 또 당시 적극적으로 창의를 호소하던 이설이 홍주목사 이승우(李勝宇)를 찾아가 밤을 새워 울부짖으며 그를 설득하던 일 등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마침내 이승우로부터 창의대장 수락을 받은 홍주의병은 이제 본격적으로 의병을 모집하였는데, 임한주는 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병을 따르는 것을 보고 감탄하였음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초기부터 적극적이지 못했던 이승우의 안일한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스스로를 '홍주목사 겸 창의대장'이라 칭하며 호기롭던 이승우는 창의를 시작된 직후 뜻을 바꾸고 만 것이다. 이승우의 변절은 이들에게 크나큰 상처가 되었다. 홍주성을 점령하기 전 먼저 이승우에게 동참을 간절히 호소하고, 수락까지 받아 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김복한을 비롯한 주도자들이 모두 구금되고, 홍주의병은 한차례의 전투도 없이 강제 해산되고 말았다. 성 밖에서 이 소식을 들은 안병찬(安炳贊)과 임승주(林承周)이 급하게 관문을 부수고 성안으로 들어갔으나,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의병의 실패 후 한 달이 지난 12월 30일, 법부의 명령으로 의병들은 서울로 압송하게 되었다. 죄수는 23명이었는데, 모두 결박된 채 혹은 가마를 타고, 또는 말을 타거나 짚신발로 걸어

서 길을 떠나니 이 광경을 본 사람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서울로 향하던 길, 일행이 홍주를 얼마 떠나지 않아 예산 신례원(新禮院)에 당도했을 때였다. 죄인을 호송하던 이승우는 마침 서울에서 전달된 소식을 듣고 죄수들을 다시 홍주감옥으로 데리고 돌아갔다. 이들이 홍주를 떠나기 바로 이틀 전, 이범진이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김홍집과 정병하 등을 베어 죽임으로써 시국이 돌변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승우는 의병들을 굳이 서둘러 서울로 압송할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서울로 압송되었던 의병 일행이 다시 홍주 감옥으로 돌아오자 이설과 김복한, 안병찬 등 6명은 특별히 보석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석방시켰다. 사방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앞을 다투어 찾아와 서로를 위로하며 술과 고기를 대접하였다. 또 사람들은 이들을 6명의 의로운 선비들이라 크게 써서 홍주성에 붙였다.

그러나 결국 4개월 후 경성고등재판소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판결은 김복한 귀양 10년, 안병찬 등은 3년, 이설은 곤장 80대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판결이 내려진 당일 밤 자정, 다시 이들에게는 고종이 직접 특령으로 석방의 명령을 내렸다.

임한주는 1895년과 1906년 2차에 걸친 홍주의병의 현장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 기록은 임한주가 직접 겪은 당시 항일의병의 사실을 글로 남긴 자료이며, 1915년 일본경찰의 감시를 피하여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오서산 내원사에 숨어 기록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기사는 임한주의 유고 『파변집』에 모두 수록되었는데, 훗날 김복한의 동생 김달한이 홍양기사만을 단행본으로 추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이 글은 임한주가 직접 홍주의병에 참여하여 주변 인물들과 함께 보고 들은 이야기를 썼으므로, 당시 의병활동의 전개과정과 관련 인물들의 움직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격변의 시기 충청도 내포지역 지식인들의 사회인식과 저항정신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사료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 중심의 동맹국 측 패배로 종전되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승전국측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책무를 갖게 되었다. 각국 대표들은 파리에 모여 평화회의를 장기간 열었고,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미국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가 발표된 것도 이때의 일이다.

이후 민족자결주의는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 식민지 상태의 약소 민족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이제 수많은 민족들이 각기 스스로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는데, 이듬해 1919년 3월 우리나라에도 전국적인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게다가 같은 해 1월, 의혹에 쌓인 고종의 갑작스런 죽음은 온 국민의 분노를 터트리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 때 홍성의 김복한도 프랑스 파리에서 승전국들의 강회회의가 있음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장서(長書)를 보내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일을 도모하였다. 그는 곧바로 임한주를 찾아가 이 일을 함께 상의하고 장서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당시 임한주는 홍주의병의 실패 이후 고향의 중충강당에서 덕명의숙을 세워 신학문과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처럼 마을 원근의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도맡던 산천재는 서당형식의 교육 형태를 이어오다가 1936년 부설화암간이학교를 설립 운영하였고, 1943년 화성초등학교 화암분교장으로 승격되었다. 해방 후 1946년에 새로운 학교건물이 신축되기 전에는 덕명의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글방에서는 사서삼경은 물론 역사와 신학문도 함께 가르쳤다. 일제에 항거하는 홍주의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애국지사들이 교육을 펼쳐 많은 학생들이 의식을 깨우쳤다. 특히 학원의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1919년의 만세운동을 비롯한 항일운동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참여하였으며, 학원에서 배출된 젊은이들 중 배재학당과 일본 등지로 유학을 떠났다.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자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는가 하면, 국내 곳곳에서 조국해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덕명의숙은 곧 배움의 전당이었을 뿐 아니라 애국지사의 산실이었다.

임한주 선생 연보

1871년 2월 11일 청양 물안이(수정리 567)에서 출생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의거를 결심
1896년 제1차 홍주의병 참여
고향의 경치를 읊은 「산천재수곡팔경」을 지음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제2차 홍주의병 참여
1915년 내원사에서 홍양기사를 기술
1919년 삼일운동이 발발하자 파리장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서명
5월 파리장서 사건으로 일제에 체포되어 공주감옥에 구금
7월 29일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름
1910년대 이후 덕명의숙을 세우고 지방교육에 헌신함
1945년 해방직후 반민족특위로 활동
1954년 5월 19일 고향 물안이에서 세상을 떠남
1983년 대한민국 건국포장 추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1992년 공적비 건립
임한주 선생의 저서로는 홍양기사를 비롯하여 파변집(25권), 시문잡저(21권), 우양만록(5권) 등 50여 권이 있다.

자료제공 : 청양문화원

천내배물이굿놀이 유래



천내리는 금강이 가로지르는 강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써 많은 전통문화가 전승되는 마을이다. 70년대까지 지금 제원대교가 놓여지기 전에는 금강을 배로 건넌는데 이 길은 과거 충청과 영호남을 큰길이었다. 이 길을 통하여 금산과 영동, 옥천, 무주의 사람들은 물론 물자가 유통되었다. 강을 건너는 수단으로 배가 이용되었으며 이 배를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천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배물이굿놀이가 전승되고 있었다.

수 백년동안 운영되던 배물이굿놀이가 1945년 전후로 하여 일제 말기의 민속행사 억제 정책으로 소멸되었던 것을 2000년 금산문화원에서 발굴하여 천내배물이굿놀이로 복원하여 2005년 천내리 주민을 중심으로 하여 천내배물이굿놀이보존회를 조직하고 시연을 한 후 2007년 금산인삼축제에 발표를 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 2008년 28회 금산인삼축제에 민속 발굴사업으로 발표회를 하였다.

당시 새로운 배를 만드는 것을 배 묻는다고 하였는데 배물이 필요하다면 천내나루를 이용하던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배물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걸립을 하였다. 걸립에는 마을에 풍물패가 직접 들어가 쳐주는 진걸립과 풍물패가 마을에 가지 않고 개인이 배삯을 부담하는 마른걸립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새로운 배를 묻기 위한 걸립곳이 끝나면 목수 등이 참여하여 배를 만들고 또 배가 완성이 되면 배를 인근 마을 사람 수 백 명이 모인 가운데 물에 띄우는 뱃고사와 진수식이 거행되고 건립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 뱃놀이를 하였다.

놀이의 구성은 배물이 선통 마당- 걸립 마당- 배물이 마당- 진수고사굿 마당- 뱃놀이 마당 등 5개 마당으로 되어 있다.

자료제공 : 금산문화원

탕정(湯井)거북놀이

1. 거북놀이의 유래(由來)

거북놀이가 형성된 것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 신라 문무왕 당시 왕의 15세 된 공주가 병이 들어 만약(萬藥)이 무효(無效)로 고칠 길이 없게 되자 승려 영추대사가 권유하기를 15세의 소년들로 하여금 거북의 탈을 만들어 쓰고 수수비로 공주의 주위를 깨끗이 쓸도록 하였다.

이에 공주의 병이 깨끗이 치료되었다 한다.

둘째, 고려 현종 때 전국적인 가뭄이 들자 왕이 친히 천안부 직산현(현 천원군 입장면)에 와서 유람하던 중 꿈에 문무왕이 나타나 '한가위 날 거북이를 보낼테니 거북이를 닮은 마을에서 수수잎을 엮어 옷을 해 입고 거북과 함께 뛰어 놀아라' 하는 계시를 주자 이튿날 지형을 살펴 보니 과연 고을의 지형이 거북의 형상인지라, 추석에 조정의 대신들을 다시 보내 수수잎으로 옷을 해 입고 놀게 하였더니 그 이듬해에 풍년이 들었다. 이에 사람들이 해마다 추석이 되면 거북놀이를 하였다 한다.

이와 같은 배경 설화가 있음에 덧붙여 거북놀이가 악신(惡神)을 쫓아내고 선신(善神)을 불러들여 안녕(安宅)과 복(福)을 비는 일종의 굿판 형식임을 볼 때, 하늘과 귀신에게 제예(祭禮)하고 또 신을 즐겁게 하려는 목적으로 춤과 노래를 곁들인 큰 규모의 대동굿 성격을 띠는 우리 민족의 원시 제천의식(原始 祭天儀式)에서 그 연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 마한조(馬韓條)·고구려조(高句麗條) 등을 보면 우리 민족의 제천의식의 주 내용을 '하늘과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연일 음주가무로 즐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2. 거북과 관련된 설화(設話)들

- 삼국유사의 가락국기 : 구지가(龜旨歌)에서 거북을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상징물로 묘사하였다.
- 삼국유사의 수로부인조(水路婦人條) : 바다에 납치된 신라의 미인 수로부인(水路婦人)을 구출해 내는 바다 동물, 즉 수신(水神)으로 묘사하였다.
- 삼국사기의 전유신조(全庾信條) : '구토지설(龜兔之設)'이라는 우화에서 용왕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토끼의 간을 구하려는 거북을 토끼의 권모술수에 속아 넘어가는 우둔한 동물로 묘사하였다.

3. 거북놀이의 풍속성(風俗性)

고려 현종의 꿈에 나타난 문무왕이 '죽어서 용왕이 되어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는 내가 막겠으나 육지로 침입하는 적은 막을 길이 없어 거북을 보낸다' 라고 하였다는 구절을 보면 나라의 안일태평(安逸泰平)을 기원하는 놀이가 되고, 옛 기록 규합총서(閩閩叢書)나 동의보감(東醫寶鑑)등에서는 약이성(藥餌性) 식품으로 사용된다 하였으니 놀이를 통하여 치병(治病)을 기원하게 되며, 나아가 거북이 십장생(十長生)의 동물 중 하나인 만큼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하는 놀이가 되기도 한다. 또한 문무왕의 현몽(現夢)에 의하여 풍년이 들게 되었음은 곧 거북놀이가 풍농기원의 성격을 지니는 놀이임을 알 수 있다.

4. 거북놀이의 기본 편성(基本 編成)

역할(役割)	인원(人員)	의상 등 차림	비 고
농기수(農旗手)	1	무명바지저고리, 짚신, 고깔, 양어깨에 2색 띠	행렬 선두
영기수(令旗手)	2	범거지, 래자, 짚신, 2색띠	
용기수(龍旗手)	2	범거지, 짚신, 2색띠	
길재비	1	등걸잡방이, 벧짚으로 엮은 우장, 벧짚 머리덮개, 싸리 비	거북 인도
물이꾼	5	등걸 잡방이, 벧짚으로 엮은 우장, 수건머리	주변 소년들
거북이	2	멧방석으로 몸체를 만들고 다리, 발에 벧짚으로 가림	각각 머리와 고리채 역 분담
양반	1	청색도포, 정자관, 부채, 곰방대	
여중	2	노랑저고리, 빨간치마, 짚신	女裝 男子 (여장 남자)
남중	2	등걸잡방이, 상투, 짚신	어릿광대
상쇠	1	부포상모, 더그레, 3색띠, 짚신	덕담, 창, 구령
부쇠	1	상모, 더그레, 3색띠, 짚신	
징	1	상포, 더그레, 3색띠, 짚신	
북	2	상모, 더그레, 3색띠, 짚신	
장고	3	상모, 더그레, 3색띠, 짚신	
소고	10	상모, 더그레, 3색띠, 짚신	
호적	1	바지저고리, 2색띠, 머리수건, 짚신	
쑥불잡이	2	등걸잡방이, 지게, 곰방대, 쑥불 2	
동리주민	다수	바지저고리, 치마저고리, 짚신	

5. 거북놀이에 동원되는 주요 大小賭具(대소도구)

- 農旗 1점 : 흰색 바탕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글씨를 쓰고 가장자리에는 남색천으로 주름을 잡는다. 동정 끝 부분은 평장목과 백지(白紙)로 만든 술로 장식한다. 깃발 형태는 직사각 세로형이다.
- 龍旗 2점 : 붉은색 바탕에 여의주를 입에 문 황룡(黃龍)을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흑색천으로 주름을 잡는다. 동정 끝부분은 평장목과 백지술로 장식한다. 깃발 형태는 직사각 세로형이다.
- 令旗 2점 : 각각 홍색 바탕에 '영(令)' 글씨를 쓰고 끝부분은 삼지창과 홍지술로 장식한다. 깃발 형태는 네모형이다.
- 거북틀 : 대나무를 이용하여 전체 틀을 만들고 짚으로 장식한 멧방석으로 거북의 등을 덮는다. 바가지를 이용하여 거북의 머리를, 수숫잎으로 만든 총채로 꼬리를 만든다. 틀 내부에는 안에 들어가는 2인이 틀을 뭉 수 있도록 막대기를 고정시키고 뭉 끈을 부착한다. 두 사람의 다리와 발은 짚으로 감싸 가린다.
- 쑥대불 : 쑥불은 벽사진경의 의미가 있으며, 거북의 행로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
- 우장 : 길라애비와 길라꾼들이 입는 것으로 벧짚으로 엮어서 비옷을 만든다.

(노래)

상쇠 :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천석 거북 들어간다.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만석 거북 들어간다.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동해 거북아 놀아라.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황해 거북아 놀아라.



자료제공 : 온양문화원

천안 거북놀이



〈노래 - 충남 천안지방〉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만석 거북아 놀아라
천안 거북아 놀아라
이 집에 사는 사람
무병장수 하사이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
무병장수 하사이다

한바탕 놀다가
거북이가 땅바닥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거북몰이가
'이 거북이가 동해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이 지쳐
누웠으니 먹을 것 좀 주시오'
라고 외친다.
주인은 떡과 과일등을 내온다.
이때 거북몰이는
'먹이가 나왔으니
인사나 하자'고 소리를 지른다.
거북이가 넙죽 절하고 한바탕 논다.
참가한 일행 모두
음식을 먹으며 한바탕 논다.

우리나라 놀이중 예는 토속신앙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거북놀이도 그 중 하나다.

거북놀이는 신라 문무왕 때부터 해왔다고 하는데 확실
한 유래는 밝혀지지 않는다.

팔월 한가위 날 많이 하는 놀이로 천안 일대와 안성 등
지에서 1930년대까지 성행하였다.

예로부터 거북은 용왕의 아들이라 여겨졌다. 또한 십장
생의 하나로 무병장수를 상징했다.

따라서 일 년에 한 번씩 거북을 위하면 마을의 안녕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치러지던 것이 거
북놀이이다.

거북의 영험으로 가뭄과 홍수를 막고, 마을에 깃든 잡
귀잡신을 물리치며 집집마다는 무병장수와 부귀를 이루
자는 것이다. 거북놀이 행렬은 가가호호와 마을 전체를
돌았는데, 흥겨운 풍물과 굿판을 벌인다.

거북놀이의 행렬이 지나가면서 각 가정과 마을을 축원
하다 보면 자연히 온 마을이 화합하게 되고 흥겨운 잔치
마당이 되었다.

자료제공 :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원태이의 말 무덤

때는 백제 때의 일이다. 임존성에서 한 장군이 하루도 빠짐없이 말달리기와 활쏘기 그리고
검술 등 무예연습에 온갖 정력을 쏟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예산군 대흥면의 임존성 앞뜰에는
무한천이 흐르고 넓은 백사장이 있어 이곳에서 말달리기를 하기 좋았으므로 장군은 애마를
데리고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더욱 무술을 닦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무예를 익히던 장군
은 어느 날 등에는 활통을 메고 허리에는 긴 칼을 차고 말위에 올라 말을 달렸다.

장군은 활에 화살을 먹여 당기면서 말을 향해 "내가 이제 이 활을 무한성 앞산을 향해 쏠 터
이니 너는 이 화살이 날아가 떨어지기 전에 그곳에 당도해야 한다. 만일 네가 화살보다 늦게
도착하는 때는 너의 목을 가차 없이 베고 말 것이다. 알다시피 군법에는 추호도 용서가 없는
법. 그러니 사력을 다해 달려야 한다" 하고 타이르는 것이었다. 그러자 말은 알아들었다는 듯
이 "호호호호호....."하고 길게 울었다.

"오냐 그러면 이제 화살을 쏠 터이니 시위소리가 나거든 동시에 달리는 것이다"

말은 긴장하며 달릴 준비를 갖추고 화살이 날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 소리를 지르고 장군은 당겼던 화살을 놓았다. 화살은 '획' 소리를 내며 바람을 타
고 날랐다. 이 시위 소리와 같이 말도 발굽을 모아 날듯이 달렸다.

과연 말이 화살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을 것인지? 장군은 말 잔등에 몸을 찰싹 붙었다. 정말
하늘을 나르는 새 같았다.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귀에선 바람소리가 획 하고 들릴 뿐 깜짝
할 사이에 벌써 이 십 여리 길을 달려 무한성 앞산에 도착했다. 그러나 애석한 일이다. 장군의
눈에는 저 앞의 큰 소나무에 꽃혀 있는 한 대의 화살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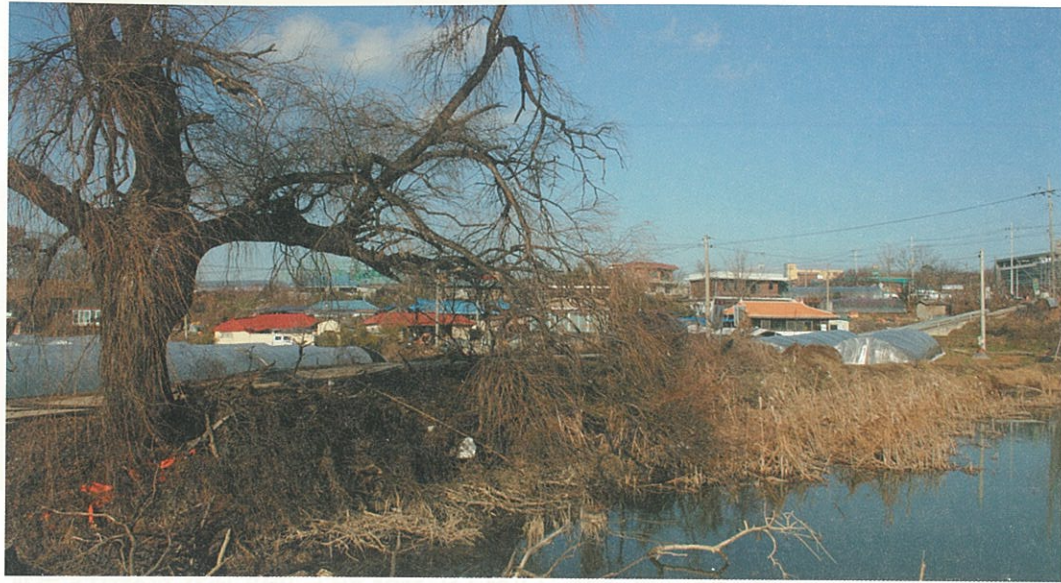
화살이 먼저와 꽃혔구나! 장군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이다.

혈기 왕성한 장군은 말을 향해 "저기를 보아라. 살이 먼저와 박혔구나. 참으로 애석한 일이
로다. 그러나 너에게 언약한 대로 군법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

장군은 이렇게 말하며 허리에 찌던 큰 칼을 빼내어 들었다. 칼 빛이 번쩍하자 말은 이상한
표정으로 변하며 눈에선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렸다.

마치 무슨 할 말이 있다는 듯 한 그런 표정이었다. 그러나 말을 못하는 짐승의 표정만으로
자기의 의사를 전할 수는 없었다.

장군은 말의 표정을 읽을 사이도 없이 말의 목을 내리쳤다. 몇 해 동안 장군을 태우고 무
예를 닦게 한 말이 비참하게 나뒹굴었다.



목이 떨어진 말목에서는 붉은 피가 칼칼 흘러 나왔다.

군법대로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정은 어쩔수 없는 것이다. 장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내렸다. 이때였다. 공중에서 획 하는 소리가 나면서 화살 한 개가 날아오더니 죽어있는 말의 궁둥이에 와서 박히었다.

“아니 이 화살이?”

장군은 얼른 그 화살을 빼어 들었다. 그런데 그 화살은 방금 자기가 쏜 온 화살이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이 말이 화살보다 먼저 도착했던 말인가?

장군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통탄하는 것이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먼저 소나무에 박혀있던 화살은 전날 자기가 활을 쏘 때 날아와 박힌 화살이었다. 그것을 잘못 본 것이다.

“아아 이 일을 어찌면 종단 말인가. 내가 조금만 더 참았다면……”

이제 후회한들 죽은 말이 살아날리 없다. 그럴수록 가슴을 치고 싶을 뿐이다. 장군은 옆에 쓰러져 있는 애마를 끌어안고 굵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정신없이 울면서 아무리 후회를 않으려고 하나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견딜수가 없었다. 더욱이 이십여리 길을 화살보다 빨리 달린 애마를 잃은 그의 가슴은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것보다 더 쓰리고 아팠다. 애통한 마음은 장군에게 영원히 잊혀질 수 없었다. 장군은 애통하게 죽은 애마를 그곳에 고이 묻어 주었다 한다.

그후부터 말이 원통하게 죽었다해서 원탱이라고 동네 이름을 불렀으며 지금까지도 논 가운데 조그마한 산같이 말 무덤이 남아 있다. 이 말무덤은 무한산성 바로 건너가 보이는 예산읍 발연리에 소재해 있으며 원탱이는 예산읍지에 원통리로 기록되어 있다.

자료제공 : 예산문화원

주인을 살린 개와 가시연꽃을 품에 안은 역재방죽



역재방죽 공원 모습

홍성군 홍성읍에서 청양 쪽으로 가다 보면, 홍성중학교를 지나서 오백 미터쯤 앞에 신동아 패밀리에 아파트를 지나치자마자, 길 오른쪽으로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다. 이 연못 이름이 역재방죽이다. 홍성 기차역이 있는 부근 언덕의 방죽이라는 뜻으로 ‘역재방죽’으로 부르고 있다.

역재방죽 의견비 모습

전설의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옛날에 한 농부가 집에서 기르는 개와 함께 시장에 나왔다. 시장에서 불일을 보면서 사람들과 술을 많이 마셨다. 한잔 두잔 마신 술이, 저녁 무렵에는 만취상태였다.

농부는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연못부근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농부는 폭신한 잔디밭에 누워 있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농부가 잠 든 사이에 주변에서 산불이 났다. 산불은 연못부근으로 타들어오고 있었다. 개는 농부를 깨웠지만 일어날

생각을 안했고, 산불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안절부절 못하던 개는 잔디밭 아래 연못으로 달려갔다. 연못에 풍덩 빠졌다가 나온 개는 재빨리 농부가 잠들어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농부가 잠든 주변을 데굴데굴 뒹굴며 털에 묻은 물로 마른 잔디를 적시기 시작했다. 숨 쉴 겨를도 없이 언덕아래 연못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주인이 누워있는 주변의 잔디를 흥건하게 적셨다.

농부는 한밤중에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농부는 달빛에 비친 주변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주변 언덕이 모두 시커멓게 산불로 타버렸지만, 자신이 잠들었던 주변 잔디만 무사한 것이었다. 산불은 농부가 누워있던 부근을 비껴서 지나간 것이었다.

농부는 자신이 사랑하던 개를 찾아보았다. 주변을 한참 헤매다가 연못부근에서 새카맣게 그을린 채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농부는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개가 연못을 오르내리며 잔디를 적신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주인을 살리고 대신 죽어간 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연못 가운데 조그만 섬에 개를 묻어주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주었다.

그 뒤로 방죽 가운데에 개를 묻었던 조그만 섬을 '개섬'이라고 불렀다. 또한 주인을 살린 의로운 개가 묻혀있는 방죽이라는 뜻으로 '개방죽'이라고도 불렀다. 후에 방죽 주변으로 기차역이 들어서면서 '역개방죽'으로 부르다가, 지금은 '역재방죽'으로 부르고 있다.



역재방죽 개섬 모습



역재방죽 가시연 모습

역재방죽은 의견전설과 함께 희귀식물인 가시연꽃의 군락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매우 높은 연못이다. 2005년에 역재방죽 앞으로 홍성문화원이 들어섰고, 2011년에는 역재방죽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었다. 역재방죽 깊숙이 들어가서 가시연꽃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졌고, 방죽 정면에는 의견비가 서있다.

역재방죽은 의견전설과 가시연꽃을 품에 안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지방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오래오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승되기를 기대해 본다.

자료제공 홍성문화원 / 김정현(동화작가)

안국사지(安國寺址)

안국사의 창건 연대에 관해서는 확실히 전해 오는 것이 없다. 백제 말엽에 창건되었고, 한 때는 수 백명이 수도하던 큰절이었다고 전하나 분명하지 않다. 창건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낮은 돌축대 위에 모셔진 불상 세 분과 그 앞의 불완전한 석탑의 양식, 또 이곳에서 출토된 작은 금동불상들도 볼 때 고려 때 번성했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언제까지 사찰로서의 명맥을 유지했는지도 분명치 않지만, 조선 중종(25대, 1506~1544)때 보원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20 해미현조에 “안국산이 해미현 북쪽 38리 지점에 있다. 안국사는 안국산에 있다”고 되어 있어 그 책을 펴낸 1531년 무렵까지는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지도서(輿地圖書)』(영조 31년, 1755~41년, 1765) 해미현 사찰조에는 ‘일악암(日岳菴)’만이 기록되어 있어 안국사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 해미현의 불우조에는 안국사(安國寺)를 비롯하여 문수사(文殊寺)·안국사(安國寺)·일악암(日岳菴)·수도사(修道寺) 등의 사찰명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여지도서』 사찰조의 기록이 미흡하여 일악암 이외의 다른 사찰명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안국사지에 석불 3구를 비롯해 석탑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이 기술된 당시에도 이들 석불 및 탑이 존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국사지 삼존불입상

소재지 | 정미면 수당리 산 102-1
지정내용 | 보물 100호, 1963.1.21 지정
규모 | 본존불 높이 4.91m
좌협시보살상 3.55m
우협시보살상 2.95m
시대 | 고려
재료 | 화강암

본존불은 5m나 되는 거상으로 이 지방에 유행되던 고려



불상의 덩어리화 된 전형적인 불상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머리는 원통형이며 그 아래 얼굴은 네모나고 넓직한데 길게 감은 수평적인 눈, 납작한 코, 오무린 입을 묘사하여 정승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런 인상은 신체 조각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 불상의 몸은 인체라는 생각은 전혀 없어진 길다란 돌덩어리를 깎아 붙인 듯한 팔과 손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나 단순화시켜 현대 조각문화를 느끼게 한다. 오른손은 가슴에 대고 있으며 배에 붙여 엄지와 장지를 맞대고 있는데 그 수인(手印)은 아미타불의 중품하생인을 표현한 것 같다.

안국사지 석탑

소재지 : 정미면 수당리 산 102-1
지정내용 : 보물 101호 1963.1.21 지정
시대 : 고려
재료 : 화강암

갑석(甲石)은 지대석과 같은 방향으로 2장의 판석을 엮어 놓았다. 탑신부의 옥신과 옥개석은 각각 한 돌로 되어 있고, 옥신은 일층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없어졌다.

일층 옥신에는 사방에 우주가 있고, 일면에는 문비(門扉)를 양가하였으며 다른 삼면에는 여래좌상을 일구씩 양각하였다.

우각(隅角)에서 추녀의 반곡(反曲)은 심하고 추녀끝에서 깊숙이 들어가 받침 사단(四段)이 각출(刻出)되어 있다. 낙수면(落水面)은 경사가 완만하고 전각(轉角)에서의 반전은 밑에서처럼 심하지 않다. 이층 이상의 옥개석도 같은 양식이며 위층의 체감비율은 비교적 건전하다. 옥신의 장식(彫飾)이나 옥개석에 당시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어 고려 중기 이후의 조성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 당진문화원

태안상옥리가영현가옥

소재지 | 태안을 상옥리 816
지정번호 | 충남민속자료 제17호
건립연대 | 18세기 후반
규모 | 대지 310평, 종건평 79평
수량 | 1채(3동)

◆ 외형적 특징

200년 역사를 지닌 현존하는 전통가옥 중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초가집으로, 초가치고는 규모가 대단히 크다. 동남향에 위치한 '口' 자형의 전형적인 시골 부농가의 형태로서 안채·사랑채·문간채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정면 7칸, 2칸에 일부 3칸이 돌출되어 있고, 방과 부엌과 마루를 갖추었으며, 받침을 두어 공간을 활용했다. 사랑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에 일부 3칸이 돌출되어 있고, 방과 마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측 한 칸의 마루를 들어 올려 공간에 변화를 주었다. 문간채는 정면 3칸에 1칸의 퇴를 달았고, 측면에도 퇴를 달아 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架構)의 기법은 간이식 덧붙이기 방식이고, 지붕 연재결이 방식은 평연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사랑채 마루의 이자형 난간이 특이한 구조이다.

현재까지도 난방은 아궁이를 이용하고, 절구·명석·키·맷돌·쟁기 등의 농기구와 장독 등 옛 생활용품을 보유하여 옛 서민이 살고 있는 듯한 풍경을 볼 수 있다.

◆ 초가집에 얹힌 일화

● 가정로 선생(가영현의 조부)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일본학생들과의 차별화 또는 식민지에 대한 탄압에 항시 불만을 품고 있다가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 귀국했다. 그러는 그 때는 전국에 만세운동이 일어난 때인지라 일경은 유학생인 그를 감시하기 위해 매일 부락에 출장하게 되었고, 그는 그러한 일경들의 눈초리가 싫어서 두문불출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 헌병은 그의 거동을 살피기 위해 그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고, 그는 그 꼴이 보기 싫어 안방에 자리를 펴고 누워있었는데 일본 헌병은 부엌에 있던 그의 처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렸다. 그러자 그는 머리맡에 있던 면도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피를 내어 흙으로 된 방벽에 “대한독립 만세”라는 혈서를 쓰고 숨졌다. 그는 비록 독립운동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독립운동가 이상으로 깨끗한 최후를 맞은 애국자였음은 확실하다.

- 가정로 선생의 소유였던 초가집은 가세가 기울면서 최씨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최씨는 가정로 선생의 아들을 사위로 맞이하고는 딸에게 그 집을 상속함으로써 그 집은 가정로 선생의 손자인 가영현에게 다시 상속되었다.



가영현가옥 전경



가영현가옥 사랑채



안살림

농촌에 희망을 선사한 논산딸기축제

박상구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딸기담당

논산의 딸기축제에는 맛있는 딸기가 있습니다.

논산의 딸기축제에는 멋진 문화가 있습니다.

논산의 딸기축제에는 여기저기 풍겨나는 향이 있습니다.

논산의 딸기축제에는 오감을 자극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논산에서 딸기축제가 있었다. 논산은 딸기 재배역사가 50여년이 되지만 딸기축제는 금년으로 14회째이다. 딸기재배면적이 821ha로 전국 지자체중에서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딸기농사에 종사하는 농가만 1,800호가 넘는다. 딸기로 인해 들어오는 소득이 1,500억원 정도가 될 만큼 딸기는 논산을 대표하는 효자품목이기도하다.

겨우내 집에서만 움츠려있던 아이들에게 딸기축제는 기다려지는 봄의 전령사다. 부모들과 손을 잡고 또는 유모차에 실려서 축제장에 모여든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노라면 그동안 축제를 준비하며 쌓였던 피로가 싹 가신다.

지난해 13회 때 비가 내려 불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갈을 깔고 대형 비닐을 덮어 비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만전의 대비를 한 결과 축제장의 환경은 양호하였다. 주차장도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렸건만 몰려든 많은 차량으로 삼시간에 딱 차고 도로까지도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말았다. 다들 논산이 생긴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모였다고 거든다. 주말에는 경찰청 헬기까지 동원되어 논산인근 도로의 번잡함을 조사하고 갈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운집하였다.

금번 딸기축제의 메인은 행사장 중앙에 위치한 논산딸기 특구관이다. 2006년에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의 면모를 도시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먼저 50m에 이르는 고설 딸기밭을 중앙에 위치시키고 논산딸기의 우수성, 탐과채 프로젝트

트 소개, 세계의 딸기축제 포스터 전시, 전국딸기브랜드 전시, 세계의 딸기품종 30여종 전시, 딸기에서 천적과 꿀벌의 역할, 딸기로 만든 모든 가공품, 딸기가 우리 몸에 좋은 점, 그리고 여기저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 포토존을 조성하여 마음껏 사진을 찍어가게 하였다. 아이들은 미래의 주된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

공식문화행사 18종, 홍보행사 20종, 체험행사 35종, 부대행사 22종 등 총 95종의 행사를 추진하였고, 그중에 하이라이트는 논산의 청정딸기밭에서 펼쳐지는 청정딸기수확체험이다.

매년 2월부터 10만여명의 체험객들이 본격적인 수확체험을 실시하지만 특별히 딸기축제기간 3일간에 5,000명의 도시민들이 딸기밭에서 싱싱한 딸기를 직접 수확하고 사진도 찍고, 딸기잼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진정한 딸기수확체험을 즐기려면 평소에 딸기밭에서 행하는 체험을 할 것을 권한다. 하루종일 여유있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제기간에는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여유있게 제대로 체험하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축제기간을 피해서 수확체험을 할 것을 권장한다.

논산의 딸기축제는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창출하는 축제로 정평이 나있다. 52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축제를 5억원이 안되는 예산으로 치러내기 때문이다. 저예산 축제이므로 시설이 열악하고 불편한 점도 있었다는 점도 제기가 되었지만, 단 3일동안 열리는 축제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을 여력도 없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축제를 즐기고 감사하는 표현을 해주신데



대해 축제를 기획한 한사람으로 큰 보람으로 남는다.

논산딸기축제는 딸기전문가들이 기획을 하는 점도 특이하지만, 주목할 점은 논산시의 중고등학생 800명을 포함한 3,000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역할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행사를 단 1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다.

금년의 축제는 특이한 점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축제를 즐겼다는 점이다. 올해는 6,000여명의 외국인들이 축제에 참여하여 딸기 향과 딸기가 주는 멋과 맛에 흠뻑 빠져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딸기를 제외하고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그 맛이 끌리는 맛이 아니다. 우리나라 딸기의 독특한 맛은 외국인들의 입맛을 자극했으리라 본다.

축제는 끝났지만 또다시 내년의 축제를 구상해야 하는 시점에서 되돌아 보면, 축제로 인한 직접 벌어들인 경제적인 수익도 상당하지만 논산딸기의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일 것이다.

매년 딸기축제 전후로 딸기 가격을 일정기간 고가로 유지시켜 주고, 논산딸기의 명성을 현재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비자인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계층까지도 강하게 파고들어서 높여주고, 급기야는 충성고객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딸기축제는 꼭 필요하고 축제가 가진 그 역할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

시골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나의 페이스북 친구는 평하였다.
“논산딸기축제에서 농촌의 희망을 보았노라고.....”

자료제공 : 논산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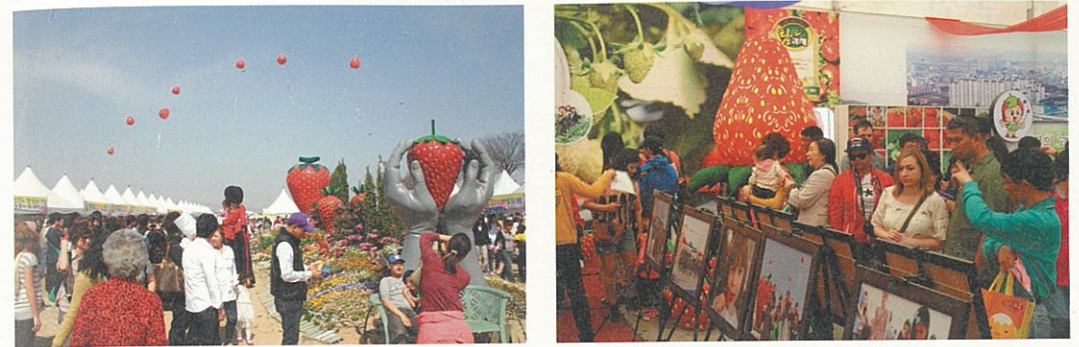
트 소개, 세계의 딸기축제 포스터 전시, 전국딸기브랜드 전시, 세계의 딸기품종 30여종 전시, 딸기에서 천적과 꿀벌의 역할, 딸기로 만든 모든 가공품, 딸기가 우리 몸에 좋은 점, 그리고 여기저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 포토존을 조성하여 마음껏 사진을 찍어가게 하였다. 아이들은 미래의 주된 소비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

공식문화행사 18종, 홍보행사 20종, 체험행사 35종, 부대행사 22종 등 총 95종의 행사를 추진하였고, 그중에 하이라이트는 논산의 청정딸기밭에서 펼쳐지는 청정딸기수확체험이다.

매년 2월부터 10만여명의 체험객들이 본격적인 수확체험을 실시하지만 특별히 딸기축제기간 3일간에 5,000명의 도시민들이 딸기밭에서 싱싱한 딸기를 직접 수확하고 사진도 찍고, 딸기잼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진정한 딸기수확체험을 즐기려면 평소에 딸기밭에서 행하는 체험을 할 것을 권한다. 하루종일 여유있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제기간에는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여유있게 제대로 체험하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축제기간을 피해서 수확체험을 할 것을 권장한다.

논산의 딸기축제는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창출하는 축제로 정평이 나있다. 52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축제를 5억원이 안되는 예산으로 치러내기 때문이다. 저예산 축제이므로 시설이 열악하고 불편한 점도 있었다는 점도 제기가 되었지만, 단 3일동안 열리는 축제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을 여력도 없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축제를 즐기고 감사하는 표현을 해주신데



대해 축제를 기획한 한사람으로 큰 보람으로 남는다.

논산딸기축제는 딸기전문가들이 기획을 하는 점도 특이하지만, 주목할 점은 논산시의 중고등학생 800명을 포함한 3,000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역할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행사를 단 1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다.

금년의 축제는 특이한 점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축제를 즐겼다는 점이다. 올해는 6,000여명의 외국인들이 축제에 참여하여 딸기 향과 딸기가 주는 멋과 맛에 흠뻑 빠져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딸기를 제외하고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그 맛이 끌리는 맛이 아니다. 우리나라 딸기의 독특한 맛은 외국인들의 입맛을 자극했으리라 본다.

축제는 끝났지만 또다시 내년의 축제를 구상해야 하는 시점에서 되돌아 보면, 축제로 인한 직접 벌어들이는 경제적인 수익도 상당하지만 논산딸기의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일 것이다.

매년 딸기축제 전후로 딸기 가격을 일정기간 고가로 유지시켜 주고, 논산딸기의 명성을 현재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비자인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계층까지도 강하게 파고들어서 높여주고, 급기야는 충성고객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딸기축제는 꼭 필요하고 축제가 가진 그 역할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

시골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나의 페이스북 친구는 평하였다.
“논산딸기축제에서 농촌의 희망을 보았노라고.....”

자료제공 : 논산문화원

제23회 한산모시문화제

- 사 업 명 : 제23회 한산모시문화제
- 행사일정 : 2012년 6월 8일(금) ~ 6월 10일(3일간)
- 행사장소 : 한산모시관 일원
- 주 제 : 인류무형유산 한산모시로의 초대 (슬로건 : 입Go! 먹Go! 즐기Go! 느끼Go!)
- 주 최 : 서천군
- 주 관 : 한산모시문화제추진위원회

한산모시문화제란?

서천의 특산물인 한산모시의 원산지 부각과 전통문화의 육성 발전은 물론 9만여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89년 처음 시작한 문화행사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98년 제9회 대회를 맞아 전국 18대 관광문화제 충청남도 3대 문화제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저산문화제를 알기 쉬운 한산모시문화제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군행사에 그쳤던 행사의 내용이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행사내용으로는 저산팔읍 길쌈놀이 시연을 비롯 일정별 행사와, 특별기획 행사로 나뉘어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행사의 시연을 통한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알림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저산팔읍길쌈놀이

저산팔읍길쌈놀이의 유래

모시는 우리고장의 특산물로 서천(舒川), 한산(韓山), 비인(庇仁), 홍산(鴻山), 임천(林川), 남포(藍浦), 정산(定山), 보령(保寧)의 8개읍에서 모시길쌈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모시는 옛부터 나라에 진상함은 물론 외국에도 수출도 하였으며 나라에서는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길쌈 경연대회가 있었다는 삼국사기를 통하여 볼 때 일찍부터 모시길쌈놀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상거래가 성행하면서 보부상의 조직이 전국각지에 있었고 모시의 유통이 이러한 조직하에 거래되어 왔으며, 오늘날 우리고장 한산(韓山)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모시의 명맥을 이어오면서 매 5일마다 모시시장이 형성되어 전국 각처에 공급되어 왔다. 우리고장 모시의 우수성을 널리 보급함은 물론 민속놀이를 보존·계승코자 82



년 제23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 도대표로 저산팔읍길쌈놀이(荳産八邑길쌈놀이)를 출전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86년에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그 후 1991년 7월 9일 도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어 매년 한산모시문화제 행사를 비롯 각종행사시 국·내외에 시연을 통하여 홍보하여 오고 있으며 저산8읍 길쌈놀이 보존회에서 전승하고 있다.

저산팔읍길쌈놀이 노래

모시풀베끼기와 모시삼을때

금강산 저고대야 옥단편 깃을달아 두재 고름 깊이달아 맵시 있게 잘파입고 삼선버선 겹버선에 아기자기 모아신고 닥쳤구나 닥쳤구나 앓오시네 앓오시네 수자씨가 앓오시네 강남땅의 강수자는 글이좋아 소문나고 한산땅의 이수자는 솜씨좋아 이름났네

모시날기, 모시매기 할 때

강실강실 강실도령 강실말을 올라타고 강실책을 옆에끼고 한모퉁이 돌아드니 김창봉네 새악씨가 삼베를 짜드란다 그베짜서 무할나낭 울어머니 생일날에 모시치마 하여가지 그나머지 무할나낭 우리동생 시집갈때 모시적삼 하여가지

꾸리감기 할 때

추야공산 긴긴밤을 전지바탕 마주보며 무릎비며 삼은모시 서울님을 줄것인가 오동잎이 우러떨 때 감골낭군 줄것인가 편지왔네 편지왔네 강남낭군 편지왔네 한손으로 받아들고 두손으로 펼쳐보니 씨앗죽은 편지여라 올타고년 잘죽었다 고기반찬 비리드니 소금반찬 고춧가루나 꾸리꾸리 모시꾸리 박달나무 쇠망친가 오미상큼 감진꾸리 삼천리를 열번간다

모시 짤 때

하늘에다 베를놓고 주름잡아 잉아걸고 항배나무 바디집에 목배나무 북에다가 잇다리는 둔아놓고 앞다리는 낮춰놓고 옹골줄공 짜노라니 조그마는 시누이가 올케올케 우리올케 그베짜고 무할라나 서울가신 자네오빠 강남도포 해줄라네 진주댁에 두루마리 이슬밤에 내닐어서 은다리미 늦다리미 요모조모 싹다려서 괴송남게 걸어놓고 올라가는 시선비야 우리선비 아니오나 오기는 오네마는 중당집구 하강없고 고돌목지 실려오네

저산팔읍길쌈놀이 구성도

참가인원 : (男:13, 女:72)

소품 : 베틀8, 맴틀8, 날틀2, 찢지32, 생모시 5관, 생모시다발8, 모시필육8, 골개8, 삼불상자8

모시베끼기, 모시삼기

모시껍질을 벗겨서 모시톱으로 외피를 벗긴 내피를 물에 적셔서 일광 건조시키는 작업을 거듭하여 표백시키면 바탕색이 깨끗한 모시 원료인 태모시가 되는데 이것을 쪼개어 모시섬유의 굵기를 일정하게 한 후 '찢지'라는 버팀목에 걸어 놓고 한올씩 빼어 양쪽끝을 무릎 위에 놓고 침질을 하며 손바닥으로 균일한 저마 섬유를 만든다.

모시날기, 모시매기

10개의 모시곳에서 "젓을대"의 구멍으로 실끝을 통과시켜 한 묶음으로 하여 날틀에 걸어 한 필의 길이에 맞추어서 날실의 길이로 날고 새수에 맞추어 날실의 올수를 맞춘다. 모시날기가 끝난 날실 다발은 고리 모양으로 연결하여 날틀에서 빼어서 뭉치로 만든다.

모시날기가 끝난 날실을 "바디"에 끼워 한쪽끝은 "도투마리"에 매고 또한쪽은 "골개"에 말아 팽팽하게 한 뒤 풀을 먹여 도투마리에 감아 모시 짜기에 알맞게 한다.

꾸리감기

모시곳을 씨줄로 사용하는데 알맞게 모양을 만든다.

모시짜기

날실이 감긴 도투마리를 메틀에 "누운다리"위에 올리고 바디에 끼운 날실을 긴장시켜 놓고 베틀의 쇠꼬리채를 발로 잡아당겨서 날실을 벌려 손으로 준비된 씨실 꾸리가 담긴 북을 좌우로 엮어짜서 한필의 모기를 생산한다.

모시등급검사

오늘의 장원은 씨앗과 날이 고르며 빛깔이 좋은 한산모시로 정한다.

자료제공 : 서천문화원

▶ 행사내용

- 태모시 전시 및 벗기기 체험 - 염색 태모시 전시(20m*2/양쪽)
- 지역주민(다문화가정 포함) 및 학생 패션쇼
- 저산팔읍길쌈놀이를 통한 한산모시 우수성부각, 전통문화계승보존
- 모시옷을 입어 볼수 있는 기회 제공 / 염색모시 전시로 시각적인 효과 기대
- 모시각에 올라 소원 기원, 성취 의미 부여
- 모시를 이용한 염색 체험
- 무형문화재 시연 / 체험
- 모시제작과정을 통한 체험과 시연 형태로 운영
- 모시를 짜는 베틀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공간 (모시 짜기 체험)
- 태모시를 활용하여 인형만들기 체험
- 지역 주민들을 활용 대규모 길쌈시연을 연출, 모시문화제 주제 부각
- 모시잎 순수건 물들이기 체험
- 솔방울 미니장승 체험
- 모시차 시연 및 시음 체험
- 팬시만들기/우드 체험
- 박터트리기 체험
- 한산모시 홍보관 전시 및 현대모시제품 전시 판매장

▶ 주 무대 행사 구성

- 열림식
- 폐막식
- 축하공연(대전mbc)
- 음식경연대회(농업기술센터)
- 동호회공연(11개단체 / 무대 및 안채)
- 밸리댄스 공연
- 모시가요제(백제)
- 패션쇼(이영희)
- 패션쇼(디앤씨티)
- 유네스코기념행사
- 연예인예술단 공연

공주문화원

2012 명사와 함께하는 금강달빛·별빛 이야기



공주는 백제의 수도로써 유적과 유물이 많은 찬란한 백제문화가 숨 쉬고 있는 '역사·문화'의 도시다. 비단 같은 강이 흐르니 풍경마저도 아름다운 도시다.

이러한 공주시에서는 지난 2010년도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했다. 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공주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행사로 우

리문화원에서 도맡아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날도 인기가 더해져 2012년 을 해까지 사업이 이루어 졌다.

해가 저무는 저녁시간, 공주시 공산성에서는 공산성의 아름다운 야경을 벗 삼아 달빛 가득, 별빛 가득 담은 주제가 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지금까지 총 21명의 명사가 공주를 다녀갔다.

초청명사

▶김남조(시인)▶고은(시인)▶김영동(작곡가)▶이걸재(소리꾼)▶나태주(시인)▶이웅조(고고학자)▶김도향(가수)▶박동규(문학평론가)▶김정음(색소포니스트)▶임진모(음악평론가)▶허영자(시인)▶최석원(백제문화재추진위원장)▶이준관(한국동시문학회장)▶이건청(한국시인협회장)▶조석준(기상청장)▶조통달(국악명인)▶김훈(소설가)▶이호재(전통패션디자이너)▶서명숙(제주 올레 이사장)▶김녕만(사진작가)▶권영민(문학평론가)

기대효과

지역주민의 관광공주에 대한 자긍심을 높였으며, 외지관광객들에게는 공주의 관광자원을 알리고 수준 높은 공연문화의 체험을 통하여 보다 감동적인 문화행사를 만들었다.

금산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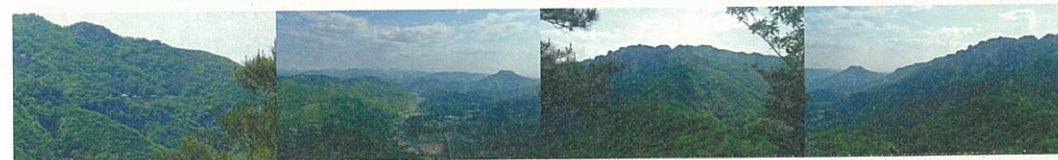
대둔산 마을 이야기 발간 사업

금산문화원에서는 2012년 충청남도 도내 문화원 특성화사업 공모로 향토민속을 발굴·보존·육성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자료 및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둔산 자락의 마을 이야기 발간 사업을 선정하였다.

크게 금산군 진산면과 논산시 벌곡면, 양촌면 그리고 완주군 운주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대둔산은 역사적으로 진산면의 옛 영역인 진산군과 진동현의 중심을 이루는 주산이다. 대둔산을 중심으로 한 산줄기와 마을에는 백제와 신라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탄현이 자리하고 임진왜란 때에는 최초 육전승전지로서 이치대첩지가 자리하고 있는가 하면 천주교 최초 순교지로 알려져 있고 또 동학혁명 당시에는 최초의 봉기지와 최후의 항거지로 새롭게 규명이 되고 있는 등 대둔산은 우리 역사의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는 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 주제는 "생명을 지킨 보배의 땅, 대둔산 마을 이야기"로 정한다.
- 대상 마을은 진산면 행정리, 묵산리, 두지리, 지방리 마을로 한다.
- 집필진은 금산역사문화연구자 및 문화원 회원을 중심으로 하되 금산군과 관계된 연구자도 포함한다.
- 집필자는 마을의 관련 인사와 협의하여 마찰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위 추진계획에 따라 집필자와 분야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답사를 같이하기도 하고 집필자 혼자 여러 차례 답사를 실시하였다.



- 서석규(작가) : 전체 개관 및 지역 이미지
- 오병훈(한국식물연구회장) : 농사 및 식물 이야기
- 서석규(작가) : 이치대첩 이야기
- 길일기(시인) : 대둔산 동학 이야기
- 김선주(시인) : 대둔산 천주교 이야기
- 김현봉(서예인, 금석문 전공자) : 태고사 및 비문 이야기
- 안용산(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 지명 이야기
- 사진 및 편집 : 김성근, 전병만

이번에도 예산 관계로 충분한 지원이 없었음에도 금산에 대한 애정 하나로 답사와 원고를 써 주신 여러 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특히 집필자가 아니면서 여러 차례 답사와 안내를 하여준 석상현 선생님께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단지 진산이 고향이고 진산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뜻을 같이하였으며 도자기 전공자로 토기 발굴과 고증은 대둔산성의 존재를 밝히는데 매우 유익하였음을 밝히며 다시 감사를 드린다.

답사를 하면서 새롭게 규명을 하고 알게 된 것은 대둔산의 존재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이상이었다는 점이다.

첫째 대둔산이 삼한과 삼국시대 중요한 고대 교통로 역할을 하였고 과거 진동현의 중심을 이루는 산이었음을 확인하였다. 흔히 현 진산면 소재지에 있는 진산산성이 백제시대 진동현의 치소가 있는 산성으로 알려져 있으나 백제시대 진동현 치소가 아니다. 이는 고려시대에 옛 진동현에서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이다. 옛 황등야산의 속현으로 있던 지역은 조선시대 진산군 지역보다 큰 영역으로 대둔산을 둘러싼 지역- 전주부의 양량소면도 모두 진동현의 영역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는 권율장군이 승리를 거둔 이치대첩지가 현재의 자리가 아닌 남쪽으로 약 400미터 남쪽에 위치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 대둔산휴게소 뒷산인 망봉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디딤터 옆으로 옛 이치대첩이 자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는 그동안 막연하게 있으리라 짐작하였던 대둔산성의 존재를 새롭게 규명하고 대둔산성터로 비정을 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넷째는 과거 진동현의 치소와 역사학계에서 여러 설이 있는 탄현의 존재에 대하여도 보다 깊은 조사를 통하여 거듭 확인하였다.

다섯째로 과거 진산군과 논산의 연산현의 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둔산과 진산은 과거 진동현이 차지하는 역사적인 위치는 시대마다 중요한 전략적인 가치는 물론 삼국시대 이후 문화적,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거듭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

논산문화원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한마당’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은 대표적인 세시 명절 중의 하나이다. 대보름의 풍속은 전체 세시풍속 중 1/4이 넘는 정도로 많아 정초와 대보름 명절이 우리 민속에서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개인적인 기복 행사로 부럼 깨물기, 더위 팔기, 귀밝이술 마시기, 나물먹기와 달떡을 먹는 것이 있으며, 줄다리기, 다리밟기, 고싸움, 돌싸움, 쥐불놀이, 별신굿 등은 마을의 화합과 집단의 이익을 위한 대보름 행사가 있다.

손꼽히던 민족의 최대 명절이었던 대보름은 이제 점점 보기 힘든 풍속이 많아졌고, 어르신들에게는 아련한 추억거리가 되었으며 요즘 학생들에게는 낯설기만 해졌다.

논산문화원은 정월 대보름의 의미를 찾고 우리 미풍양속을 보존 전승하기 위해 2003년부터 정월 대보름 민속한마당을 개최, 처음에는 문화예술회관 앞마당에서 ‘제1회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로 윷놀이 대회와 국악공연 정도로 시작되었다. 2005년부터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 축제’로 변경하여 논산천 둔치로 장소를 옮겼으며 연날리기, 줄다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널뛰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찾아가는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 축제로 연산체육공원에서 펼쳐졌으며 KBS 대전방송 ‘540스튜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보름 행사를 소개한 바 있다.



2012년부터 논산시에서 관심을 갖고 본예산에 세워져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한 민속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논산 시내 중심지와 행사장인 논산천 둔치까지 60여명의 국악인들의 지신밟기를 통해 액운을 없애고 복을 빌어주며 행사는 시작되었다. 특설무대에서는 기관장 풍물놀이 개막 퍼포먼스로 이목을 끌었다.

이어 논산관내 7개 국악단체가 참여하여 국악공연을 개최하여 논산 국악인들도 화합하고 대보름과 어울리는 공연으로 관람객들이 좋은 호응을 얻었다. 5개 단체가 참가하여 줄다리기, 제기차기, 힘자랑 대회가 펼쳐져 대보름 행사는 절정에 달했다. 한쪽에서는 가족 연날리기 대회가 열려 8개 가족이 창작한 연을 날리고 심사 시상하여 멋진 추억을 만들게 되었다. 파란 하늘에 각양 각색 수백개의 연이 장관을 이루었다.

역시 대보름에는 풍성한 먹거리가 최고였다. 대보름 음식으로 오색찰판나물비빔밥과 어묵국, 팽튀기, 전부치기, 부럼, 인절미 떡메치기, 흰떡고구마 구워먹기 먹거리로 대보름 명절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민속놀이 체험으로 윷, 팽이, 투호, 널, 제기, 굴렁쇠, 소형 줄타기, 대형 솟대 소원빌기, 활각기, 한지공예, 쥐불놀이 깡통 제작, 연 만들기, 소형 달집 제작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어른들이 붐빈 곳은 토정비결 부스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 되었다. 기타 부대행사로 대보름 OX퀴즈 등 총 30여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대보름 행사의 대미는 대나무 타는 소리에 놀라 액운이 물러나고 풍요를 기원한다는 달집 태우기였다. 달집을 보며 비나리를 들으며 많은 시민들은 합창하고 한해의 건강을 빈다.

오곡밥과 나물, 부럼 정도는 아직도 행해지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 한마당'은 대부분 앞당겨 주말을 이용해서 개최하고 있다. 항상 추운 날씨가 변수이기는 하지만 많은 봉사자와 시민이 참여하여 문화원의 대표행사로서 또한 논산의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아가고 있다.



당진의 역사 재조명 사업

당진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급격한 산업화로 전통농업도시에서 공업도시로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 및 활용하여 정체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당진시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매장문화재 시발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거쳐 지역사를 재조명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고, 그동안 매장문화재 시발굴 조사 보고서는 단편적 보고서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지역사와 연계, 심층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당진시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 마련하고자 당진문화원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한 2차례의 학술회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당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제1차 주제 : 고고자료를 통해 본 당진의 역사적 성격

- 기조발표 : 당진지역 발굴 고고유적의 성격과 문화적 특성
(이남석, 공주대학교)
- 제1주제 : 구석기·신석기시대의 당진의 생활문화상 검토
(구자진, 토지주택공사)
- 제2주제 : 당진지역 청동기문화의 성격
(나건주, 충청문화재연구원)
- 제3주제 : 당진지역 백제유적의 성격과 역사적 위치
(정해준, 백제문화재연구원)
- 제4주제 : 고고유적을 통해 본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의 당진
(조원창, 한얼문화유산연구원)
- 제5주제 : 당진지역 조선시대 발굴유적의 특성과 의미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제2차 주제 : 민속을 통해 본 당진의 해양문화적 성격

- 제1주제 : 해양민속을 통해 본 당진의 문화적 성격
(주강현, 제주대학교 석좌교수)
- 제2주제 : 해양교통로를 통해 본 당진의 해양도시적 성격
(윤명철, 동국대학교 교수)
- 제3주제 : 수계를 통해 본 당진의 역사문화적 성격
(김추운, 신홍대학교 교수)
- 제4주제 : 당진의 세시풍속에 나타난 해양문화적 특성
(이인화, 당진시 교육청)



서산문화원

정신보·정인경 학술발표회 개최

서산문화원(원장 이준호)은 지난 11월 30일(금)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한국성리학의 기원과 정신보'란 주제로 정신보·정인경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양렬공 정인경 기념사업회 회원 및 서산 정씨 일가, 향토사학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강의내용은 정신보론, 남송 및 원대 성리학의 학풍과 정신보·정인경의 출호, 정인경의 정치적 기반과 활동이었다.

이준호 서산문화원장은 "서산문화원에서도 학술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지만 본 학술발표회는 우리 지역만의 근간이 될 역사적 인물인 양렬공 정인경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만큼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렬공 정인경 선생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철주 양렬공 정인경기념사업회장은 "우리 지역의 이름인 관호를 되찾고 서기(瑞氣)어린 지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큰 업적을 이루어 주신 양렬공 정인경선생의 생애업적과 학문, 사상 등을 조사·연구하여 서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공(公)을 추승·선양하기 위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서산문화원에 감사하며 상대적으로 조사가 될 뻔 정신보 선생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학술세미나는 서산시와 양렬공정인경기념사업회의 후원으로 치뤄졌다.



서천문화원

지역문화 특성화사업 한산면지 편찬사업

- 사업명 : 한산면지 편찬 사업 연구 용역
- 기간 : 2011년 9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주관 : 서천문화원
- 용역기관 : 공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초등사회과교육과 교수 최병택

선비의 고장 한산면은 서천군에서 옛 역사와 한산의 전통 사업과 시장 전통 문화 유산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선비의 고장으로 이름난 것처럼 이곡, 이색 등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곳인 만큼 한산에서 이처럼 대단한 인물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그만큼 풍요로웠으며, 그러한 경제적 여건을 바탕으로 학문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색의 자취는 아직도 우리 고장에 남아 있다. 이색은 고향 한산을 항상 잊지 못하고 한산에 대한 그리움을 '한산팔영(韓山八詠)'이라는 제목의 시에 담아 표현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한산의 여덟가지 아름다움을 노래한 이 시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 | |
|------------|--|
| 송정암정(崇井巖松) | 봉우리 위에는 푸른 돌이 솟아있고, 소나무 이마 언저리에는 흰 구름 연하였네,
나한당(羅漢堂) 적적한데, 중들은 교와 선이 섞여 있네 |
| 일광석벽(日光石壁) | 우뚝히 평야에 서서, 까마득히 긴 하늘 굽어보네, 푸른 석벽 작은 승방에,
불등이 반공(半空)에 걸려 있네 |
| 고석심동(孤石深洞) | 평평한 들판이 장차 다하러는데, 회봉(回峰) 바라보니 다시금 높구나,
한 구역 궁벽한 곳에, 절간이란 본래 외롭네 |
| 회사고봉(回寺高峯) | 뒷 고개는 삼각을 이루었고, 앞 봉우리 반공(半空)에 치솟았네,
가는 배 쇠 닻줄 내리니, 혹시 광풍이나 있을런가 |
| 원산수고(圓山戍鼓) | 바다 위 높은 산에 봉화 전하고, 여염은 파도를 놀랐네, 백년간 난리 없는 이 땅에,
수자리 북소리 석양이 질다. |
| 진포귀범(鎭浦歸帆) | 가는 비, 복사꽃 물결과, 찬 서리 갈대잎 가을, 돌아가는 저 돛대는 어느 곳에
떨어지려나, 아득한 한 조각배 |
| 압야권농(鴨野勸農) | 넋가의 들판은 반반하기 솟돌같고, 가득히 심은 벼, 질펀하기가 구름과 같네, 원
님은 행차를 재촉하고, 들판을 돌아보니 땅거미 지려 한다. |

웅진관조(熊鎭觀釣) 마을(馬邑) 산봉우리 병풍 비껴 찢고, 웅진 강물은 이끼 빛으로 물들었네,
물에 드리운 낚시 실바람 받아 간들간들, 때마침 달밤에 돌아오네

한산이 낳은 인물로서 여말선초 격동기를 대표했던 거대한 인물, 이색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문헌서원에 배향되었다. 문헌서원에는 이색의 묘와 영당, 신도비, 문집판각 등이 있어 그를 기념하고 있다.

■ 연혁

한산면이 속해 있는 서천군은 조선시대에 한산·서천·비인의 세 군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한산군, 서천군, 비인현이 설치된 것은 태종 13년(1314)의 일이었지만, 조선시대 당시에는 서천군 관하에 모두 11개 면이 있었고, 한산군에는 9개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인현의 경우 고종 32년에 이르러 군으로 승격되면서 6개 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원래 한산군은 마산(馬山), 마읍(馬邑), 한주(韓州) 등으로 불렸다. 마산이라는 이름은 백제 시대부터 한산 지역을 일컫는 명칭이었다. 백제는 한산 지역에 마산현을 설치하여 오랫동안 다스렸는데, 그 때문인지 사람들은 백제가 멸망한 후에도 한산이라는 이름 대신 마산 혹은 마읍이라는 별칭을 즐겨 사용하곤 했다. 마산현의 치소는 현재의 마산면 벽오리였는데, 이 사실이 옛 고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조선시대 한산군 지도

통일신라 시대에 접어들어 마산현은 가림군(嘉林郡)의 속현이 되었다가 고려 시대에 접어들어 한산 혹은 한주로 이름을 바꾸었다. 한산은 고려시대에도 가림군의 속현이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는 속현에 따로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그 지역의 향리에게 행정을 맡긴 다음 인근 주군·주현의 지방관이 이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한산도 속현의 하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명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감무(監務)라는 관리가 파견되어 지방 행정을 독자적으로 관할하게 되었다.

감무는 고려 예종 1년(1106)부터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속현에 파견한 지방관의 일종이다. 속현에는 오랫동안 지방관이 임명되지 않았는데 예종대에 이르러 속현 중에서도 중요한 곳을 골라 관리를 파견하는 제도가 비로소 확립되었다. 금강변에 자리잡은 한산은 그 위치상으로 보아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뛰어났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한산의 치소가 건지산 아래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고려시대에는 신라말에 각 지방을 주름잡던 호족들의 본거지에 치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산에는 고려시대에 호장공(戶長公) 이윤경(李允卿)이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지만, 아마도 이윤경으로 대표되는 일군의 지역 대표 세력이 건지산 일대에 세거했던 것으로 보이며, 치소도 이들이 본거지를 둔 곳에 자리잡고 있었다고 이해된다.

한편 조선 태종 13년에 이르러 한산현은 한산군으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 한산군은 동상(東上)·동하(東下)·남상(南上)·남하(南下)·서상(西上)·서하(西下)·상북(上北)·하북(下北)·북부면(北部面)을 관할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 송림리를 비롯 모두 118개의 동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1800년대 중반에 발간된 『한산군지』에 의하면 당시 한산에는 3,297호, 11,622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실 조선 후기에 작성된 호적은 자연호를 기준으로 인구 및 호구의 현황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몇 개의 자연호를 하나로 묶거나 하나의 호를 몇 개로 나누어 작성하는 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호적에서 누락된 호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1800년대 중반에 한산에 살던 사람의 수는 기록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한산, 서천, 비인으로 나뉘어져 있던 현 서천군 일대의 행정구역은 1914년 3월 조선총독부가 지방재정 긴축이라는 명분으로 시행한 지방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로 서천군에 통합되었다. 이 때 서천군으로 합쳐진 지역은 서천·한산 및 비인군 전역, 임천군 홍상면의 포상리·관항리·고읍리, 팔가면 하수리, 남포군 습의면 신촌 등이었다.

이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의 한산군 한산읍과 북부면 교촌, 죽동, 신동, 종지, 호암, 산성, 외상, 외하, 동자, 유산, 내하, 산음, 교촌, 서외, 서내, 내상 등 각 동리는 구 한산군 동상면의 원산, 야인, 신곡, 여사, 사곡, 나교, 동지, 토산, 송림, 축산, 송상, 송중, 송하, 오곡, 단상, 단중, 단하, 단서, 갈마, 녹양의 20개 동리, 동하면의 상동, 하동, 하서, 온동, 신후, 화산, 용두, 신성의 8개 동리, 임천군 홍상면의 포촌리, 교항리, 고읍리 등과 합쳐져 지금의 한산면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한산면의 관할 구역 중에서 송림리가 1973년에 마산면 관할로 이동하고, 그 대신 화양면의 구동리가 새로 편입되어 지금의 한산면을 이루게 되었다.



한산면의 행정구역

세종문화원

제1회 세종단오제 성료

우리 고유의 민속 명절인 단오절(음력 5월 5일)을 맞이해 연기문화원(원장 임영이) 주관으로 6월 24일 오후 5시부터 세종시첫마을 중앙공원에서 '제1회 세종 단오제'가 열렸다.

이번 단오제는 잊혀 가는 전통 명절인 단오제를 알리기 위해 창포물에 머리 감는 체험과 단오부채를 직접 만들어보는 등 어른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고 어린이들은 책에서 보던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해보며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배워 보고자 마련됐다.

'전통축제로 하나 되는 세종시민'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통혼례, 마당극 놀부전, 창포머리감기, 우산 만들기, 부채 만들기, 수리취떡 먹어보기 등 체험마당과 널뛰기, 제기차기, 굴렁쇠 등 전통놀이 체험으로 다양하게 진행됐다.



전통 혼례식



마당극 "놀부전"

예산문화원

예산문화원 대표사업

제23회 추사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회화대회
제14회 추사김정희선생 추모 전국 청소년 회화대회
서세 156주기 추사김정희선생 추모제례

지난 10월 13일, 14일 양일간 대한민국 대표 학자이자 국보예술인인 추사 김정희선생을 추모하는 선양사업이 예산문화원과 추사김정희선생추모기념사업회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충청남도 예산군 추사고택의 추사묘 앞 특설과장에서 전국의 서생 1,000여명의 참여하에 성료하였다.

추사회화대회는 전국 최대규모의 회화대회로 장원에 국무총리상과 특별상으로 국회의장상을 신설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서예대회로 위상을 높였다.

추사회화대회 장원에는 국무총리상에 경기도 용인의 임철교씨와 대한민국 국회의장상에 서울 서대문구의 이경숙씨가 영예를 안았다.

매년 추사김정희선생님의 기일(음 10월10일)을 양력으로 하여 기일에 가장 가까운 토, 일요일에 개최되는 본대회는 내년 2013년 10월 12일, 13일 개최될 예정이다.



온양문화원

2012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선정

2012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선정

생활양식 속의 모더니즘-세라믹 도자기, 생활예절 다도, 전통미술 사군자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아산시에서 평생학습 기관·단체에 사업을 공모하도록 하여 온양문화원에서는 공모에 선정되어 2012년 7월부터 10월말까지 '생활양식 속의 모더니즘'의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하여 폭넓은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수업에 참가한 수강생들의 열정과 뜨거운 호응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었다.

• 세라믹 도자기반 그림을 담은 그릇 도자기 Hand Painting

일반적으로 초벌 또는 재벌도자기 위에 도자기용 안료를 이용해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고 채색(페인팅 하는 도자기)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 성형기법을 세라믹 Hand Painting이라고 한다.

슈퍼화이트 혹은 고령토 등의 순백색을 띠는 성형된 소지(흙) 건조후 700℃~900℃ 사이의 저온에서 1회 구운 도자기를 말하여, 만들어진 초벌도자기(혹은 비스크)란 도자기 위에 도자기용 고화도 안료를 이용해 채색(하회기법)한 후 고화도 투명유약을 입혀 1,200℃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재벌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도자기 혹은 성형방법을 뜻하며, 페인팅 되어진 안료(물감) 위에 유기질의 투명유약이 덮여져 고온에서 구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식기로 사용이 가능하며 오븐, 전자레인지 등에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 생활예절 다도반

차의 정신 및 차인의 마음가짐

다도(茶道)란 차생활을 통하여 얻어지는 깨달음의 경지이다. 차생활의 예절이나 법도 그리고 차를 끓이는 행다법(行茶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차를 대접하는 예법이요, 차를

끓이는 방법일 뿐 결코 다도(茶道)는 아니다. 차(茶)는 기호음료 중에서도 행실이 바르고 덕(德)을 닦는 사람에게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모름지기 차를 마시는 사람은 인간다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인(茶人) 그것은 군자(君子)나 성인(聖人)이라고 부르는 말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차를 마실 줄 안다고 해서 차인은 결코 아니다. 차인(茶人) 그것은 참사람을 가르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차인이란 그 말 한마디에 귀가 먹고, 눈이 멀고, 입이 있어도 말을 조심하는 것이다. 차인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잘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 전통미술 사군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특별히 사군자(四君子)라 부르게 된 연유, '사군자'가 문인들의 사랑을 받게 된 배경과 역사적 흐름을 살피고, 특히 사군자를 생활과 사상의 일부로 삼았던 문인들의 고결하고 흥미로운 삶의 이야기 그리고 이를 소재로 한 대표작 그림들을 통해, 문인과 선비들이 가장 사랑했고 주된 창작의 소재로 여겼던 사군자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군자 그림은 일반 회화보다는 서예에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사군자를 그린 사람들이 전문 화가보다는 문인이 많았고 예술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그림에 드러나는 작가의 인품과 교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도 사군자는 지조 있는 선비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



천안시
동남구문화원

단오축제

천안시 동남구 문화원에서는 1983년부터 매년 단오(음력 5월5일)때 천안시 병천면 아우내 장터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단오절 민속놀이인 씨름, 널뛰기, 줄다리기 등과 노래자랑, 국악 공연 등 축제를 연다. 축제의 시작은 1974년 당시 천원문화원(현 동남구문화원)에서 사라져 가는 민속놀이의 계승을 위해 척사대회와 줄다리기대회, 그네대회를 열면서 출발하였다. 초창기에는 2-4년마다 열렸으며 1984년 제4회 대회부터 단오절 민속놀이 경연대회로 바꿨다. 또, 2011년도 부터는 주민들의 축제를 기념하자는 뜻에서 '단오축제'로 명칭을 바꿨다.



▲단오 소개 : 이때는 오월 단오절이었다. 아름다운 계절이라, 월매의 딸 춘향이도 시서와 음율에 능하니 천중절(天中節)을 모르겠는가. 무성한 버드나무에 까마득히 높게 그네를 매고, 향단아 밀어라. 앞으로 힘차게 구르는 모양이, 날썸 제비가 복숭아꽃 떨어질 때 낙아채듯하고, 뒤로 번득 가는 모양은 무산선녀(巫山仙女)가 구름타고 양대위에 내려오는 듯하다. 춘향전 중 남원 광한루에서 춘향이 그네 뛰는 대목이다. 이도령과 성춘향은 이곳에서 만나 사랑을 싹틔운다. 이때가 오월 단오다. 음력 사오월이 춘향전의 시간적 배경이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젊은이에게는 사랑이 움트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음력 5월 5일이 단오인데, 5라

는 숫자는 양(陽) 가운데 양수(陽數)이다. 옛사람들은 이 때가 우주 의 모든 기운이 합쳐지고, 왕성해진다고 했다. 사람의 감정도 가장 아름다워진다.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영원했던 것도 5라는 양수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의 큰 명절로 설과 추석, 정월 대보름 그리고 단오가 있다. 새로운 한해의 시작이 설이다. 그래서 명절 가운데 으뜸이다. 설을 쇠고 보름이 지나면, 열두달 가운데 가장 큰 보름인 정월 대보름이다. 이 기간에 아이들은 연을 날리고 쥐불놀이를 한다. 안택(安宅)을 지내는 집이 있고, 마을에서는 동제를 올린다. 대보름이 지나면 연날리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이때까지 연날리고 놀면 게으름뱅이라고 놀림을 당한다. 또 상놈이나 하는 짓이라고 했다. 왜냐면, 이맘 때가 겨울 동안의 농한기를 지나 본격적인 농사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농가에서는 농토를 갈아엎고 농기구를 손질한다. 한해 농사의 시작이 정월 대보름이고, 갈무리가 추석이다. 우리의 세시풍속이 농경문화의 함축이기에 더욱 그렇다. 한해 농사의 중간인, 단오(端午)는 우리네 삶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조선 시대의 가사, 농가월령가에서 5월 절기를 이렇게 읊고 있다.

5월이라 중하(仲夏) / 망종(芒種) 하지(夏至) 절기로다. / 남풍에 때 맞추어 / 맥추(麥秋)를 재촉하나, / 보리밭 누른빛이 / 밤사이 나겠구나. / 문 앞에 터를 닦고 / 타맥장(打麥場)을 하오리라. (중략) 단오는 입하를 지나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다. 만물에 활기가 솟는다. 농가에선 이미 감자나 옥수수 등 밭곡식은 심어 논 상태고, 바쁜 모내기 철도 지나갔다. 또 춘궁기를 벗어날 보리농사도 마무리 단계다. 아낙네들은 고된 농사일에서 벗어나 느슨해질 무렵이며, 바야흐로 산으로 들로, 나들이 다니기에 좋은 호시절이다. 곳곳에서, 그네를 뛰고 씨름판이 벌어진다. 단오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큰 명절로 지내고 있다. 중국에서는 중오(重午), 단양(端陽) 혹은 오월절이라고 한다. 단오의 순 우리말은 수릿날이다. 조선 순조 때 홍석모(洪錫謨)가 지은 동국세시기에 이날 썩떡을 해 먹는데, 그 모양이 수레바퀴를 닮았다고 하여 수릿날이라고 한다. 떡가래에서 시절음식으로 수릿떡을 팔았다고 했다.

단오날 여인네들은 창포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마시기도 했다. 창포탕은 사귀(邪鬼)를 물리친다고 봤다. 창포의 뿌리는 적당히 깎아서 비녀를 만들어 꼰다. 비녀에 수복(壽福)이라고 새겨 넣거나, 붉은 색을 칠한다. 벽사의 의미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단오날 창포잎을 머리에 꽂은 아낙네를 예사로 볼 수 있다. 들판 어디에나 잘자라는 풀로 익모초가 있다. 어머니처럼 어머니처럼 유익하다고 하여 익모초(益母草)다. 쓴맛 치고 익모초 만한 것이 있을까. 그런데 단오날 이 즺을 먹는다. 오월 오일에 / 아아, 단오날 아침약은 / 천년을 오래 사실 / 약이라고 바치나이다. 고려가요 동동(動動)에서, 천년을 오래 사실 약이란 다름 아닌 익모



초다. 더위타고, 병나기 십상인 여름철에 대한 예방약 차원이다. 익모초나 쑥잎은 가정에서 1년내내 요긴한 약재로 쓰이는데, 반드시 단오날 정오에 채취했다. 일년 중 양기(陽氣)가 가장 왕성한 날의 중간에 해당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대추나무 가지 사이에 둥글고 길쭉한 돌맹이를 끼워 두면, 가지가 무성해 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대추나무 시집 보낸다고 한다. 단오의 풍속이다. 쑥과 익모초의 채취와 마찬가지로, 이날 오시(午時)에 한다. 즐거운 명절에 음식이 빠질 수 없다. 단오 절식으로 쑥이나 수리취로 만드는 수릿떡(수리취떡, 차륜병) 외에도 제호탕, 앵두편, 준치국이 있다. 제호탕은 백단향 등을 꿀에 재웠다가 냉수에 타 마시는, 약이자 청량음료다. 앵두나 살구를 살짝 익혀, 채에 걸러 설탕과 녹말을 섞어 굳힌 것이 앵두편이다. 아이들 간식으로 좋다. 생선 가운데 가장 맛있는 고기가 준치다. 가시가 많기로도 유명한 준치는 곱게 살만을 발라내 완자를 만들어 국을 끓인다. 준치국이다.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준치만 골라 잡았다. 용궁에서 이를 보다못해 모든 물고기의 가시 한개씩을 빼내 준치의 몸 속에 보태줘서 인간들이 먹기 힘들도록 했다는 재미난 얘기가 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단오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네뛰기다. 우리나라 고전 가요를 보면 단오날 예외없이 그네 뛰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벽초 홍명희의 소설 임궽정에도 단오날 꺾정의 아녀 윤충이 그네를 타기 위해 기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궁궐이나, 반가의 여인들도 이날의 그네 뛰기만은 허용되었다. 일종의 해방공간이랄 수 있다. 그네뛰기는 흔히 여자들만의 놀이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겼던 놀이다. 단 여성들이 그네뛰기에 적극적이었을 뿐이다.

혜원 신윤복의 단오 풍속도에 그네 뛰고 머리 감는 여인네를 볼 수 있다. 남자들의 민속놀이로 씨름이 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서 씨름의 모습이 보이며, 신라의 화랑도 심신단련의 목적으로 씨름을 했다. 단오절에 궁궐은 물론 일반 백성들도 재액을 막기 위해 부적을 대문에 부치는 풍속이 있었다. 단오부적 혹은 천중적부(天中赤符)라 했다. 천문 지리 등을 관찰하던 관상감에서는 해마다 부적을 만들어 궐내에 올렸다. 부적에는 404가지 병을 한꺼번에 없앤다는 내용이 있다. 지금은 사라진 풍속이다. 단오는 시기상 여름이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아이들은 먹을 감고, 어른은 등목을 한다. 체면 때문에 그럴 처지가 못되는 양반들은 탁족(濯足)을 했다. 탁족회까지 있었다. 대오리로 길고 둥글게 만든 죽부인(竹夫人)은 서늘한 기운이 있어 무더운 여름밤에 끼고 잤다. 아버가 쓰던 죽부인은 자식이 사용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재미있다. 왜냐면 아버지의 부인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손쉽게 더위를 쫓는 물건으로 부채가 있다. 단오부채(端午扇)는 조선말기까지 공조(工曹)에서 만들어 단오날 궁중에 진상했다. 임금의 재상을 비롯한 신하들에게 나눠줬다. 지방 관청도 마찬가지다. 일반에서도 이날부터 부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단오는 부채의 날이었다.

(이 글은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명찬이 1997년 월간 「新人間」에 기고한 기사중 일부이다)

홍성문화원

전통성년식 재현(전통관례 및 계례)



홍성문화원에서는 성년의 날을 맞아,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에 혜전대학 야외무대에서 전통의식인 '전통관례 및 계례 재현'을 거행한다. 혜전대학과 공동으로 치르는 성년식 체험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에게 선현들의 선비정신을 일깨워주고, 사회의 구

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여주고자 실시해오고 있다.

오늘날 성년식은 우리 전통예법인 4례 즉, 관혼상제 중 첫 번째인 관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인간이 부모로부터 몸을 나누어받아 육체적으로 성장을 완성한 후 하나의 인격체로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중요한 통과의례이다. 즉, 남자는 20세, 여자는 15세가 되면 좋은날을 택하여 음식과 술을 장만하고 마을사람들을 초대하여 덕망 있는 분을 주례로 모셔서 관례를 행하여 왔다.

남자의 경우 '관례', 여자는 '계례'라고 했다. 남자는 머리에 상투를 틀고 초립을 씌우고 옷은 어른의 복식을 하례하고 비로소 술을 마시게 하며, 부르기 쉬운 이름 즉, 자를 지어주며 이때부터는 말도 존댓말로 "하계"를 써서 대접했다. 여자는 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아주며 역시 복식을 달리하고 자를 지어 내렸다. 관·계례를 치른 후에는 어른으로 대접받고 지역사회 대소사에 동참할 수 있었다.

2012년도 전통성년식 재현

- ▶ 사업내용 : 성인된 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지키고, 행해야 됨을 가르치는 자리로써 전통복식과 방법으로 성년식 재현. 점점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성년자에게 사회적 책임감과 건전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 사업일시 : 2012년 5월 21일(월) 오전 11시~12시 30분
- ▶ 사업장소 : 해전대 야외무대
- ▶ 사업대상 : 해전대학 학생 22명(남자 11명, 여자 11명)

이날 전통성년식은 해전대 학생 300여명이 관람하는 가운데 주례, 제자빈, 관자와 계자 부모, 찬자, 시자를 모시고 흥성문화원 사무국장의 집례로 전통방식에 따라 진행했다. 성년이 된 남자를 뜻하는 관자에 해전대학 무역마케팅과 2학년 탁은성 군이, 여자를 뜻하는 계자에 치기공과 2학년 이연경 양이 각각 대표로 나서고 총 22명의 성년자가 전통적인 절차에 따라 성년이 되는 의식을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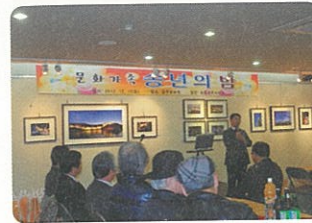
어른이 입는 세 가지 복장을 갈아입으며 교훈의 말씀을 전하는 '삼가례(초가례, 재가례, 삼가례)'와 어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남자에게는 관모를 씌워주고 여자에게는 족두리와 비녀를 틀어주는 '가관례', 성인이 됨을 축하하는 뜻에서 남자에게 술을 여자에게 차를 마시는 법도를 알려주는 '초례', 마음가짐과 행동을 경계하라는 뜻을 담아 이름 대신 항상 부를 수 있는 자(호)를 내려주는 '명자례' 순으로 차례로 치러진다.

"이제 모든 예의를 다 갖추었으니 성인이 되었다. 이 좋은 날에 너에게 자를 지어주었으니 마땅히 소중하게 지닐 것이며 아름다운 글자에 합당하는 올바른 행동을 실천할 지니라."라는 '성년선언'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다.

전통 관례와 계례를 재현하는 것은, 우리조상님들의 예법과 같이 모자와 의복을 세 번씩 갈아입힘으로서, 복잡한 절차만큼이나 어른의 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행하여 성년자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비록 옛 전통 그대로를 완벽하게 재현하진 못했지만 우리의 전통을 잊지 않고 이어나가는 모습에 그 의미가 있는 자리이다.

본 사업을 통하여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전통과 퇴색해가는 성년의 날의 의미를 되살리고, 성인이란 자부심을 고양시키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도록 보다 더 노력할 것이다.

공주문화원 '송년의 밤', 회원들 친목 다져



지난 12월 11일(화) 오후 6시 30분, 공주문화원에서는 남은 해를 잘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알차게 준비하자는 뜻에서 문화원 회원을 초청하여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시낭송가인 오학수, 이상희 회원이 두 편의 시낭송을, 김광섭 회원의 색소폰 연주, 그리고 이광형 회원이 가곡을 부르며 회원들 로만 구성된 다양한 공연과 함께 간단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회원들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좋은 시간을 가졌다.

공주문화원

이준호 서산문화원장 대통령 표창



이준호 서산문화원장이 8월 30일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국무총리 및 문화관광부장관 등 주요인사 및 전국문화원 229개 문화원 회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준호 원장은 지역의 낙후된 문화환경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는 문화의 불모지인 서산에 1987년 '서산문화제'를 만들어 어울림을 통한 주민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하고, 각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민속시연을 통해 우리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는데 노력했다.

특히 서산문화원장으로 취임해 지역의 각종 향토자료를 조사·수집 발간해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바로 잡는데 노력했으며, '서산문화원 자원육성조례'를 만들어 안정된 지원속에 문화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준호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의 교육기회 제공 및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상은 문화예술인의 문화발전 및 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로 알고 상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경주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산문화원

서천문화원장 취임식 개최 계획

충남 서천군 서천문화원은 지난 11월 14일 문화원 회의실에서 제15대 서천문화원장 조순희(53)씨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조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모두가 공유하고 함께하는 문화, 옛것과 현재가 공존하며 어우러지는 문화야말로 앞으로 문화원이 만들어가야 할 가치다"고 전했다.

서천문화원



취임

이 재임되어 2016년11월11일까지 재임 임기를 진

예산문화원



사무국장 인사발령

동남구문화원은 공석이던 사무국장을 2011년 12월 중순경에, 서류
면접으로 인한 공개채용을 통하여, 12월 26일에 최종선발을 하고,
1월 6일 이사회의 승인으로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다.
! 광승일 사무국장은 대학교에서 문화기획학과를 전공하였고, 서울에
기업프로모션 회사 및 전자관련 회사 등의 다양한 사회경력을 바탕으로
사무국장으로 신규채용되었다.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장 취임

0월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투표한 결과 제11대 이진우 원장이 당선
을 안고 첫 업무를 시작했다.

원장은 “초대 원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보존·계승하고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활발히
한편 지역 문화의 중심기관으로 청양사회 통합의 주도적인 역할을
다”고 말했다.

청양문화원

이·취임

11월 23일, 태안향토문화연구소장 이·취임식 및 향토문화 24호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임하는 초대 박춘석 소장은 향토문화의 불
고지인 태안에서 향토문화연구소를 전국 최초로 설립하여, 지난 34
년의 재임기간 동안 지역향토사의 기틀을 마련하고 향토문화를 발
굴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향토문화사 책자를 꾸준히 발간
하며 향토사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토문화연구회를 운영하



2012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취임

이 재임되어 2016년11월11일까지 재임 임기를 진

예산문화원



사무국장 인사발령

동남구문화원은 공석이던 사무국장을 2011년 12월 중순경에, 서류
면접으로 인한 공개채용을 통하여, 12월 26일에 최종선발을 하고,
1월 6일 이사회의 승인으로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다.
! 광승일 사무국장은 대학교에서 문화기획학과를 전공하였고, 서울에
기업프로모션 회사 및 전자관련 회사 등의 다양한 사회경력을 바탕으
로 사무국장으로 신규채용되었다.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장 취임

0월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투표한 결과 제11대 이진우 원장이 당선
을 안고 첫 업무를 시작했다.

원장은 “초대 원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보존·계승하고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활발히
한편 지역 문화의 중심기관으로 청양사회 통합의 주도적인 역할을
다”고 말했다.

청양문화원

이·취임

11월 23일, 태안향토문화연구소장 이·취임식 및 향토문화 24호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임하는 초대 박춘석 소장은 향토문화의 불
고지인 태안에서 향토문화연구소를 전국 최초로 설립하여, 지난 34
년의 재임기간 동안 지역향토사의 기틀을 마련하고 향토문화를 발
굴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향토문화사 책자를 꾸준히 발간
하며 향토사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토문화연구회를 운영하



2012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취임

재임되어 2016년11월11일까지 재임 임기를 진

예산문화원



국장 인사발령

남구문화원은 공석이던 사무국장을 2011년 12월 중순경에, 서류
접으로 인한 공개채용을 통하여, 12월 26일에 최종선발을 하고,
16일 이사회의 승인으로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다.

박승일 사무국장은 대학교에서 문화기획학과를 전공하였고, 서울에
컴프로모션 회사 및 전자관련 회사 등의 다양한 사회경력을 바탕으로
사무국장으로 신규채용되었다.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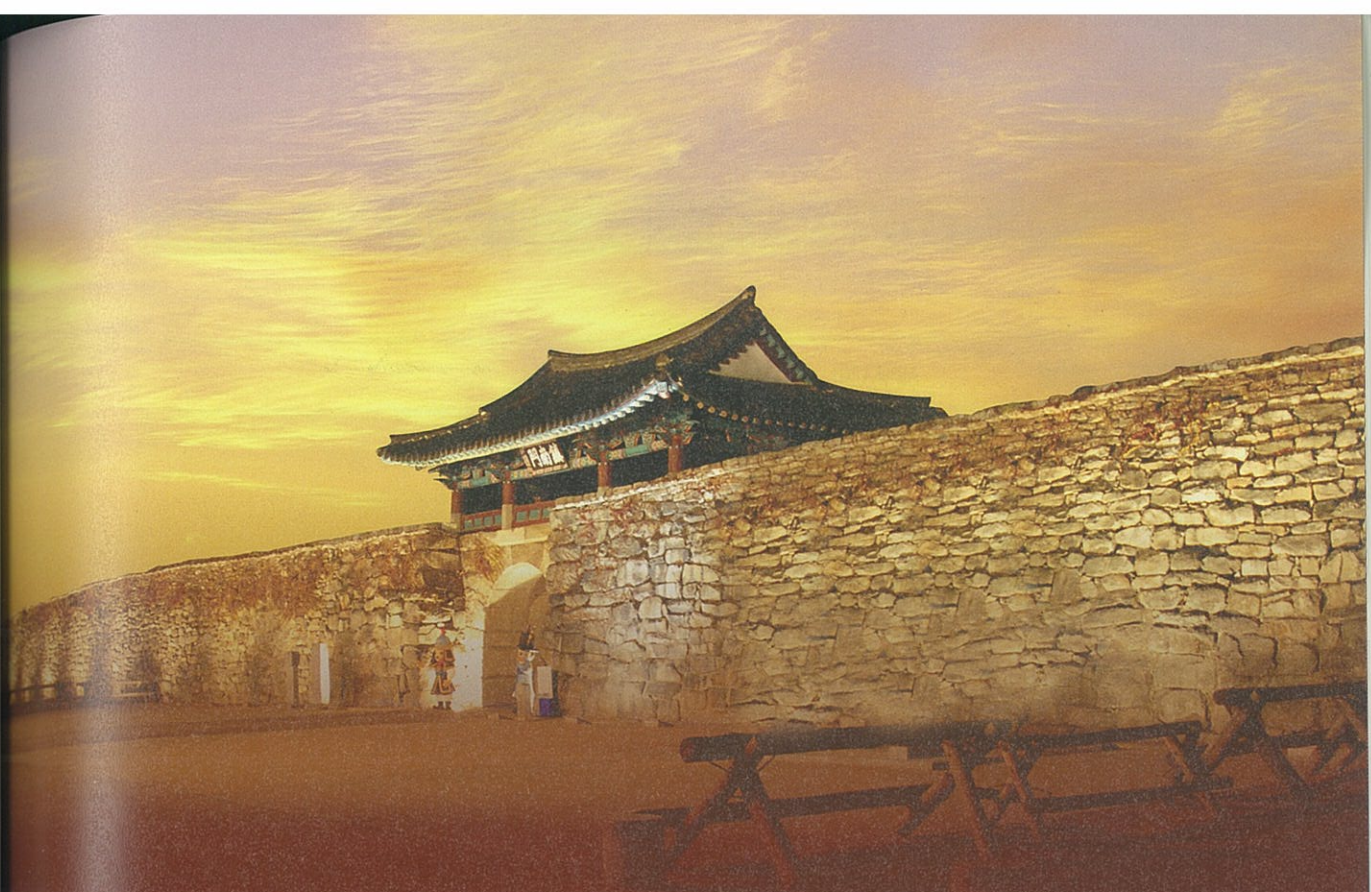
월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투표한 결과 제11대 이진우 원장이 당선
받고 첫 업무를 시작했다.

원장은 "초대 원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를 존·계승하고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 문화의 중심기관으로 청양사회 통합의 주도적인 역할을
'고 말했다.

청양문화원

이·취임

11월 23일, 태안향토문화연구소장 이·취임식 및 향토문화 24호
판기념회를 가졌다. 이임하는 초대 박춘석 소장은 향토문화의 불
지인 태안에서 향토문화연구소를 전국 최초로 설립하여, 지난 34
의 재임기간 동안 지역향토사의 기틀을 마련하고 향토문화를 발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향토문화사 책자를 꾸준히 발간
한 향토사연구회 하서희를 대표하고 향토문화연구회를 운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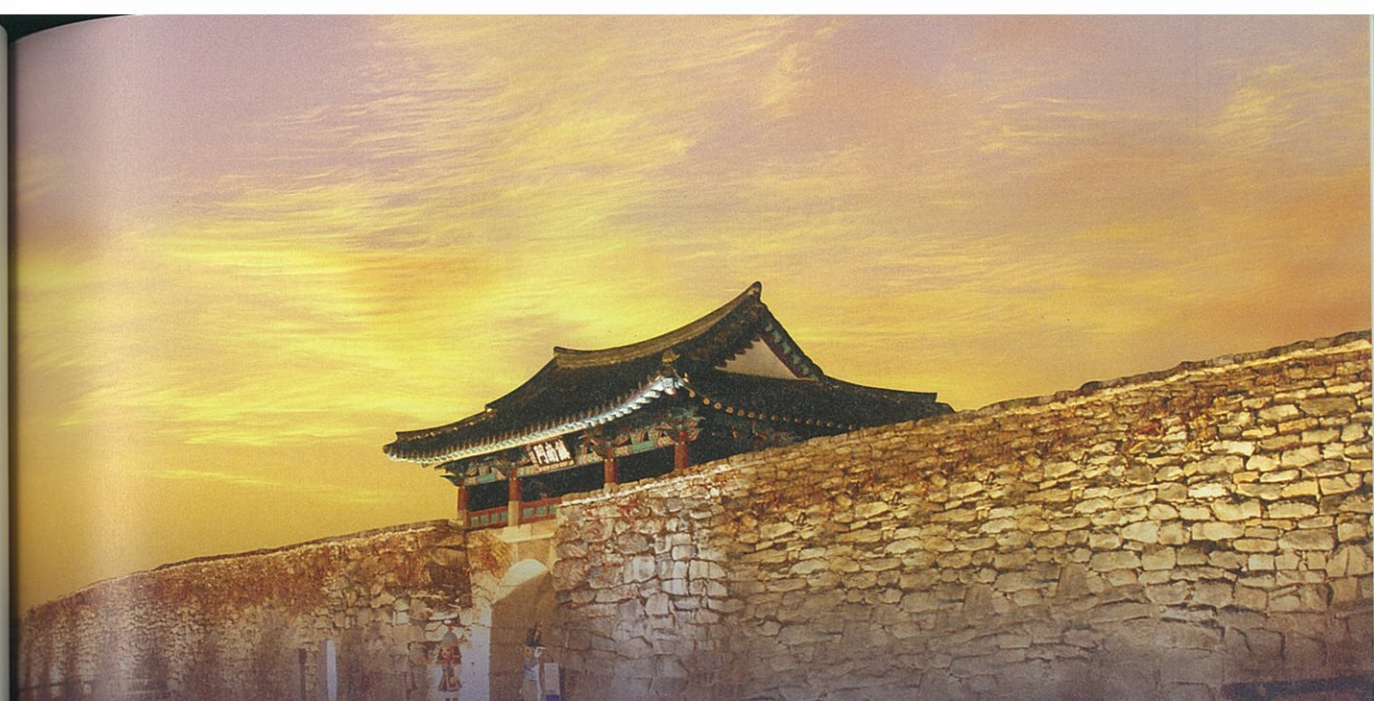
2012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2012년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선진문화탐방	-일시 : 3월 26일~29일 -장소 : 중국 북경	해외 선진문화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효과적인 문화원 운영
2	사무직원 위탁교육	-일시 : 12월 4일~6일 -장소 : 강릉 선교장	국내 우수축제 및 우수운영기관 사례로 강릉문화원 및 우수축제와 관련하여 도내문화원 종사자 실무교육
3	지방문화원 활성화워크숍	-일시 : 5월 1일 -장소 : 예산 리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도내문화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실시(세무교육)
4	향토사연구 활성화사업	-일시 : 11월 6일(시상식) -장소 : 당진문화원 -수상자 : 총 3명	향토연구 활성화 도모와 향토사가 독려, 연구의욕 고취를 위한 논문공모 및 시상
5	충남문화 16호발간	-일시 : 12월 -수량 : 600부	충남도내 문화원 및 충청남도지회의 연간 사업현황 및 활동상황 및 문화자료를 책자로 발간하여 배포



2012

도내문화원 활동상황

2012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公州文化」발간	발행일 : 1~12월 발행부수 : 2,300부 (격월간 연 6회 발간)	국내 및 해외의 출향인사, 전국문화원, 유관기관단체, 지역인사, 문화가족대상으로 지역소식수록 발간 배포
2	향토민속발굴사업 「공주의 전통마을」 제11집 발간	발행일 : 12월 중 발행부수 : 1,000부	공주관내 읍·면·동의 토속적인 풍경이 살아있는 10개 전통마을 선정
3	우리조상알기사업 (뿌리찾기사업)	일 시 : 함양박씨세미나 (10월20일) 이천서씨세미나 (11월 3일) 장 소 : 공주문화원 강당 외 참 석 : 500여명	공주를 땃줄로 하는 저명성씨들의 고향바로 알기사업 학술세미나→유적답사→성씨별 책자발간
4	지역문화학교 운영	일 시 : 3월~12월 장 소 : 공주문화원 강좌수 : 14개 과목 참 석 : 600여명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의 장 국선도, 서예·사군자, 요가, 사진, 댄스스포츠, 중국어, 민요, 가곡, 시낭송, 오카리나, 플루트, 다도, 색소폰 등 14개 강좌 운영
5	청소년 및 시민문화유적답사	일 시 : 4월~7월 장 소 : 양양, 여수 참 석 : 250여명	공주시민대상 전국의 문화유적지 답사 (경북 양양, 전남 여수)
6	문화예술인 정기공연 (예인촌)	일 시 : 1월~12월 장 소 : 공주문화원	공주문화예술인을 정기적으로 초청 (년3회 정기공연)
7	찾아가는 우리문화 순회공연	일 시 : 6월~7월 장 소 : 공주요양병원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치료감호소 참 석 : 1,400여명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우리의 전통문화체험 (각급 학교 및 복지시설 4~5곳 방문)
8	효사상선양 학생백일장	일 시 : 5월 19일 장 소 : 공주웅진동 공주보 수상공원 일원 참 석 : 500여명	효와 공주사랑을 주제로 공주시 초·중·고학생 백일장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9	향토작가 초대전	일 시 : 4월, 9월 초대작가 : 최근태, 이일권 장 소 : 공주문화원 전시실	공주출신 향토작가 초청 전시회(2회 개최)
10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	일 시 : 10월 4일 장 소 : 공주 둔치공원 참 석 : 50명	씨름, 줄다리기, 널뛰기, 제기차기 등 공주대표로 출전 충남도민 화합의 장 마련
11	명사와 함께하는 금강 달빛·별빛 이야기	일 시 : 6월~11월 장 소 : 공주문화원 참 석 : 850여명	명사초청 토크콘서트 초청명사 : 조통달, 김훈, 이효재, 서명숙, 김병만, 권영민(총6회)
12	어르신문화학교 운영 (문화나눔봉사단)	일 시 : 연중 참 석 : 30명	전통문화공연단 「논두렁발두렁」동아리운영 각종 축제참가 및 학교방문
13	제58회 백제문화제 백제혼불채화 -봉송-합화	일 시 : 9월 29일 장 소 : 연미산 및 공주시 일원	제58회 백제문화제 서막을 알리는 백제혼불채화-봉송-합화
14	제58회 백제문화제 사대왕추모제	일 시 : 9월 29일 장 소 : 공주 송산리고분군	백제중흥사왕추모제
15	제16회 만회복지 생활지원사업	일 시 : 10월 19일 장 소 : 공주문화원 수혜자 : 30명	불우이웃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
16	우리문화즐기기사업	일 시 : 5월~11월	공주민속(무형문화제)의 청소년 전승 선학리지계놀이, 의당집터다지기
17	지역작가창작활동 지원사업	일 시 : 9월~12월 (총 7회) 장 소 : 공주문화원 전시실	시민을 위한 문화갤러리 (최선무용단, 안혜경, 김혜식, 유병호, 이미정, 이윤하, 김기창, 정경희, 김준성, 양미숙, 윤정훈, 이재황, 임성호, 정순자, 황명식)
18	회원가족 송년의 밤	일 시 : 12월 11일 장 소 : 공주문화원	공주문화원 회원가족들과 함께하는 송년의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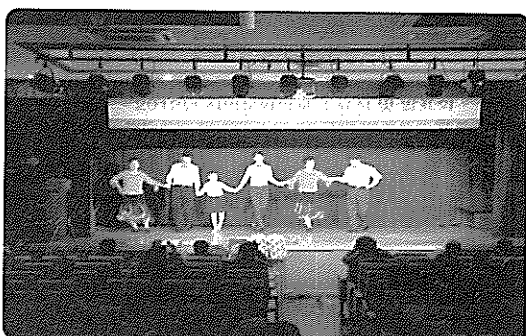
초대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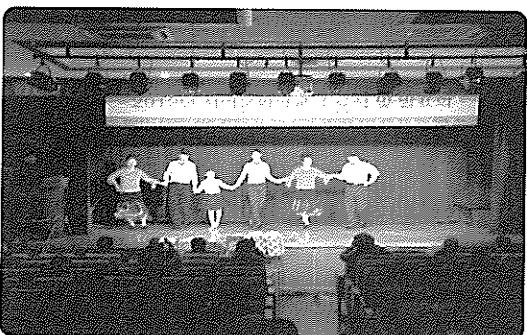
학술세미나



문화학교 수료식



문화학교 수료식



문화학교 수료식



순회공연



문화예술인 정기공연



문화학교(플룻)

2012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금산의 민속발굴	「용솟음치는 산 금산이야기」발간 조사지역 : 금산읍 일시 : 3~12월	「금산의 중심을 이루는 산에 관한 민담과 이야기」발간
		「금산의 근대사 이야기」 일시 : 3~12월 대상 : 금산역사문화연구소	1910~1960년 사이 신문에 나타난 자료
		「대둔산마을 이야기」발간 일시 : 3월~12월 조사지역 :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	대둔산 중심을 이루는 마을의 민속 문화와 자원 조사
2	문화학교운영	일시 : 3~8월 장소 : 금산문화원 강좌수 : 4개강좌	문예창작, 서예강좌(기초), 한국화(기초), 판소리(기초)강좌를 통해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3	금곡서회 지원사업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서예동호인단체, 금곡서회회원 인원 : 25명	문화학교 초급반을 이수한 회원들로 구성된 고급과정 서예전시회 개최
4	창현회 지원사업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한국화 동호인 단체, 창현회원 인원 : 15명	문화학교 초급과정을 이수한 회원으로 구성된 고급 과정 한국화 전시회 개최
5	풍각쟁이 지원사업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판소리 · 민요 동호인 단체 인원 : 15명	금산문화예술제 노래모임 풍각쟁이의 국악공연 정기 발표회 개최
6	장동달맞이축제	일시 : 2월5일(1일간) 장소 : 금산읍 음지리 (장동마을) 인원 : 20,000명	달, 불, 바람을 주제로 하는 대보름 전통마을축제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7	산꽃축제	일시 : 4.28~29일(2일간) 장소 : 군북면 산안리 인원 : 30,000명	100여만평의 산벚꽃자생단지에서 꽃길여행, 민속공연 등 자연친화적인 축제 구성
8	금강민속축제	일시 : 7.28일(1일간) 장소 : 부리면 평촌리 (금강놀이마당) 인원 : 20,000명	금산농악판굿, 물떼기농요, 농바우끄시기 등 공연 금산의 민속체험 마당 가족과 함께 하는 추억만들기 마당
9	삶꽃문화사랑	일시 : 3~12월 장소 : 금산군 일원 인원 : 200명	마을과 함께하는 문화마당
10	진악풍류전	일시 : 9월8일 장소 : 금산읍 보광사 참여인원 : 20,000명	진악풍류전, 풍류여행, 생태전시회 자연과 문화 마을 사람이 중심이 되는 21세기형 생태문화관광축제
11	금산문화예술축제	일시 : 11.17 ~ 21일 장소 : 청산아트홀 참여인원 : 300명	문화의 달을 기념하는 금산문화예술제로 미술, 서예전시회 및 출판기념회 개최
12	전시회	일시 : 11.17~21일 장소 : 청산아트홀 전시장	금동인(미술), 금목회(서예)전시회
13	장동마을민속보존사업	일시 : 1~12월 대상 : 장동민속마을보존회	대보름전통마을 민속전승
14	송계지계놀이보존사업	일시 : 1~12월 대상 : 송계지계놀이보존회	금산의 전승되는 송계지계놀이 보존 및 전승
15	금산역사문화연구소	일시 : 1~12월 대상 : 금산역사문화연구소	금산의 근대사이야기 발간
16	금산민속연보존회	일시 : 1월~12월 장소 : 장동달맞이축제 기타 축제의 현장, 금산 문화를 홍보하는 장소 인원 : 20명	연 띄우기, 연만들기 체험교실운영, 연 전시회 등 연의 축제
17	농바우끄시기보존	일시 : 1월 ~ 12월 대상 : 농바우끄시기보존회	농바우끄시기보존회 공연
18	물떼기농요보존	일시 : 1월~12월 대상 : 물떼기농요보존회	물떼기농요보존회 공연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9	산꽃시 시사랑 발간사업	산꽃시동인회 작품 및 특집수록	산꽃시동인지 발간사업
20	좌도시동인지 발간사업	좌도시동인회 작품 및 특집 수록	좌도시동인지 발간사업
21	실용음악 보급사업	실용음악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	그룹사운드「파랑새」
22	금산주부풍물 보급사업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나아내풍물단 인원 : 40명	각종축제 금산풍물굿공연 금산문화원학교 초급과정 이수한 회원으로 구성 고급반 과정
23	토리풍류 보급사업	사물놀이 기능 전수와 여가문화 창출	사물놀이 토리풍류회
24	문화소모임(동아리) 활동	일시 : 3 ~ 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인원 : 150명	군민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와 인식을 통하여 문화향수권신장



송계지계놀이



송계지계놀이

2012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2012신년교례회	일시 : 1월 2일 14:00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인원 : 200여명	논산시 기관, 단체장과 시민이 참석하여 한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 다과회 등
2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탐방	기간 : 1월 ~ 12월(총18회) 장소 : 돈암서원, 논산명재 고택, 중학원 등 인원 : 800여명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고장의 아름답고 유서 깊은 문화유적지를 문화관광해설사가 동승하여 버스로 답사하였고, 청춘 남녀 문화탐방도 2회 실시 함.
3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한마당	일시 : 2월 4일 14:00 장소 : 논산천 둔치 인원 : 600여명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줄다리기, 제기차기, 힘자랑, 연날리기 대회 개최, 국악 한마당, 각종 민속놀이 체험 등 30개 프로그램 운영
4	회원 정기답사	일시 : 4월 26일 08:30 인원 : 61명 장소 : 논산천 둔치	충주 월악산미륵사지, 탄금대, 세계무술공원, 누암리고분군, 중앙탑공원, 충주박물관 등 답사
5	송재 서재필박사 학술 발표회	일시 : 5월 21일 15:00 인원 : 100여명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연무읍 금곡리가 고향인 서재필 박사에 대해 홍선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서재필의 독립운동 사상과 방략' 이라는 주제로 발표
6	전통 혼례 및 성년식 재현	일시 : 6월 23일 10:00 인원 : 200여명 장소 : 논산명재고택	한국전례원충남논산지역원 주관으로 공군기상대 장병 성년식, 다문화가정 1쌍 전통혼례, 국악공연 등
7	어르신문화학교 전문강사파견 프로그램 '별별생각하는 기억상자'	기간 : 4월 ~ 12월 인원 : 15명 장소 : 화지산신협 문화공간, 자연체험미술학교 토감	어르신들의 경험과 기억 속 별난 세계를 토우로 제작 제작해 보고 작품 발표회 개최
8	어르신문화학교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위풍당당어르신 한지공예가'	기간 : 4월 ~ 12월 장소 : 강경발효전갈축제 인원 : 6명	지역 축제, 어린이날 행사 등 어르신 한지공예가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전시회 개최
9	제6회 논산시 가족백일장 및 제2회 애향 사생대회	일시 : 5월 19일 14:00 장소 : 논산명재고택 인원 : 500여명	논산 시민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하고 유아, 학생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심사 시상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0	제13회 논산시 어르신 장기대회	일시 : 6월 26일 9:00 장소 : 대한노인회논산시지회 2층 인원 : 200여명	논산시 읍·면·동 어르신 선수 60여명이 출전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 시상
11	충남정신발양 사업 논산문화 유적 답사	기간 : 6월 ~ 12월(총6회) 장소 : 논산관내 유적지 인원 : 300여명	논산 시민을 대상으로 임리정, 팔래정, 돈암서원, 명재고택 등 문화관광해설사와 답사
12	제7회 청소년문화제	기간 : 7월 ~ 8월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외 인원 : 1,200여명	논산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회호UCC공모전, 제27회 논산시 호글짓기 및 문화재 그림 공모전, 청소년들이 춤, 노래, 국악, 연주 부문을 경연하는 '내 마음의 푸른 꿈', 청소년을 위한 푸른음악회
13	제23회 논산시 서예회화대회	일시 : 9월 25일 10:00 장소 : 논산돈암서원 인원 : 150여명	논산시서예협회 주관으로 학생과 일반인이 참가하여 서예 기량을 발휘하고 심사 시상 및 전시회
14	'독서의달행사' 독후감 공모전	기간 : 9월 ~ 10월 인원 : 100여명	독서의 달 을 맞이하여 논산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공모하여 심사하고 시상
15	제2회 논산향시	일시 : 9월 15일 10:00 장소 : 논산돈암서원 인원 : 500여명	개막 퍼포먼스, 향시 및 한글 8행시 글짓기, 장원급제자 행렬, 전통 국악공연, 택견 시범, 주막운영, 다도체험 포함 부대 행사 8개 운영
16	제22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일시 : 10월 4일 10:00 장소 : 공주 금강 둔치 인원 : 30명	씨름, 줄다리기, 제기차기, 널뛰기, 줄넘기, 힘자랑 6종목에 논산시선수 총26명 참가, 종합4위
17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일시 : 10월 9일 19:00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인원 : 200여명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큰덕어울 국악과 TJB현악앙상을 초청 야외무대에서 음악회 개최
18	시조경향대회	일시 : 10월 9일 9:00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인원 : 100여명	대한시조협회논산시지회 주관으로 전국남녀 시조 가사가곡 경향대회
19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자리	일시 : 10월 31일 19:00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인원 : 200여명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나의조국' 이라는 주제로 논산시낭송인회 낭송송과 전통무용, 성악가, 클래식기타 등 협연
20	해외문화교류	기간 : 11월 2일 ~ 11월 5일 대 상 국 : 일본 인원 : 11명	일본 나가사키 공민관 교류회, 국악공연, 군가초 마쓰리 참관 등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21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논산기행	기간 : 11월 ~ 2013년 1월 장소 : 논산관내 산, 문화유적 등 인원 : 800여명	가족 단위로 참가하여 논산관내 노성산, 천호산, 대둔산 등을 10회에 걸쳐 등산 및 인근 유적지 답사
22	『논산의 금석문 제2집』 조사 수집	기간 : 1월 ~ 12월 인원 : 3명	1집에 누락 된 금석문과 조선시대 찬한 비문, 연산현, 노성현, 은진현의 각종 선정 및 불망비 등 조사, 수집, 번역
23	『문학 속의 논산』 발간	기간 : 1월 ~ 12월 인원 : 5명 발행부수 : 500권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학속에 나타난 논산의 작품을 조사 수집 발간
24	청소년 서적 사계 김장생	기간 : 4월 ~ 12월 인원 : 5명 발행부수 : 500권	사계 김장생 선생을 중심으로 손진호 작가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 만화로 발간
25	계간지 논산문화 * 봄 호 * 여름호 * 가을호 * 겨울호	발 행 일 : 1월 1일 발행부수 : 1,500부 발 행 일 : 7월 1일 발행부수 : 1,500부 발 행 일 : 10월 1일 발행부수 : 1,500부 발 행 일 : 2013년 1월 1일 발행부수 : 1,500부	논산의 문화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으며 권두시, 대담, 칼럼, 논단, 문화원장이 들려주는 논산이야기, 문화재 바로 알기, 포토에세이, 선인들의 삶과 지혜, 현대시산책 등 24개 코너로 연4회 계간지로 발간하여, 각 기관 및 단체, 학교, 도서관, 문화원 회원 등 배포
26	논산문예 제20집	발 행 일 : 11월 발행부수 : 500권	제27회 논산시 청소년 호 글짓기 공모전 입상작들을 엮어 발간 및 배포
27	논산시 주최 문화예술행사 주관	기간 : 1월 ~ 12월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건양대, 논산공설운동장 등 인원 : 논산시민 대상	소프라노 조수미 독창회, 연극 한수산의 부초, 충남교향악단과 그림자극 비발디사계, 탐정호 생태공원 야외공연, 관광 및 명소 야외공연(9회), 심수봉 콘서트, 논산 시민의 날 음악회, 국립국악원 2012 국악을 국민속으로, 금난새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 세종나눔 앙상블, 남희석의 야외수업



금난새와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2회 논산향시



조수미 독창회



9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한마당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탐방

2012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4.4독립만세운동 학생백일장	일시 : 2012. 4. 4 장소 : 창의사 인원 : 500명	대호지 4.4 독립만세운동기념 학생백일장 공모 및 시상
2	남이흥장군문화제 학생백일장	일시 : 2012. 10. 20 장소 : 충장사 참여인원 : 1,000명	남이흥 장군의 애국애족정신을 본받는 백일장 공모 및 시상
3	당진역사의재조명	일시 : 2012.8.24/10.19 인원 : 각 120명 장소 : 당진문화원 발행부수:500부	당진지역의 선사시대 이후 시대별 고고학 발굴 유적의 현황과 해양적 문화 성격을 발표하는 학술회의 개최, 당진역사의 재조명 발간
5	당진문화37호 38호 발간	일시 : 2012.8.30/12.30 발행부수 : 각1,000부	문화원소식 및 지역문화 소식과 정보를 수록 발행
6	어르신문화나눔 봉사단	일시 : 2012.5월~11월 장소 : 관내복지시설 등 참여인원 : 10명	연합회 공모사업으로 늘푸른악단이 지역의 소외계층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 문화 나눔 봉사단활동을 함
7	향토사대중화사업	일시 : 2012.5월~11월 장소 : 원당초등학교 참여인원 : 30명	연극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지역의 이야기를 주제로 학생들의 시각에서 직접 창의적 연극교육을 진행
8	어르신문화학교 은빛기자단	일시 : 2012.5월~11월 장소 : 문화원, 시청 참여인원 : 20명	기자단 활동을 위한 교육을 진행, 기사작성 교육, 컴퓨터 활용 교육, 사진교육
9	향토문화 유적탐방	일시 : 2012. 3월~12월 횟수 : 8회 인원 : 각40명	관내,외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체험
10	해외문화탐방	일시 :2012.10.26~10.29 장소 : 대만 인원 : 17명	대만의 중정기념당, 국립고궁박물관, 총렬사, 태로각 협곡, 아류 해상공원, 지우편 등 탐방
11	문화예술의 향연	일시 : 2012.11.28~12.2 장소 : 당진문화원 참여인원 : 400명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전시 (유화, 수채화, 연필 인물화)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2	찾아가는 문화나눔	일시 : 2012.11.28~12.7 장소 : 관내복지시설 참여인원 : 300명	지역복지시설 찾아 국악, 무용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시행
13	다문화 문화예술교육	일시 : 2012.10월~12월 장소 : 당진문화원 참여인원 : 300명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가요교실, 그림교실 등 운영
14	사라져가는 당진의 지명유래	일시 : 2012.3~12월 발행부수 : 1,000부	당진지역의 지명연구를 통해 그동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하고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발간
15	면양잡록 해제	일시 : 2012.5~12 부수 : 50부	연암 박지원 면천군수 재직시 집필했던 면양잡록 2책 및 3책을 번역하여 당시 지역의 생활상을 조명
16	문화학교	일시 : 연중 강좌수 : 15개 강좌	노래교실, 생활영어 초급?중급, 수채화, 유화, 연필인물화, 고전무용, 단전호흡, 건강택견, 민요장구, 민속놀이, 풍수지리, 명리학, 오카리나, 노인한글교실 운영
17	당진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공연	일시 : 2012.2.23 장소:당진문예의전당 인원 : 1,000명	당진시 출범 기념음악회 당진시민과 함께하는 음악공연
18	금난새의 클래식여행	일시 : 2012.5.31 장소:당진문예의전당 인원 : 1,000명	금난새의 클래식지휘로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개최, 클래식의 이해와 아름다움을 알기 쉽게 공연
19	국립경찰교향악단 초청공연	일시 : 2012.10.4 장소:당진문예의전당 인원 : 1,000명	국립경찰교향악단을 초청하여 클래식, 성악, 밴드 공연 등을 시민들 앞에 선보임
20	서곡의 향연	일시 : 2012.11.29 장소:당진문예의전당 인원 : 1,000명	세계적인 바리톤 김동규와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으로 당진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
21	충남구상작가 초대전	일시 : 2012.6.1~7 장소:당진문예의전당 인원 : 1,000명	충남지역 구상작가 초대 전시회 개최



청와대탐방



남이흥문화제



어르신 문화나눔



연극활동



은빛기자단



학술연구

2012년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해맞이행사	일시 : 1월 1일 07:00 인원 : 2,000명 장소 : 성주산 일출전망대 대상 : 문화원 회원 및 시민	농악놀이, 새해인사, 소망기원 촛불점화, 축시낭송, 신년메시지, 통일기원합창, 해오름합성 및 새해소원 풍선날리기, 복선물나눠주기, 축하음악
2	신년하례회	일시 : 1월 2일 11:00 인원 : 400명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대상 : 유관기관 단체 및 신년하례회 신입회원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2(壬辰)년을 맞이하여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화합과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보령건설을 다짐하는 행사
3	제93주년 3.1만세 항일애국지사 추모기념식	일시 : 3월 16일 10:30 장소 : 주산면사무소 광장 인원 : 500명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높였던 우리고장 항일애국지사의 거룩한 희생과 위업을 기리고 3.1독립정신을 계승 발전 • 기념식 • 시가행진 및 재현
4	우리고장바로알기 교양강좌	일시 : 4월~10월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및 문화유적 현장답사 참석 : 1,500명	시민들에게 우리고장 향토문화를 바로 알리고 애郷심을 고취 시키고자 강의 및 답사 실시 • 강사: 향토사학자 황의호, 황의천 선생 • 특별강사: 김종욱 더한함리더쉽개발원장, 최시한 숙명여대 교수, 김덕수 공주대 교수, 최영성 한국 전통문화대 교수, 권오준 자연다큐멘터리촬영감독, 서정석 공주대 교수, 김남석 부경대 교수 • 답사지: 관내(남포·주산), 강원도 양양군(오색석사)
5	문화가족 문화유적답사	일시 : 5월 30일 인원 : 100명 장소 : 논산시 일원 대상 : 대천문화원 회원	문화원 회원의 사기진작 및 화합 도모 코스 : 논산명재고택(결리사, 노성향교)→ 종학원→돈암서원→백제군사박물관→관촉사
6	한내돌다리밟기 민속축제	일시 : 9월 21일 14:30 장소 : 대천천 한내돌다리 현장 인원 : 1,000명	• 지역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우리 민속축제 • 각계각층의 많은 보령시민이 참여하는 화합축제 • 시가행진→다리제→국악팀공연→다리밟기 →가장행렬→어울마당
7	만세보령문화제	일시 : 9월 21일~22일 장소 : 공설운동장 및 관내 인원 : 2,000명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제17회 만세보령문화제에 가훈써주기, 보령사진 전시등 행사 참여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8	추석맞이 전통민속 체험	일시 : 9월 25일 16:30 장소 : 보령원 인원 : 60명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전통 민속 예절교육 및 체험행사 진행 • 차례상 진열 및 차례 법 교육 : 향교 유림 지도 • 체험행사 : 송편 빚기
9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석	일시 : 10월 4일 선수단 : 60명 장소 : 공주시 금강둔치공원	도민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고유의 전통 문화 유산 전승 보존을 위하여 제22회 충남도지사 배 민속대제전 참가 • 종목 : 씨름, 줄다리기, 줄넘기, 널뛰기, 힘자랑, 제기차기 • 성적 : 종합 1위
10	제5회 충남예술제 참석	일시 : 10월 12일~10월 14일 장소 : 서천군 장항읍 화물역사 일원	충남문화예술인들이 지역간·장르간 다채로운 발표의 장을 마련해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에 기여 하고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향토문화 전승과 예술창작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문화의 중심, 명품 충남'으로 도약하기 위해 열리는 충남문화예술제에 참석하여 부응
11	김좌진 장군 추모제향	일시 : 10월 22일 11:00 장소 : 청소면 재정리 장군 묘역 참석 : 500명	백야 김좌진장군의 애국충절 정신을 후손들이 길이 추모하고 애국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모제향 지냄 • 1부 제례의식 • 2부 추모행사
12	제37회 청소년 미술·서예·백일장 공모전	일시 : 10월 29일~11월 16일 대상 : 관내 초·중·고 학생 부문 : 미술, 서예, 백일장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전래되어 오는 미풍양속의 충효사상을 일깨우고, 창의적인 예술적 감성과 미적체험을 진작시키며, 지역 미술 · 서예·백일장 문화발전을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특선, 입선, 지도교사상 시상)
13	김성우 장군 추모제향	일시 : 11월 1일 11:00 장소 : 청라면 라원리 장군 묘역 참석 : 500명	고려 말 전라도 도만호 김성우 장군의 애국충절 정신을 후손들이 길이길이 추모하고 애국충성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추모제향을 지냄 • 1부 제례의식 • 2부 추모행사
14	보령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일시 : 11월~12월 장소 : 대천문화원 2층 강의실 인원 : 500명	문학, 역사, 미술, 음악 등 교양 있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방면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시민의식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거둠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5	제15회 문화학교 회원 작품전시회	일시 : 11월 20일~11월 22일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참석 : 200명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조성과 우리 지역의 재능 있는 예술인의 발굴 육성을 도모 • 출품수 : 서예 17점, 한국화 11점, 서각 9점, 사진 7점, 문인화 19점 • 발표회 : 기타교실, 국악교실, 가야금교실
16	명사초청강연회	일시 : 12월 13일 14:00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인원 : 200명	한남대학교 이필영 교수 초청 강연회 개최
17	지역주민 우리고장 문화유적답사	일시 : 12월 21일 장소 : 보령·부여 일원 인원 : 45명 대상 : 오천면 소성리 주민	평소 문화소외계층 섬 주민에게 우리고장 문화유적 답사 기회를 제공 • 답사지 : 성주사지, 무량사 등
18	어르신문화학교	기간 : 5월 ~ 12월 과목 : 은빛풍물예술단 운영 참여 : 60명	신명나는 사물놀이를 통해 생활 속의 기쁨과 희망을 담아내며 몸과 정신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 마련 • 오천면 강사: 이환우 • 청라면 강사 : 김재중
19	문화학교 운영	과목 : 서예, 한국화, 서각, 일본어, 가야금, 민요, 한문, 문인화, 기타 횟수 : 년 중 주 1회 참여 : 2,000명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강좌 운영
20	애향지 발간	발행 : 12월 20일 발행부수: 1,200부	보령시내 향토사료 발굴 및 발간하여 내 고장의 문화를 알림.
21	보령문화마당 발간	발행 : 6월 30일 12월 30일	• 목적 : 문화원 사업 및 향토소식들을 정리하여 문화원 회원 및 시민에게 정보 전달.
22	「마지막 보부상 육군상무사」 발간	발행 : 12월 20일 발행부수: 1,000부 저자 : 황의천	우리나라 마지막 보부상 유적이 있는 죽림리에는 보부상들의 문서, 공동묘지, 본부로 사용되던 건물, 많은 토지 등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적 이 사장(死藏)되고 있기에 보부상 유적을 연구 조사하여 책자를 발간 하므로써 학계에 소개하고 보존의 기초자료로 활용
23	「보령 석재산업 300년」 발간	발행 : 12월 20일 발행부수: 1,000부 저자 : 황의호	보령 석재산업의 300년 역사와 발전과정을 밝혀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보령석공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보령시민의 자긍심을 높임



○ 일시 : 2012. 5. 30 ○ 장소 : 논산시 일원

문화유적답사



3.1만세 항일 애국지사 추모식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우리 고장 바로 알기 강좌



추석맞이 전통민속체험



한내동 다리밟기

2012년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제7회 전국 백제토기 물레경연대회	기간 : 2012. 10. 3 / 10. 7 장소 : 구드래광장 참여인원 : 130명	전국 도자(도예)관련 전공 대학생 백제토기 물레경연대회 및 일반인 아마추어 토기만들기대회 실시
2	어린이 역사교실	기간 : 2012. 4. 22~12. 30 장소 : 전국 주요 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80명	군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월1회 사적 답사 및 문화체험
3	제10회 시인 신동엽 추모 백 일 장	기간 : 2012. 4. 19(목) 장소 : 구드래 조각공원 참여인원 : 504 명	우리고장 출신인 신동엽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충남도내 청소년 대상 백일장
4	교사를 위한 문화유산순례강좌	기간 : 2012. 1. 6~1. 7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40여명	군내 초중고 교사의 향토사 연구를 위한 문화유적 현장 답사
5	문화현장탐방교육	기간 : 2012. 3. 16~12. 30 장소 : 전국문화현장 참여인원 : 240명	문화원 회원의 교양증진을 위한 국내 주요유적지 답사 및 문화체험 (전남지역, 서울경기지역, 충남지역 답사)
6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한아름교실 (우리는 문화가족)	기간 : 2012. 3. 24~12. 15 장소 : 전국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240여명	가족단위 국내 주요 사적답사, 자연체험, 전시회 관람 등 문화체험 활동 전개
7	2012 명사와 함께하는 백제역사문화탐방	기간 : 2012. 4. 7~11.30 장소 : 군내 주요유적지 참여인원 : 615명	관광객을 대상으로 명사와 함께하는 관내 주요문화유적답사 및 문학기행 (유홍준, 김용택, 박상진 등)
8	우리땅 우리역사 바 고 알 기	기간 : 2012. 12. 22~12. 23 장소 : 강화도 답사 참여인원 : 40명	군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국 주요 문화유적지 탐방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9	구드래공원 달빛음악회	일시 : 2012. 8. 4(토) 장소 : 구드래 야외무대 참여인원 : 300여명	구드래 공원 달빛 음악회를 개최하여 부여를 찾은 관광객들의 한여름 밤 추억 만들기 기회 제공
10	우리는 꿈을 짊어 예술가 '사각프레임 안에 세상을 담다'	일시 : 2012. 9. 8 ~ 11.17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160명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관내 초등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다양한 사진을 찍고 글쓰기 및 작품전시회를 하는 문화예술 교육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1	스토리텔링과 함께하는 문화유산탐방	일시 : 2012. 10. 13~11.25 장소 : 부여관내 유적지 참여인원 : 187명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청소년 및 가족단위의 관내 주요 유적지를 답사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줌
12	제10회 부여서동 연꽃 축제	일시 : 2012. 7. 26~7. 29 장소 : 궁남지(사적135호)일원 참여인원 : 30만여명	서동탄생설화가 있는 궁남지에 연꽃축제를 개최함으로 관광객을 증진하는 관광문화축제 메인프로그램 3종, 공연프로그램 4종, 경연프로그램 3종, 상설프로그램 24종(전시, 체험) 등 다채롭게 운영함.
13	제10회 홍산대첩 문화제	기간 : 2012. 4. 18(수) 장소 : 홍산면 태봉산성 참여인원 : 1천여명	고려시대 왜적격퇴의 3대 승리인 홍산대첩을 주제로 한 전통문화 복원을 위한 지역향토축제 (홍산대첩제 제향 및 문화행사)
14	출향인사 및 출향공무원 백제역사문화탐방	기간 : 2012. 1. 1~12. 30 장소 : 부여군 문화유적 참여인원 : 100명	우리고장 출신인 중앙부처 공무원과 우리군과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관내 문화유적 답사
15	2012 백제역사문화 탐방 시티투어	기간 : 2012. 3. 10~11.25 장소 : 부여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53회(1,387명)	매주 토요일일요일 정례적으로 투어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백제왕도 이미지를 부각함
16	부여의 군수현감 조사 발간 사업	기간 : 2012. 6. 1~12. 30 장소 : 부여문화원 발간부수 : 1,000부	조선시대 부여군에 재직했던 역대군수와 현감의 성명, 재직기간, 치적 등을 조사발굴하여 책으로 발간함으로써 지역 역사복원에 기여함
17	우리문화 즐기기 (향교! 체험을 만나다.)	기간 : 2012. 10. 14~12. 16 장소 : 부여향교 참여인원 : 275명	전통 유교문화의 상징인 향교에서 매주 일요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향교를 현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킴.
18	부여의 스토리텔링 (전설) 발굴조사	기간 : 2012. 3. 2~12. 30 장소 : 부여문화원 발간부수 : 700부	부여군내에 전승되어 오고 있는 스토리텔링(전설)에 대한 조사보고서 발간
19	금강(錦江), 그리고 흙과 삶	기간 : 2012. 9. 8~11. 11 장소 : 백제보(금강문화관) 참여인원 : 1,593명	2012 강변문화관 주말체험프로그램으로 백제토기만들기를 비롯하여 염색체험과 민화그리기 체험을 실시하여 금강문화관을 찾는 관광객에게 전통문화와 물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20	신년교례회	기간 : 2012. 1. 2. 장소 : 사비마루 참여인원 : 400여명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신년세배, 축하행사, 신년교례회 명부등 발간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21	신동엽 시인 홍상건립	기간 : 2012. 7. 19(목) 장소 : 신동엽 기념관	정부로부터 2005년 4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신동엽 시인의 홍상을 성금을 모아 문학관에 건립함.
22	관광정보센터운영	기간 : 2012. 1. 1~12. 31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8,000여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에게 관광정보 제공, 유적지 현장설명 등 실시



명사와 함께하는 백제역사 탐방



문화현장 탐방 교육



10회 부여 서동 연꽃축제



10회 시인 신동엽 백일장



향교 체험을 만나다

2012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직암문집발간	발행부수 : 500부	직암 이철승 선생의 유고집 「직암집」 발간
2	문화가족 한마당	일시 : 11. 7 장소 : 서산문화원 인원 : 200명	문화회원 및 문화가족을 초청하여 문화공연 개최
3	문화유적 현장학습	일시 : 4.17~20 장소 : 중국 위해, 연태, 용안항 인원 : 15명	서산과 항로개설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 용안항 방문
4	서산문화대상 시상	시상식 : 11. 28 수상자 : 안종미(국악)	서산지역 문화예술 공적이 있는 분을 심의를 통해 심사하여 시상
5	청소년문화상 시상	시상식 : 11. 28 수상자 : 초, 중, 고등학생 총 4명	효행, 예행, 선행을 실천한 학생을 심사하여 시상
6	지역문화학교 운영	상반기 : 3~6(4개월) 하반기 : 9~11(3개월)	서산시민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수업 종료후에는 수료식, 발표회, 전시회를 개최함.
7	성년례	일시 : 5.21 장소 : 한서대 대상 : 한서대 학생	성년을 맞이하는 20세 성인을 대상으로 전통성년례를 개최
8	문화예술동아리육성	대상 : 한국화 교실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동아리로 육성
9	스산의 숨결발간	발행부수 : 2,200부 매월 월간지 발간	회원 및 전국문화원, 출향민을 대상으로 서산문화원보 '스산의 숨결'을 발송(1983년부터~지금까지)
10	청소년문학제	백일장일시 : 4.14 장소 : 서산문화원 일대 시상일 : 5.24 수상자 : 77명	서산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일장 개최
11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일시 : 10.4 장소 : 공주 금강둔치 인원 : 38명	서산지역 대표를 이끌고 충남도지사배민속대제전에 출전하여 전통민속경기를 함
12	노인일자리사업	일시 : 3~11월 참여인원 : 40명	60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육교사도우미와 교육강사를 파견하는 일자리 제공사업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3	평생학습우수 프로그램	일시 : 9~11월 장소 : 서산문화원 인원 : 80명 내용 : 가베, 북아트, 클레이, pop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교육함
14	전통음식체험	일시 : 6.4~25(총6회) 장소 : 서산요리학원 인원 : 144명	엄마와 아이가 함께 우리 전통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전통음식의 우수성이 가족간 화합을 도모함.
15	어르신문화학교	일시 : 6~8월 인원 : 40명 장소 : 서산문화원 교육내용 : 짚풀공예, 한지공예	60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한지공예, 짚풀공예)과 답사를 시행하여 문화생산자로서 가치를 높임
16	템플스테이 플러스원투어	일시 : 6~12월 장소 : 부석사, 서광사 인원 : 180명	서광사와 부석사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서산의 관광자원과 볼거리를 제공
17	서산의 옛사진 공모전	공모기간 : 4~6월 시상일 : 8.3 수상자 : 50명 총상금 : 1,000만원	1980년대 이전의 옛사진을 공모하여 시상하고 역사적 자료로 보관함
18	명사와 함께 하는 고향여행	일시 : 4~8월(총5회) 장소 : 아라메길, 개심사 등 인원 : 520명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명사와 함께 아라메길을 걸으며 서산의 관광지와 아라메길을 홍보함
19	우리문화 즐기기	일시 : 8~8월 (1박 2일 2회, 당일1회) 장소 : 김기현 가옥, 해미읍성, 마애삼존불상 인원 : 120명	가족단위로 서산지역의 전통가옥을 찾아가 전통한옥의 멋과 전통문화를 체험함
20	지역문화특성화사업 자료집	발행부수 : 500부 QR코드 표지판 : 12개	황금산당제에 대한 학술조사 및 자료집을 발간 황금산 학술조사를 바탕으로 황금산 등산로 일대에 QR코드 표지판을 제작
21	정인경 학술발표회	일시 : 11.30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 인원 : 100명	서산이 한국 성리학의 발상지가 되기 위한 학문 연구로 양렬공 정인경과 정신보에 대해 학문적 고찰과 연구결과를 발표함
22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일시 : 10.5~7 장소 : 서산해미읍성	서산해미읍성에서 조선시대 역사체험을 해볼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23	서산시 평생학습발표회 (전시회)	일시 : 9.17~19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 내용 : 문해백일장 수상작, 우수동아리 작품전시	서산시 문해백일장 우수작품과 관내 우수동아리 작품들을 모아 전시함



문화학교(전통무용)



문화학교(난타)



1회 서산 옛사진공모전 시상식



문화학교(소묘)



문화가족 한마당



어르신문화학교 문화답사

2012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제13회 기벌포 대보름제	일시 : 2012. 2. 6 장소 : 마산면 진다리 인원 : 300명	보름음식나누기, 달집태우기 등 대보름행사를 마을과 연계하여 마을주민들과 서천군민들과의 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고 참여함.
2	어르신 동아리 활성화 사업	일시 : 2012. 4.~11. 30 장소 : 서천문화원 인원 : 20여명	어르신 동아리로 내포제 시조 및 판소리 동아리를 운영하고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를 열어 어르신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	청소년 제12회 신석초 백일장	일시 : 2012. 11. 29. 장소 : 서천문화원 인원 : 270여명	서천문화원에서 38년동안 이어져 오는 전통있는 행사로 해마다 250여명이 참여하여 백일장 기량을 겨룸
4	청소년 회화 및 문인화 (붓글씨) 대회	일시 : 2012. 12. 10 장소 : 서천문화원 인원 : 200여명	초등부, 중·고등부로 대회를 실시하여 심사 후 대상 및 최우수, 우수 및 장려상으로 상장과 상품(도서상품권)을 50여명에게 수여함.
5	학술연구사업	기간 : 2010.5.6~2012.11.30 용역 :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부수 : 10부	신광하(진택)의 문집 "진택집" 번역을 충남대학교 한문학과 이항배교수에게 의뢰하여 번역 자료집 10부를 납부함.
6	전시사업	일시 : 2012.12.19~23(5일간) 장소 : 서천문화원 인원 : 500여명	제9회 서천문화원 작가 초대전을 공모하여 응모된 작가를 선정 작가 초대전 전시회를 지원함.
7	문화교육프로그램사업	일시 : 2012. 1월~12월(연중) 장소 : 서천문화원 인원 : 각 20여명	서천문화원 문화교육프로그램으로 서예,문인화교실, 기타교실, 오카리나, 색소폰, 난타, 역사강좌를 운영함.
8	공연사업	일시 : 2012. 12. 21 장소 : 서천문화원 인원 : 200여명	서천문화원 문화교육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익힌 기량을 발표하는 장을 마련하고 출연팀을 섭외하여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음악회로 진행함.
9	문화유적답사	일시 : 2012.10.~12. 22(3차례) 장소 : 서울 학국의집, 세종시 인원 : 140여명	문화유적답사로 학술연구(신광수)행사 답사로 서울 한국의 집과 문화유적답사로 세종특별자치시 일대를 답사함.
10	문화지 발간	일시 : 2012. 11~12. 31 장소 : 서천문화원 인원 : 5명 발행부수:300부	문화지 발간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천문화원 소식지로써 문화, 예술, 역사 등 다양한 소재로 기획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지로 발간함.



문화학교(기타)



내포제시조 경창대회



뷰티파워 발표회



석북신광수 탄생 300주년

2012년 세종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새해맞이특별공연	일시 : 2012.01.03 장소 : 연기군민회관 대강당 인원 : 300명	새해맞이 특별공연을 통한 연기군민의 화합단결의 자리 마련
2	대보름맞이웃놀이대회	일시 : 2012.02.11 장소 : 연기군민회관 소강당 인원 : 60명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웃놀이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인의 화합의 장 마련
3	나가보 전시회	일시 : 2012.03.13 장소 : 연기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인원 : 100명	세종시 출범과 함께 문화원 임원 및 대의원들의 새로운 각오와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 전시
4	연맥서화전시회	일시 : 2012.04.19 장소 : 연기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인원 : 300명	예향연기의 맥을 잇는 순수서예인들의 뜻을 같이 하여 주옥같은 작품을 모아 전시
5	백제대제	일시 : 2012.04.15 장소 : 비암사 인원 : 200명	제례(역대왕 및 충령) 군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
6	독락문화제	일시 : 2012.04.22 장소 : 독락정 인원 : 200명	고려 말 불사이군의 절의를 지킨 전서공 임난수 장군의 충정심을 기리기 위한 문화제
7	어르신 노래자랑 대회	일시 : 2012.05.31 장소 : 연기군민회관 대강당 인원 : 200명	연기군내 65세이상 어르신들의 노래자랑
8	효자효부 표창	일시 : 2012.05.31 장소 : 연기군민회관 대강당 수상인원 : 8명	8개읍면 대상으로 읍면장 및 학교장 추천을 받아 표창
9	성년의 날 행사/ 우리들의무대공연 한마당	일시 : 2012.06.01 장소 : 세종고등학교 웅지관 인원 : 150명	성년을 맞은 학생들에게 전통방식으로 성년례 행사를 치룬후 고3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풀기위한 그들만의 무대를 준비하여 공연을 펼침
10	세종시출범 축하 한마당 축제	일시 : 2012.07.02 장소 : 세종시민체육관 인원 : 1,000명	세종시에 새롭고 더 나은 날을 가져다 줄 것을 믿고 시민의 공감대 확산 및 시민화합의 장 마련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1	세종시출범 락페스티벌	일시 : 2012.06.27 장소 : 세종시문화예술회관 인원 : 1,000명	세종시 지역 락밴드(고대·흥대 락밴드, 의사밴드, 연기밴드)로 하여금 잔치 분위기를 돋고 초청가수인 "김경호"와 락과의 만남을 갖고자 한다. 또한 락 밴드 출신 로맨틱펀치 참여로 행사분 위기를 업그레이드 함.
12	제11회 연기대첩제 및 제2회 청소년백일장 사생대회	일시 : 2012.10.20 장소 : 연기대첩공원 인원 : 450명	우리나라 7대첩 중 하나이며, 국난극복의 충신을 기리는 제례 행사 및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 개최
13	인간문화재 강정숙선생님과 함께하는 세종제자 가야금 발표회	일시 : 2012.11.30 장소 : 조치원여자고등학교 예지환 인원 : 300명	인간문화재 강정숙선생님과 꿈나무들이 함께 하는 가야금 공연
14	제5회 동아리발표회	일시 : 2012. 12.07 장소 : 세종시민회관 인원 : 300명	세종문화원내 각 동아리별로 공연발표 및 작품 전시회 개최
15	연기문화예술인의 밤	일시 : 2012.12.21 장소 : 세종시민회관 인원 : 200명	연기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예술 발전방안 모색코자 함
16	세종시문화탐방	일시 : 2012.09~10(5회) 장소 : 세종시 인원 : 250명	세종시는 세계적 명품도시로 건설 계획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이나 아직까지 이주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이 존재하여 세종시의 매력 포인트를 정확히 알려 함께 하는 분위기 조성
17	세종소식지 발간	기간 : 2012.01~12월(4회) 부수 : 8,000장	세종소식지를 발간 배부하여 문화원을 홍보함
18	연기군의 뿌리를 찾아서II	기간 : 2012.01~12월	세종시로 잊혀진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 성씨를 조사하여 책으로 편찬함
19	위풍당당 나눈야 노인운동지도사	기간 : 2012.08~12월 장소 : 세종시내 인원 : 100명	흥겨운 음악에 맞춰 노인운동과 레크리에이션 교육을 통하여 운동반 운영
20	세종시민대학	기간 : 2012.04~12월 장소 : 세종시내 인원 : 1,200명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세종시민들에게 정보지식 습득과 교양지식 제공
21	문화학교운영	기간 : 2012.01~12월 장소 : 세종문화원 인원 : 350명	다양한 문화 강좌 교육(서예,민화,사군자, 요가, 스포츠댄스, 영어, 중국어, 바리스타, 풍물, 경기민요, 남도민요, 풍수지리, 다도, 한국무용



세종단오제



세종단오제



나기보 전시회



세종 시민대학



세종시 출범 축하한마당축제



세종시 문화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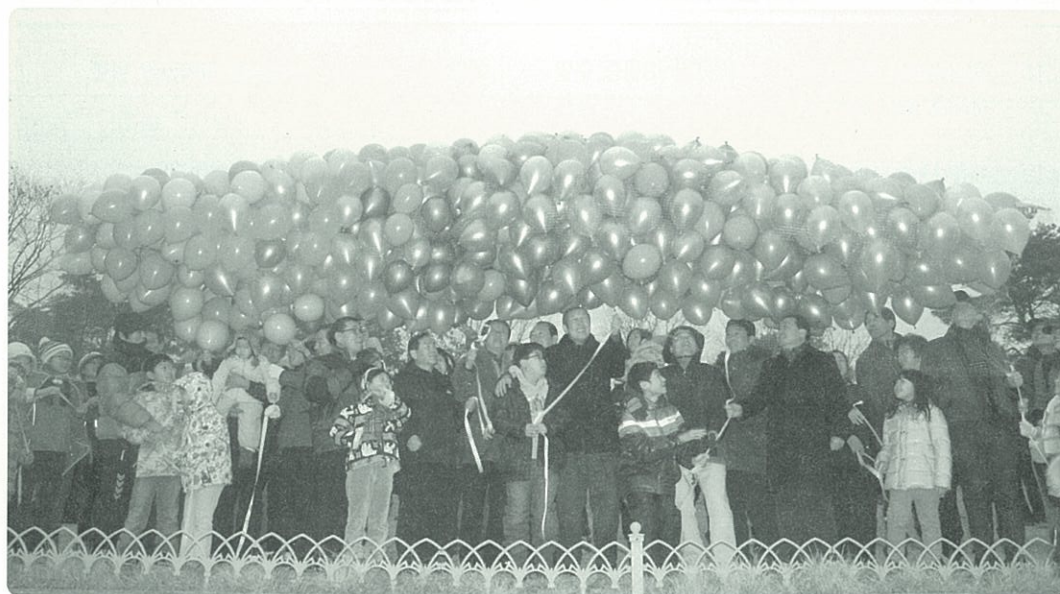


11회 연기대첩제

2012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제5회 예당호 해맞이	일시 : 2012년 1월 1일 장소 : 예산군 예당호 인원 : 2,000명	예산군 예당호에서 새해 해맞이를 통해 예산군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
2	2012 예산군 신년교례회	일시 : 2012. 1월3일(화) 장소 : 예산읍소재 한일플라자 인원 : 300명	예산군 각급 기관단체 및 출향인사들의 신년 인사회 개최
3	2012 문화답사	일시 : 년중 4회 장소 : 전국 문화유적지 인원 : 200여명	전국의 문화유적지 답사
4	2012 전통 마을 동제	일시 : 연중 장소 : 예산군내 7마을 인원 : 700명	예산군내 마을동제의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7곳마을의 동제 지원
5	문화학교 사업	일시 : 연중 장소 : 예산문화원 인원 : 350여명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프로그램 14개 프로그램 운영
6	2012 향토사대중화사업	일시 : 6월~9월 장소 : 예산군 문화유적지 인원 : 초등학교 20명	문화유적 탐방을 통한 어린이 역사신문 만들기
7	2012어르신 문화학교	일시 : 연중 장소 : 예산문화원 인원 : 60여명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종합예술단이라는 명칭으로 색소폰,노래교실,pop예쁜글씨등 프로그램 운영
8	우리문화한발 더다가기 (내포역사문화강좌)	일시 : 6월~8월까지 매주1회 장소 : 예산문화원 인원 : 30여명	예산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지역의 숨겨진 문화유적을 돌아보고 지역의 문화유적을 재발견하는 프로그램
9	충청남도 예산말 사전 발간	일시 : 연중 발행부수 : 1,000권	충청남도 예산지역의 방언을 모아 사전형식으로 발간한 서적으로 전국의 방언연구를 위한 향토서적
10	예산문화 45호,46호 발간	일시 : 상,하반기/년 발행부수 : 각 700권	상,하반기 발간되는 원보로 예산지역의 문화활동상황을 종합한 종합 문예지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1	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예당호 호반 콘서트	일시 : 7월~8월중 주말 장소 : 예당호 조각공원 무대	예당호를 배경으로 한여름밤 지역민을 위한 콘서트 개최
12	대흥임존성 백제 부흥군 위령제 및 청소년 병영체험	일시 : 2012년 11월 10일 장소 : 사적90호 예산군 대흥 임존성	백제부흥운동의 마지막 결사항전지인 대흥임존성에서의 백제부흥군 위령제 및 청소년 병영체험행사
13	호롱불 문화체험단	일시 : 2012년 8월~10월중 매주(토,일) 장소 : 예산군 추사고택	추사김정희선생 고택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고택체험으로 매주 토,일요일을 활용한 1박2일 호롱불 문화체험단 운영
14	제14회 추사김정희선생 추모 전국 청소년 회화대회	일시 : 2012년 10월 13일 장소 : 예산군 추사고택 상격 :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전국의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예 회화대회 개최
15	제23회 추사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회화대회	일시 : 2012년 10월 14일 장소 : 예산군 추사고택 상격 : 장원(국무총리상) 특별상(국회의장상)	전국의 서예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대규모의 서예 회화대회 개최
16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문화교류 (제주도문화교류전)	일시 : 2012년11월16일~18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시	예산군과 자매결연도시의 문화예술인들의 문화공연등 향토문화 상호교류
17	내포영산대제 영상 기록화사업	일시 : 2012년 연중 장소 : 예산군 삼교읍 법륜사 일원	청남도 무형문화재 제40호인 내포영산대제를 충 정리 기록화 사업
18	일제시대 항일 문예잡지 "문예광" 복원사업	일시 : 2012년 연중 장소 : 예산문화원 저자 : 이재인외 2인	국내 1권만 남아있는 일제시대 예산지역의 항일 문예잡지인 "문예광" 복원 발간 사업
19	예산군 성년례	일시 : 2012년 12월7 일 장소 : 예산예화여자고등학교 대상 : 예산읍관내 고3학생 160여명	예산군 관내 대학진학 및 사회진출 초년생인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년례 진행
20	내포답사1 다시예산을 이야기하다 문하유적기 발간	일시 : 연중 장소 : 예산군 일원	예산군내 문화유적을 답사하고 기록한 예산군 문화유적 답사기 발간



예당호 해맞이



21회 대백제 부흥군 위령제



신년교례회



성년례

2012년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신년교례회	일시 : 1월 2일 인원 : 200명 장소 : 온양그랜드호텔 대상 : 관내 기관장 및 대표	새해를 맞아 건강을 기원하고 업무협조 체제 구축 신년교례회 수첩배포
2	4.4 아산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일시 : 4월 4일 인원 : 500명 장소 : 선도중학교 및 기미독립무인 멸왜기념탑 대상 : 각 기관단체장 및 초·중학생	학생과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 및 전문 극단의 현장감 있는 독립만세운동 퍼포먼스를 통하여 아산지역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됨
3	6.25사진전	일시 : 6월 20일~25일 장소 : 관내 학교 및 신정호수공원, 평생학습관	6.25전쟁당시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100여점을 순회하며 전시한다. 전쟁사진 기획전시는 사전에 전시회 신청을 받아 20일 온양용화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아산중학교를 순회하며 전시를 하였고, 아산청년회와 신정호수 공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전시를 하였다. 6.25전쟁사진 전시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당시의 사진을 통하여 6.25 전쟁의 참상을 바로 알리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4	제13회아산청백리상 및 제14회 어린이맹사성상	일시 : 10월 11일 인원 : 100명 장소 : 온양문화원 3층 대강당 대상 : 수상자 및 아산시민	고불 맹사성의 청백리 정신을 기리고자 아산청백리상(3개 부문) 및 어린이 맹사성상(5개부문)을 선발하여 시상함
5	제6회 맹정승골든벨을 울려라	일시 : 10월 14일 인원 : 110명 장소 : 선도중학교 대상 : 선도중학교 학생	지역 학생들의 역사인식 고취를 위해 실시되는 행사로 맹사성 관련문제와 아산관련 역사문제 풀이를 실시하여 지역문화 바로알기에 기여함
6	문화탐방	기간 : 4월~11월 인원 : 연인원 500여명 장소 : 서산시(마애여래삼존불상, 개심사, 해미읍성), 춘천시(김유정 문학촌, 신승검묘소, 청평사), 여주시(진남관, 여수세계박람회),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문화탐방을 실시하여 지역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배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의식 고취에 기여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6	문화탐방	서울 송파구(한성백제박물관, 한국문화원 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서울 송파구(한성백제 박물관,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송파나루 삼전도비), 강릉시(강릉ICCN세계무형문화 축전, 오죽헌, 하슬라아트월드), 인천시(강화역사박물관, 초지진, 전등사, 소래포구) 대상 : 아산시민	
7	환경체험프로그램	기간 : 5월~11월 인원 : 연인원 140명 장소 : 문화원 및 관내 숲 대상 : 관내청소년	재활용 목재를 활용하여 새집을 만들어 직접 달아주는 체험을 함으로서 청소년의 자연보호 정신을 고취시킴.
8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생활양식 속의 모더니즘)	• 세라믹도자기 기간 : 7/18~8/14 인원 : 20명 대상 : 아산시민 • 생활예절다도 기간 : 8/21~9/18 인원 : 20명 대상 : 아산시민 • 전통미술 사군자 기간 : 9/25~10/23 인원 : 20명 대상 : 아산시민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하여 폭넓은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산실로 육성 발전시켜 나감.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한 문화적 감성개발 및 시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9	문화학교	과목 : 짚풀공예 일시 : 1월~12월 장소 : 온양문화원 대상 : 아산시민 인원 : 120여명	농사를 짓고 나서 얻은 부산물인 벼짚과 보리 짚 등을 이용하여 짚신, 삼태기, 망태 등 생활용품을 만든다. 벼짚을 이용한 공예는 우리 민족만큼 치밀하고 가지 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민족이 없음. 추수가 끝나고 다시 봄이 올 때까지 새끼를 꼬고 멍석을 엮고 가마니를 짜고 짚자리를 매었음. 짚풀 공예는 물질문명의 발달과 변화로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으나 현재 우리 문화원에서는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음.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0	찾아가는 어르신 짚풀 문화	일시 : 7월~11월 인원 : 580여명 장소 : 경로당, 복지관, 요양원, 학교, 어린이집	사라져 가는 전통공예를 보존하여 새로운 짚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노인 여가활동을 생산적이고 건전한 생활로 치매예방과 전문인력 양성을 하며 전통과 현대공예의 보존 및 전승 함양 문화로부터 소외된 지역 노인들에게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통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전통공예 문화 보급을 위한 계기 마련
11	향토민속발굴사업 (토정 이지함의 삶)	기간 : 6월~12월 장소 : 온양문화원 발행부수 : 2,000부 발행예정	아산지역의 백성 구제와 구국의 방략을 실천했던 토정 이지함 선생의 발자취 및 위대한 업적과 흔적을 조사하고 발굴하여 그 분의 일대기에 관한 토정 이지함의 삶을 발간 교육 자료 및 문화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함.



4.4 아산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6.25 사진전



문화탐방



6회 골든벨을 울려라



찾아가는 어르신 짚풀문화



환경체험프로그램

2012년 천안시동남구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아우내봉화축제	일시 : 2012. 2. 29. 장소 : 사적관리소 인원 : 3000여명	유관순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3.1운동정신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2	제28회 단오축제	일시 : 2012. 6. 26 장소 : 병천면 공영주차장 인원 : 2000여명	전통민속행사로 매년 행해지고 있는 지역민들의 전통축제로 단오의 의미를 되새김.
3	제38회 백일장 및 사생대회	일시 : 2012. 9. 28 장소 : 사적관리소 인원 : 700여명	유관순열사추모제를 맞이하여 참가한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우고, 순국선열들의 혼을 기림.
4	천안시동남구지역 특별기회도서발간	일시 : 2009년 ~2012년 발간인물 : 김시민장군, 조병옥박사, 이동녕선생, 박문수어사 발간부수 : 1000여권	천안시동남구지역의 위인을 만화책을 접하기 쉽게 발간하여, 지역인물들의 역사를 되짚어봄.
5	문화강좌	일시 : 2012.3월~2012.12월 장소 : 문화원 인원 : 100여명(8개강좌)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강좌를 통해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을 통한 문화공유.
6	제68회 백전민속문화제	일시 : 2012. 9. 15 장소 : 돌모루씨름장 인원 : 1000여명	가전리 지역에서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씨름대회 및 줄다리기행사로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냄.



아우내 봉화축제



28회 단오축제

2012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문화학교	기간:1.2~2.1 장소: 청양문화원 수료인원:66명 기간:7.30~8.24 장소:청양문화원 수료인원:68명 기간:10월~12월 장소:청양문화원	동계청소년문화학교 -음악난타교실 -미술교실 -종합공예교실 -댄스스포츠교실 -음악줄넘기교실 (계5강좌) -영화상영(무료) 문화적 기반시설이 미약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학기간중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함으로 청소년 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방학을 보낼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 마련 수료식때 강좌별 발표회 시간을 가져 문화학교 수업기간동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참여 유도 하계청소년문화학교 -음악난타교실 -종합공예교실 -방송댄스교실 -음악줄넘기교실 (계4강좌) -영화상영(무료) 하반기문화학교 연극교실 -진실성, 나만의공간, 화술, 감정, 그때 그시절, 캐릭터만들기, 리허설, 동작선만들기, 드레스리허설
2	칠갑문화 축 제 칠갑산장승공원	일시: 4.27(금)~4.29(일) 장소:치천백세공원 참석인원:30,000여명 부대행사	본행사 -개막식및축하공연(열린콘서트) -제1회 전국제기차기 대회 -칠갑문화노래열전및초청가수공연 -칠갑산벚꽃길 건강걷기대회 -칠갑산장승대제 -장승깨기시연 -마을장승제시연 -가족장승깨기 -학생그리기대회 -소원성취기원문달기 -소지울리기 -윤금선무용단 초청공연 -청양문화원 국악팀공연 -미술공연, 풍물공연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페이스페인팅 -가훈써주기, 사진전시회 우리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한국제일의 장승문화 보존지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칠갑산을 연계한 관광문화 축제로 육성
3	문화회원 유적지 순례 제1차	일시:5.11 참여인원:32명 순례장소 :경남 합천 해인사	유적지순례를 통해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접체험하며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
	제2차	일시:11.9 참여인원:28명 순례장소 : 목포 유달산 및 노적봉 영광 불교최초도래지	
	제3차	일시:11.30 참여인원:60명 순례장소 : 전북 진안 마이산 전북 익산 미륵사지	
4	지역사회 교 육	일시:12.13 장소:서울 N타워 투어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5	청소년 역사체험 순 려	1차:10.27(28명) 2차:11.3(95명) 순례장소: 전주한옥마을, 전주 자연생태체험관	옛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애항심을 고취시키며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줌으로써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있다. 1차 : 청양초등학교 2차 : 청신여자중학교 청양중학교
6	문화가족 동아리 운영	기간:4월~12월 장소:문화원 3층 일시:7.28 장소: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일시:11.27(18명) 일시:10.28	한국무용강습 -문화나눔봉사활동 금빛무용단 한사랑 음악회 -노래모임 한사랑 향토사연구위원 조사활동 -익산 : 미륵사지 -전주 : 한옥마을 -부여 : 역사재현단지 청양향토사연구회 임실로 떠나는 치즈여행(체험)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장소:임실치즈테마파크 참여인원:41명 일시:11.24 장소:온양민속박물관 외암마을 기간:1월~12월 장소:감리교회 기간:10.24~10.26 장소:문화원전시실 기간:11.16~11.18 장소:문화원전시실 기간:1월~12월 장소:문화원 3층 일시:11.23 장소:문화원 3층 기간:연중 장소:문화원 2층	문화학교 수료생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청양문화유적지킴이 색소폰 교육 및 정기연주회 청양색소폰 제10회 청양서우회전 청양군 서우회 제18회 청양칠갑사진회 회원전 청양칠갑사진회 통기타 교육 통기타동아리 "소리여울" 제10회 청양군 바둑대회 청양군 바둑협회 민요수업(가야금, 장구, 민요) -칠갑문화축제 공연 소리사랑예술단 풍물교육 청무풍물패 칠갑미술전 청양군 미술협회 정산 풍물교육 정산 풍물동아리 정산 서예교육 정산 서예동아리 한국춘란전시회 청양난우회 풍물교육 비봉동아리 가람풍물단 운곡주부풍물교육 운곡주부풍물단 색소폰 교육 칠갑색소폰 한땀각시 규방공예전시회 한땀각시규방공예
7	애항운동	일시:12월중	내고장 문화알리기 -상호교례 출향. 문화예술인 초청 (칠갑문화 필진)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8	송년음악회	일시:12.10 장소: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송년음악회 초청 : 가수 조항조 하울담 공연 문화가족동아리공연 -소리사랑예술단 -금빛무용단 -칠갑색소폰 -운곡주부풍물단
9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간:5월~12월 장소:문화원 3층	무용교육 문화나눔봉사 지역문화축제 참여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10	애국지사 학술대회	일시:12.7 장소: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성헌 임한주선생과 덕명의숙 학술세미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11	발간사업	발행부수:1,000부 발행일:12월 향토민속발굴	내고장문화유산 교육자료 발간 칠갑문화 22호
12	문화코너 운영	기간:년중	자료열람실(전국향토사료집 및 일반도서)운영 영화감상교실 운영 영화 및 음악감상을 통한 청소년들의 취미생활과 정서교육에 기여
13	향토사료관 운영	기간:년중	향토사료전시관 역사인물관, 문화재관, 영상실 생활문화관, 민속 및 종교관 운영 민속사료를 통하여 옛 선인들의 지혜와 당시의 생활방식등을 알수 있는 계기마련
14	사이버문화원 운영	일시: 년중	홈페이지 주소: cheongyang.cult21.or.kr 문화소식 청양의 역사소개 축제/행사 참여마당 등 각종 지역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지역문화 및 지역 정보센터로 운영함.



임시총회



바둑대회



임실로 떠나는 치즈여행



장승대제



칠갑문화축제



10회 청양 서우회전



칠갑문화축제

2012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당제전승·보전	일시 : 2월 5일 (음 1월 14일) 장소 : 남면 당암리, 남면 신장2리, 소원면 파도리, 근흥면 신진도리, 근흥면 가의도리, 고남면 누동리	대상 : 각 마을주민 태안지역의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의 당제행사를 계승하여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
2	이원면벚가릿대놀이시연	일시 : 2월 22일 (음 2월 1일) 장소 : 이원면 관리 1구 벚가릿대놀이 전수회관 대상 : 기관장 및 마을주민 참여인원 100여 명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정월 보름날 긴 장대를 마당 한가운데 세우고 새끼줄을 꼬아 세 갈래로 지지해 두었다가 머슴의 날인 음 2월 1일 벚가릿대를 누이는 행사로 이때 장대 끝에 매달아 두었던 곡식의 상태를 보고 한해의 풍·흉을 점치며 풍물을 치며 한해의 풍년을 기원함.
3	가족문화체험	일시 : 9월 8일 장소 : 전남 임실군 치즈마을 대상 : 가족단위 참여인원 : 84명	문화공간과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독특하고 재미있는 주말 문화체험의 경험을 제공함.
4	사이버문화원운영	일시 : 연중실시 장소 : 태안문화원 홈페이지	충청남도에서 구축된 사이버 향토지방문화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태안문화원의 문화정보를 365일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하며, 각종 자료, 동영상, 이미지 등을 빠르게 업데이트 할 수 있도 록 함. 향토유물수집병행
5	초·중 미술실기대회	일시 : 5월 5일 장소 : 문화예술회관 솔밭 대상 :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생 참여인원 : 300명	미술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발굴 및 풍경, 구성, 한국화, 경험화 등 다양한 장르로 구분하여 당일 주제에 따라 그림을 그리도록 함.
6	소성의향기 18집 발간	일시 : 원고모집 9월 30일 마감 대상 : 태안군민 누구나 참여인원 : 7여 명	지역의 향토문화자료로서, 사진으로 보는 문화원동정, 향토문화관련자료 등 지역문화를 발굴·소개함.
7	태안군 문화예술인 토론회	일시 : 12월 20일 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상 : 태안 예술인 참여인원 : 300여 명	지역문화예술인 현황과 활동사례발표,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관람,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토론, 지역문화예술정책과 방향에 대한 강연, 친교의 시간을 실시함.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8	움직이는 문화공연	일시 : 12월 6일, 12월 14일 장소 : 태안여자고등학교, 원이중학교, 태안 한마음의 집 대상 : 태안군내 소외계층 인원 : 600여 명	지역적, 사회적 여건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초청 또는 방문을 통한 무료 문화공연을 실시함.
9	지역문화 교류사업	일시 : 10월 19일 장소 : 논산 관촉사, 명제고택, 강경절갈축제 대상 : 문화가족, 문화원 임원 등 인원 : 32명	두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탐방하고 상호 교류하며 상대지역의 문화관광발전을 위한 협의
10	남면별주부 마을옹왕제 자라바위 앞	일시 : 2월 5일 (음 1월 14일) 장소 : 남면 원청리 별주부 마을 대상 : 문화가족, 지역주민 등 인원 : 80명	별주부전의 배경이 되는 남면 원청리 고유의 민속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보하고 관광이미지를 확대함.
11	해외문화답사	일시 : 5월 18일~22일 장소 : 중국 서안, 정주, 소림사, 운대산, 낙양 대상 : 문화가족 등 인원 : 15명	해외지역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다양한 견문을 넓히고, 지역사회의 향토문화발전을 위한 동기부여는 물론, 지역문화의 중요성과 향토사에 관심을 유도함.
12	태안문화원 초대전	일시 : 9월 14일~19일 장소 : 태안군문화예술회관 전시장 대상 :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인들의 교류와 지역주민들의 전시회에 대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전시회
13	태안의 민속문화 영상채록	일시 : 2012년 1월~12월 (2011년도 연장사업) 장소 : 태안군 일원	(고남누동리당제, 남면당암리당제, 원청리옹왕제, 신장리산신제, 파도리당제, 중앙대제, 신진도리당제, 가의도리당제, 벚가릿대놀이, 조개부르기제 등) 잊혀가는 태안의 당제, 마을제, 민속제 등의 민속 자료에 대한 영상채록 및 인터뷰, 문화자료 정리 보존 등
14	제21회 소성백일장	일시 : 9월 14일~9월 25일 장소 : 문화원 공모로 실시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인원 : 273명	태안문화원 계속 사업으로 태안군의 학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생활문화를 주제로 지역문화와 문학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자연과 생활문화를 주제로 시와 산문을 학교별로 접수하여 심사함.
15	지역문화학교	일시 : 3월~12월 (10개월) 장소 : 태안문화원 대상 : 문화가족, 지역주민 등 강좌수 : 6개 수강인원 : 200 여명	주 1회 강좌를 기본으로 하고 문화예술을 중심의 주·야간 강좌개설 (서각, 유화, P.O.P, 사진교실, 풍수지리, 판소리)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6	범군민 중앙대제	일시 : 2월 6일 (음 1월 15일) 장소 : 경이정 인근 대상 : 태안군민	중앙대제, 읍면대항 율놀이, 소원소지걸기, 음식나누기, 지신밟기, 민속놀이재현
17	태안군지발간	일시 : 1월~12월 (2009년부터 3개년 사업) 장소 : 태안군 일원 참여인원 : 50여 명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집필용역과 태안문화원의 자료수집을 통해서 3개년 계획으로 제작, 최종인쇄 및 발간
18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전	일시 : 10월 4일 장소 : 공주 금강신관공원 인원 : 6개 종목 40여 명 (인솔자, 관계자 포함)	충남도내 16개 시·군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우리의 전통문화 민속놀이 6개 종목에 참여해 경합을 벌여 시·군간 화합과 정제된 민속 문화를 활성화시킴.
19	도서관 및 향토자료관 운영	일시 : 1월~12월 장소 : 문화원 도서관	수집된 도서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서관을 조성하여 향토유물전시관과 함께 전국의 지역문화 자료를 언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문화관련 전문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 담당자 확보
20	태안군 어린이 동요대회	일시 : 6월 2일 장소 : 태안군문화예술회관 대강당 대상 : 태안군 초등학교 재학생 인원 : 15개팀 34명	태안군내의 어린이들의 건전한 동요문화를 정착함을 물론 본 대회를 통해서 연중 아름다운 동요를 부르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1	다문화가족 사진전	일시 : 11월 2일~7일 장소 : 태안군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대상 :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지역주민 작품수 : 17점	다문화 가정의 생활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진전시회로, 지역의 문화예술과 접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증대시키고 다문화가정의 위치도 정립시켜줌.
22	제5회 역사문화 학술발표회	일시 : 11월 2일 장소 : 태안군문화예술회관 소강당 대상 : 향토사가, 문화가족, 지역주민 등 인원 : 200여 명	매년 태안의 역사, 문화, 인물 등을 중심으로 한 주제를 통해 여러 전문가와 토론회자들이 함께 태안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널리 알리는 기회를 제공
23	향토유물 보존처리 및 패총박물관 기탁사업	일시 : 4월~7월 장소 : 태안문화원, 고남패총박물관	지역의 역사와 민속자료가 될 수 있는 향토유물을 훈증소독처리하여 고남패총박물관 수장고에 임시이관함. 기증받은 유물들의 사진촬영과 유물분류번호부여로 데이터를 작성함.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24	지역예술인 작품임대전시	일시 : 2012년 12월~2013년 6월 말 임대장소 : 태안군청 및 8개 읍면사무 소 등 대상 : 태안지역 전시단체 회원 작품수 : 55점	지역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 및 공공기관의 관심을 유도하고, 태안군민을 비롯한 관광객의 지역문화예술작품 감상기회를 제공함.
25	태안의 아름다운섬 책자발간	일시 : 3월~12월 대상 : 태안지역의 주요 유인도 및 무인도	태안지역의 섬에 대한 연구 및 소개책자 발간, 태안지역의 섬의 역사·문화·자연·지리에 대해 연구하여 정리하고, 등대 현황·관광자료·사진자료를 확보하여 250페이지 분량의 소개책자로 발간
26	가족나들이 바우처	일시 : 5월~10월 (5회) 장소 : 담양 죽녹원, 관방제림, 소쇄원, 화순 아쿠아나, 섬진강 기차마을 대상 : 태안지역주민등록거주자 인원 : 350여 명	가족과 자연, 문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문화체험을 통해서 소중한 가족의 추억거리를 제공함.
27	어르신 문화학교	일시 : 5월~12월 (8개월) 장소 : 태안문화원 강당 대상 : 지역 내 어르신들 인원 : 30여 명	민요부르기와 봉사활동을 좋아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민요를 체계적으로 배워 자신감을 가지고 전문 공연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며, 민요를 통해서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함.
28	읍면향토 연구회 지원	일시 : 8월~12월 장소 : 관내 전체 참여인원 : 16여 명 대상 : 향토사에 관심있는 태안지역 내 인사들	태안지역의 향토사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토문화연구자를 육성함. 향토문화사 책 발간
29	문화가족 건강검진	일시 : 1월 17일~18일 장소 : 태안문화원 대상 : 문화가족 참여인원 : 130명	태안지역의 문화가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사업으로 재)국민체력센터의 출장건강검진 서비스
30	내나라여행 박람회 참가	일시 : 1월 12일~15일 장소 : 삼성동 코엑스 '내나라여행박람회장'	태안지역의 전통문화 이미지를 활용한 태안지역의 관광홍보를 목적으로 전통수차체험시설을 제작하고 현장을 시연함.
31	태안군민을 위한 백화산기우제	일시 : 6월 7일 장소 : 백화산 정상 대상 : 태안군민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군에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기우제를 통한 기원을 실시함.



가족문화체험



다문화가족사진전



범군민중앙대제



움직이는 문화공연



초·중 미술실기대회



태안군 문화예술인토론회

2012년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제3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공모기간 : 1.1(일)~5.25(금)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일시 : (1) 7.5(목) 11시 (2) 7.6(금) 11시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참석인원 : 20여명	옛 홍성의 자연경관, 문화유적, 생활상, 발전상, 건조물, 골목 등 홍성과 관련된 모든 개인 소장사진 공모 실시 - 공모전 심사(1) 접수된 250여점의 사진에 대해서 5명의 심사위원이 역사성, 가치성 등에 의하여 심사 및 발표 - 공모전 시상(2)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2	2012년도 신년교례회	일시 : 1.2(월) 14시 장소 : 홍성군청 대강당 대상 : 홍성관내 기관단체장 참석인원 : 200여명	홍성의 문화발전과 화합을 위한 관내 각급 기관·사회·문화단체장들 상호인사의 자리
3	제53차 홍성문화원 정기총회	일시 : 2.24(금) 14시 장소 : 홍성문화원 3층 강의실 대상 : 문화원 임원 및 회원 참석인원 : 30여명	홍성문화원 2011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과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4	『지도 증보판』발간	발행일 : 3월 25일 발행부수 : 500부 비고 : 책자	지도는 채색필사본으로 18세기 중엽 경 천하도, 중국도, 일본도, 유구국, 동국팔도대총보, 각 도별지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도별지도는 각 군·현의 진산과 하천, 역로, 교통로 등을 표시하고 있음 각 문화원 및 관내 도서관에 배포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5	『사라지는 전통문화 I 상례』발간	발행일 : 3월 25일 발행부수 : 300부 비고 : DVD	농촌인구 감소와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점차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홍성지역 상례문화의 흔적을 기록화 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6	우리문화 알아보기 "1차 경복궁문화탐방" "2차 남한산성문화탐방" "3차 장곡주류성문화탐방"	일시 : 1차) 4.6(금) 8시 30분 2차) 9.21(금) 9시 3차) 11.28(수) 9시 장소 : 1차) 서울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2차)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행궁, 수어장대, 남한산성역사관 3차) 예산군 추사고택,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전통예산옹기전시박물관, 홍성군 장곡면 한국식기박물관, 학성산성, 조응식 가옥 대상 : 문화학교 수강생 및 가족 제공 참석인원 : 120여명	문화학교 수강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를 탐방. 현장학습을 통해 문화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 - 1차 경복궁문화탐방 - 2차 남한산성문화탐방 - 3차 장곡주류성문화탐방
7	제5회 야생화 전시회	일자 : 4.26(목)~4.28(토) 3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400여명	쉽게 접할 수 없는 야생화들을 한자리에서 보면서 봄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 마련. 새로운 식물에 대해 소개하고 알아가는 자리 제공
8	전통관례 및 계례 재현(전통성년식)	일시 : 5.21(월) 11시 장소 : 해전대학 야외무대 대상 : 해전대학 학생 참석인원 : 300여명	성인된 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지키고, 행해야 됨을 가르치는 자리로써 전통복식과 방법으로 성년식 재현.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적 책임감과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
9	문화학교 전시발표회	일시 : 1부) 5.25(금) 18시 15분 2부) 5.25(금) 19시 장소 : 1부) 2층 전시실 2부)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대상 : 문화학교 수강생 및 지역주민 참석인원 : 200여명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와 시연 및 축하공연 실시.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소통하는 자리 제공 - 1부) 작품전시회 한글서예, 도자기핸드페인팅, 도예, 서양화, 한문서예전각교실 작품전시 - 2부) 시연 및 축하공연 국선도, 검도, 요가, 아코디언, 노래교실 시연
10	2012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찾아가는 민속공예교실"	일자 : 6.5(화)~10.16(화) 20회 실시 장소 : 라온의 집, 장수원 대상 : 시설 어르신 참석인원 : 40명	짚풀공예와 박과 명아주를 재배 수확하여 만든 박공예 그리고 어르신 손글씨 등을 활용한 민속공예품 및 소품을 만들어 전시 및 판매. 잊혀져가는 농촌지역의 민속공예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와 어르신들의 삶의 질 증대와 생활의 활력소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11	2012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홍성문화나눔봉사단 - 너울물결"	일자 : 6.27(수)~11.15(목) 10회 공연 장소 : 장수원, 유일원, 사랑의 집, 아름다운 건강마을, 구항면 내현리, 홍성군청 여하정, 결성면, 서부면 속동마을, 장곡면, 광천도굴새우젓 조선김 축제장 대상 : 지역주민 및 축제 관람객 봉사단원 : 20명 참석인원 : 1,500여명	홍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들을 주축으로 하는 공연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문화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양로원, 보육원, 산간벽지, 교도소 등 소외시설 및 관내 축제장으로 찾아가는 공연 실시. 국악, 민요, 가요 등 문화나눔공연 및 영화상영을 함으로써 생생한 감동과 문화적 봉사의 의미, 좋은 문화를 함께 만들고 보급시키는 문화운동의 기반마련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2	2012 우리문화 즐기기 사업 "구산사 어린이 학당"	기간 : 7.9(월)~11.3(토) 일자 : (1) 7.9(월)~7.12(목) 4일간 (2) 8.25(토), 11.3(토) (3) 10.10(수) (4) 11.3(토) 장소 : 구항면 내현리 거북이마을 '구산사' 대상 : (1) 금당초등학교 (2) 다문화가정 및 동거부부, (3) 문화학교 수강생 (4) 홍성관내 중학생 참석인원 : 500여명	구산사 어린이 학당(1), 전통혼례식(2), 어르신생활체육프로그램(3), 전통성년식(전통관례)(4), 구산사 옛길탐사, 구산사 옛이야기 자료집 및 동영상 자료집 발간
13	제5회 홍성 옛사진 전시회	일자 : 7.16(월)~7.20(금) 5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400여명	제3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수상작 및 출품작 30여점 전시. 추억의 옛사진 전시회를 통해 홍성군민들에게 애향심과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14	제7회 여름전통문화학교	일자 : 7.23(월)~7.27(금) 5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부여, 공주 대상 : 홍성관내 초등학교 참석인원 : 40여명	인성, 예절, 역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우리문화를 올바르게 배우고 익히는 교육 및 대화의 자리 마련 - 우리고장 문화알기 - 전통예절교실, 다도교실 - 박공예교실, 단청교실 - 짚풀공예교실, 한지공예교실 - 영화감상, 문화탐방
15	2012 문예진흥기금 "여름농촌민속공예학교"	일자 : 7.30(월)~8.2(목) 4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대상 : 홍성관내 초등학교 참석인원 : 40명	조롱박과 짚풀을 이용한 민속공예품 만들기 체험과 야생화 가꾸기를 통한 자연체험 학습으로 선조들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함
16	2012 지역문화 특성화사업 "결성 옹대기놀이 기록화 사업"	일자 : 7.30(월)~11.15(목) 장소 : 결성면 형산리, 구수동, 주교 일원 대상 : 결성면 마을주민 참석인원 : 60명	잊혀져가는 민속놀이인 결성 옹대기놀이를 널리 알리고, 원형 보전과 계승을 위한 자료집과 영상물을 기록화 및 재현
17	제13회 가족과 함께하는 거리영화제	일시 : 8.2(목) 20시 15분 장소 : 홍성군청 여하정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350여명	일상에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영화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가족과 함께 좋은 영화를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 - '코리아' 영화상영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8	독도 자료 사진전시회	일자 : 8.23(화)~9.6(목) 15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800여명	독도관련 자료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독도사랑과 안보의식 함양
19	제8회 홍성내포문화축제	일자 : 9.13(목)~9.16(일) 4일간 장소 : 홍주성 일원 대상 : 지역주민 및 축제 관람객 주최 : 홍성내포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참석인원 : 15만여명	"역사를 빛낸 3.1만세운동과 청산리전투"라는 주제로 청산리전투의 영웅 김좌진 장군과 우리나라의 민족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한용운 선사를 주제로 축제 개최
20	제17회 만해제 "만해 추모다례"	일시 : 9.15(토) 11시 장소 : 만해생가지 대상 : 홍성관내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참석인원 : 100여명	만해제를 통하여 만해 한용운선사의 높은 뜻을 이어받고, 청소년들에게는 자긍심 고취 및 주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함
21	제22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	일시 : 10.4(목) 10시 장소 :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대상 : 홍성군민 주최 : 중도일보 주관 : 홍성문화원 참석인원 : 50여명	다양한 민속경기와 풍물단 공연 및 노래자랑 등의 충남도민의 민속축제 한마당에 참가 - 민속씨름, 줄다리기 - 단체줄넘기, 힘자랑 - 제기차기, 널뛰기
22	주민과 함께하는 목요영화	일시 : 매주 목요일 19시 장소 :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평균 100여명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좋은 영화를 매주 선정하여 무료로 상영
23	문화학교 강좌	일자 : 연중 운영 장소 : 홍성문화원 대상 : 지역주민 강좌수 : 15개 참석인원 : 매회 각 20여명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교육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회 제공 - 한글서예교실, 도자기핸드페인팅교실, 국선도교실 - 검도교실, 도예교실, 노래교실 - 요가교실, 댄스포츠교실, 풍수지리교실 - 아코디언교실, 문인화교실, 명리학교실, 색소폰교실, 서양화교실, 한문서예전각교실
24	음악감상실 및 향토도서관 운영	일자 : 연중 운영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음악감상실, 향토도서관 대상 : 지역주민 및 문화원 회원	문화가족 및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 감상을 위한 공간 제공. 문화원 회원들에게는 도서관의 모든 도서 및 자료(DVD, CD) 열람과 대출 제공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25	『홍성문화』171호, 172호 발간	발행일 : 연중 2회 (6월, 12월) 발행부수 : 각 1,000부 비고 : 책자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배포하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정보와 소식을 제공
26	『오서산과 석당산의 술바람길 이야기』발간	발행일 : 12월 발행부수 : 1,000부 비고 : 책자	홍성의 오서산과 석당산의 역사이야기와 전설 및 문화재 소개를 주변경관과 더불어 소개하고 있음
27	『사진으로 보는 홍성 100년사』발간	발행일 : 12월 발행부수 : 500부 비고 : 책자	홍성과 관련된 자연경관, 건물, 문화재, 골목, 생활상 등 의 옛 사진을 공모 및 수집하여 사진집 발간 개발과 발전으로 점점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홍성의 옛 모습을 기록으로 보관함으로써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우리문화 즐기기 사업



3회 홍성 옛사진공모전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충청남도 문화원 홈페이지 안내

- 충남사이버문화원 <http://www.cult21.or.kr>
공주문화원 <http://gongju.cult21.or.kr>
금산문화원 <http://geumsan.cult21.or.kr>
논산문화원 <http://nonsan.cult21.or.kr>
당진문화원 <http://dangjin.cult21.or.kr>
대천문화원 <http://daecheon.cult21.or.kr>
부여문화원 <http://buyeo.cult21.or.kr>
서산문화원 <http://seosan.cult21.or.kr>
서천문화원 <http://seocheon.cult21.or.kr>
세종문화원 <http://jochiwon.cult21.or.kr>
예산문화원 <http://yesan.cult21.or.kr>
온양문화원 <http://onyang.cult21.or.kr>
천안시동남구문화원 <http://aunae.cult21.or.kr>
천안시서북구문화원 <http://sunghwan.cult21.or.kr>
청양문화원 <http://cheongyang.cult21.or.kr>
태안문화원 <http://taean.cult21.or.kr>
홍성문화원 <http://hongseong.cult21.or.kr>

충청남도 사이버문화원 E-book 자료관 구축

문화원 발간도서, 홍보책자, 업무책자, 행사사진, 동영상 등
E-book 자료관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사이버문화원 및 도내문화원 홈페이지 하단 배너 링크”

2012 충남도내 문화원 현황

문화원명	소재지	설립일	원사총면적(평)	원장	사무국장	직원	전화/팩스
충남도지회	서산시 부춘공원 2로 11	67. 2. 20		지화장 이준호	김영철	최윤경 강현숙 이용배	T.669-5050 F.669-4567
공주문화원	공주시 대통1길 66(반죽동)	54. 12. 14	650	나태주	현대수	김민영 양문숙	T.852-9005 F.856-6746
금산문화원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68	67. 11. 18	364	김호택	안용산	전병만 석현숙	T.754-2724 F.754-6611
논산문화원	논산시 시민로 270	57. 11. 14	20	류제협	이준창	전현희 박슬기	T.732-2395 F.732-2394
당진문화원	당진시 읍내동 남산공원길 151-16	58. 4. 5	341	정정희	정제상	오미형 이필형	T.354-2367 357-2367 F.356-3850
대천문화원	보령시 동대동 983-16	62. 2. 4	287	임기석	임성빈	김병희	T.934-3061 F.936-3071
부여문화원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41	54. 3. 1	125	윤준웅	김인권	이미영 윤명덕	T.835-3318 F.833-3318
서산문화원	서산시 부춘공원 2로 11	65. 2. 11	570	이준호	김영철	최윤경 강현숙 이용배	T.669-5050 F.669-4567
서천문화원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62	65. 1. 26	301	조순희	박종훈	최신희 백정열	T.953-0123 F.953-0133
세종문화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문화로 17번	64. 10. 14	603	임영이	길미숙	이원재 민선혜 곽희임 이진세 오성문	T.044)865-2411 865-2412 F.044)864-0870
예산문화원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	55. 10. 15	344	김시운	박세진	김상희 윤선은	T.333-2331 335-2441 F.334-4330
온양문화원	아산시 남산로 28	57. 5. 10	249	이만우		허미화 이명숙	T.545-2222 F.542-4444
천안문화원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276-14	54. 7. 10	182	현인숙(직무대행)		장희중	T.562-9611 F.554-8860
천안시 동남구문화원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172 아우내순대길29	58. 4. 20	80	김준기	곽승일	김희영	T.564-1022 553-1032 F.563-1021
천안시 서북구문화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3로 7-11	63. 5. 16	270	황광원		김은애	T.581-2101 F.582-1725
청양문화원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29	65. 2. 11	286	이진우	이병운	복은주 차승원 송미애	T.943-4774 F.944-1030
태안문화원	태안군 태안읍 남산1길 85	90. 10. 10	241	김한국	정지수	김유미 박경미 권현아	T.674-2192 F.675-6968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89-4	54. 3. 31	605	전용택	전용식	강청식 이은주 정선영	T.632-3613 F.633-1199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충남문화

CHUNGNAM CULTURAL MAGAZINE No.16

발행일 | 2012. 12

발행인 | 이준호

기획 | 윤준웅, 전용택

편집인 | 김영철, 강현숙

발행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충남 서산시 부춘공원 2로 11

Tel. 041)669-5050 Fax. 041)669-4567

* 충남문화 제16호는 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